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등급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지앙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6월 1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26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정보화 교류단절

뉴스·단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군소 홈페이지의 수적 증가는 제쳐놓고, 94년 '종단 전산화'에 대한 대중적 논의가 시작된지 6년만에 수 억원이 소요되는 '사이버' 대작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맏형 격인 조계종은 데이콤·이현시스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3월부터 '달마넷(Dharma Net)' 서비스를 시작했고,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전산본 팔만대장경의 1차 교정을 오는 6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한국불교전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교계에서 '사찰·단체의 개인주의' '정보·기술의 독점' 등을 버리지 않는 한, 사이버 항해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데이콤은 당초 10억여원을 달마넷 사업에 투자하기로 협정했으나, 지난 4월 조계종과의 1차 사업평가 때 난색을 표명했다. 달마넷 수익성이 거의 '제로' 상태였다. 협정서에 따르면 수익성이 재조할 경우, '일정기간' 지원금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천리안 담당자는 "달마넷을 홍보할 전담팀이 조계종에 구성되지 않았고, 또 단위 사찰에서는 '총무원이 벌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포교시대 정보-기술 공동 개발

경전전산화에서도 고려대장경연구소와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와의 자존심이 '중복투자'와 '시행착오'를 낳았다. 이 분야에서 핵심기술은 한자폰트 기술. 그런데 두 단체의 자존심은 상호교류의 벽으로 작용했고, 결국 전자불전연구소의 〈한국불교전서〉 전산화는 교계에 한자폰트기술이 있었지만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정보화는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필수 조건이다. 지식과 정보는 모두가 공유할 때 가치를 인정받는다. 교계의 정보화는 정보를 축적하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화에 맞는 '사부대중의 근기' 즉 이해와 교류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증욱 기자(gobaocu@buddhapia.com)

BBS 불교방송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애정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후원계좌 : 800-076 국민은행 : 027-25-0020-643
농 협 : 062-01-238221 외환은행 : 129-13-03229-0
예금주 : 불교방송
(121-060) 서울 마포구 마포동 340 대오빌딩 (전화 : 02-705-5500~1)

해인골프장 무효소송 제기

해인총림대책위등 12개단체 대구지법에 소송
행정행위 무효확인 요청…건설백지화 기대

해인골프장 건설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돼 해인골프장 건설백지화의 전망이 다시 밝아졌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 반대 해인총림대책위(위원장 보광스님)와 주민대책위(위원장 도영환),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정학)등 12개단체는 4일 대구지방법원에 건설부장관과 경북도지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피고로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訴狀)에서 "건설부장관이 90년 4월17일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건설을 위해 공원계획변경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경상북도가 (주)가야개발(대표 김선국)에 대해 골프장사업계획을 승인한 것도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효 주장의 근거로 허가당시 자연공원법과 同시행령에 △국립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중 골프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전 환경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95년 법대책위가 골프장사업 승인기관인 경북도를 상대로 승인행위의 취소를 구했던 것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행정소송은 문체부에 의해 승인취소 재결이 났으나 가야개발이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을 거쳐 97년 12월 대법원이 가야개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됐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석사무국장은 "그동안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의 재기를 꾸준히 요청해왔다"면서 더욱이 "지난해 12월 가야개발이 요청한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요청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해 거부된 것도 소송을 재기하게 된 한 요인"이라며 승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94년 12월 경북도의 승인을 받은 해인골프장은 가야산국립공원일대 48만평의 부지에 18홀규모로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환경파괴와 문화재훼손을 우려하는 해인총림과 환경단체, 인근주민들이 연대해 무효확인소송을 포함 총3건의 소송을 제기하는등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왔다. 〈해인골프장 사태 일지 3면〉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봉행된 법회에서 각 종단의 스님들이 석가모니 불을 정근하며 통일발원 탑돌이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강산에 통일기원 목탁소리

불교도 순례단 신계사터서 분단이후 첫 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고산스님(조계종총무원장)과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대정사 등 각 종단 대표와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등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단' 1진 5백50여명은 3일 오전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상귀외와 반야심경 봉독, 고산스님의 법어, 성초 진각종통리원장의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의 법회가 갈라진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관음의 자비가 되고, 문수의 지혜가 되어 민족의 통일의 새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성초 진각종통리원장은 발원문에서 "남북의 단중생이 더불어 복락을 누리는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원했다.

이에 앞서 순례단은 2일 현대금강호 선상에서 '민족화합과 평화통일 기원 방생대법회'를 봉행하고 고산스님의 방북 때 북한에 전달할 석가모니불금동좌상과 오존과불의 점안식도 거행했다. 순례단은 5일 동해항에서 회항했다. 〈관련기사 3·11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분담금 납부키로

조계종-선학원 합의초안

조계종 법인대책특위(위원장 영담)와 선학원 현안대책실무위(위원장 성문)는 11일 조계종 종회사무처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조계종-선학원 관계정립을 위한 공동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합의문 초안을 통해 △선학원 정관에 '조계종 종지·종통 봉대' 삽입하고,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보장 △조계종의 권리제한 해제 및 선학원의 분담금 납부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선학원 임원(이사) 구성에서 법인특위는 '조계종 승려'를, 선학원 실무위는 '조계종 승려 중 분원장'을 주장해 재논의키로 했다. 또 선학원 명칭에 '조계종'을 삽입하는 문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4차 회의는 22일 열린다.

정성운 기자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22일~24일, 에버랜드 · 사찰서 2박3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제 2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사찰과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1999년 7월22일(목)~24일(토), 2박3일(사찰1박 에버랜드통나무집 1박)
◇장 소 : 용주사 신륵사 와우정사 경수사 백령사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5백명)
◇참 가 비 : 5만5천원
◇문 의 : 현대불교신문 전화(02)723-1776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 선재이벤트
후원 :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불교조각원

현대불교 운영 사이버 백화점 몰 부다피아

'인터넷 우수 사이버몰' 선정



불교계 유일의 불교전문 사이버백화점인 본사의 '몰 부다피아'(mall.buddhapia.co.kr)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제1회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에서 전문분야 우수사이트에 선정돼 8일 열린 시상식에서 상장과 인증서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전자거래표준원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관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우수사이버몰시상제도 제1회 대상은 '한솔CS클럽'(www.csclub.com)이 차지했다.

'몰 부다피아'는 불교관련 서적에서부터 정보화 소프트웨어·팬시용품을 비롯 향 염주 불교공예작품 등 반 등 1천여종의 불교관련 용품을 시중보다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무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몰 부다피아'는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이체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상품 가격의 3%를 적립해 주며 3만원 이상이 되면 적립금으로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불교용품 불교미술 불교서적 식품 전통공예 서화문구 등 각 코너별로 상품전시장을 운영해 상품 설명과 이미지, 소비자가격·할인가격 등을 안내(영문 버전도 제공)해 준다. 이밖에 국내외 '불교사이트 링크'와 '천불전' 코너를 운영해 네티즌들이 사이버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교 속보·법어를 제공하고 불교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불교 갤러리'도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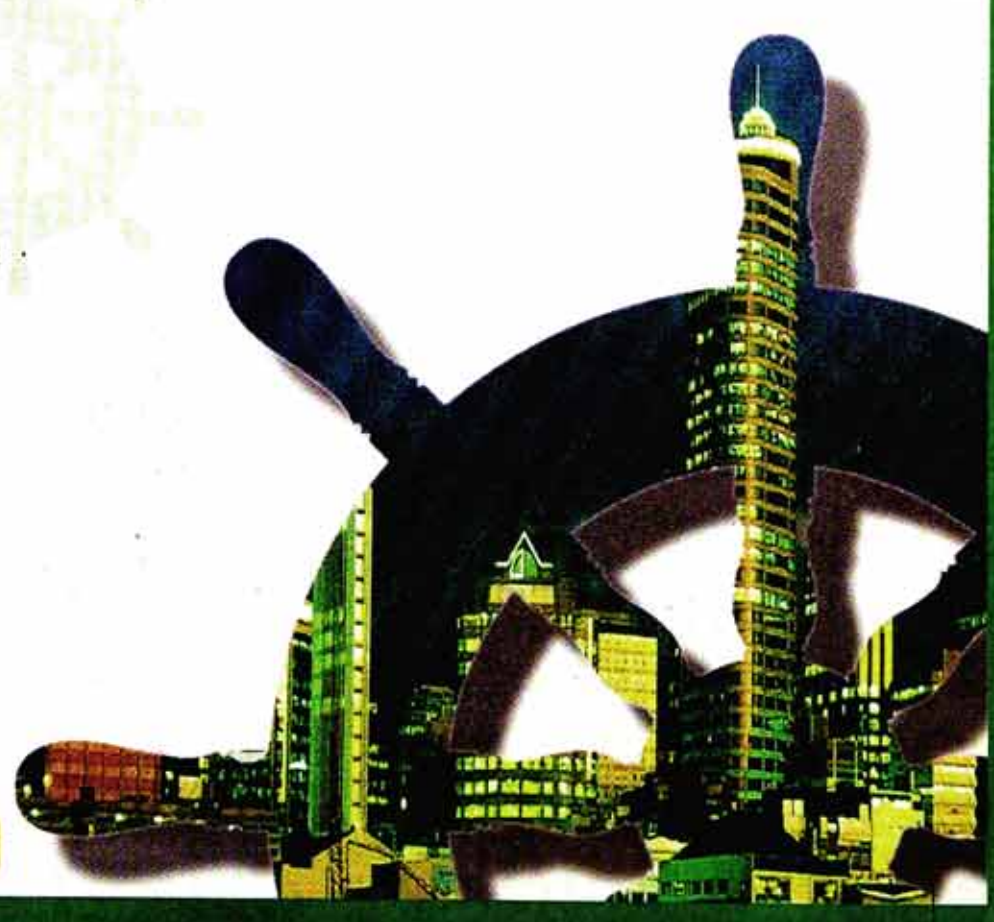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gva (주)건화종합건축사무소
GUN WHA ARCHITECT & GROUP CO., LTD
종합 건축설계 · 종합 감리전문 · 마스터플랜 · 엔지니어링 · 시뮬레이션 및 에니메이션 · 구조물 안전진단
대표 TEL(02)555-1567~8 · 02)555-7181~4

주식회사 아리종합건축 · 건설
건축 시공 · 견적 · 유지 관리 · 강구조(P.E.B)
대표 TEL(02)555-5775 · 02)555-2434~6

ARI 아리건영(주)
주택 건설사업 / 사업성 검토 / 부동산 컨설팅 / 인테리어 / 건축자재 무역업
대표 TEL(02)555-1567~8 · 02)555-718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2-24(아리빌딩2,3층) 대표이사 김 기 상



사 설

직장법회 활성화하려면

모든 종류의 신행생활은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찰은 현전삼보가 머무는 신성한 공간이므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공덕이 된다.

어떤 사람은 '곧은 마음이 곧 도량(直心是道場)'이라는 〈유마경〉의 말씀을 들먹이며 마음만 곧으면 그곳이 어디든 삼보가 머무는 곳이며 수행하는 도량이 된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곧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 현전삼보가 머무는 신성한 도량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현대의 불자들은 여러 가지로 종교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우선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고, 또 가까운 곳에 마땅히 찾아갈 사찰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절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자들이 등종직업이나 직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행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해온 것은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현대생활은 직업과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직업이나 직장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자주 모일 기회도 많고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면 거리나 시간의 제약으로 소홀할 수 있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직장 직능법회가 구성돼서 현재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수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포교적 측면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렇게 직장 직능법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해서 그 미래가 낙관적인 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직장 직능법회가 사찰 밖에서 꾸려지다 보니 몇 가지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신행의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법회를 이끌어갈 지도법사를 모시기 어렵다는 점, 셋째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 중의 하나다. 이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회를 이끌어갈 지도법사 문제다. 법회장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법회를 이끌 법사스님 확보는 별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것이 직장법회 관계자들이 털어놓는 한결같은 애로사항이다.

종단도 이런 문제에 대해 더이상 방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직장 직능법회에 참가하고 있는 불자의 수가 수십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 이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과 문제점을 범불교 차원에서 해소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19~20일 조계종 포교원이 직장직능 신행단체 지도자대회를 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포교원은 이 기간 중에 직장직능단체 상호간의 유익한 정보교환과 연대감 형성, 이를 바탕으로 한 동일직종 또는 직능간의 연합조직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이 이렇게 직장직능 신행단체 대표자를 모아서 연찬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들 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자들도 이 기회에 한자리에 모여 그 등안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곧은 마음이 곧 도량'이 되도록 하자면 이런 모임은 정말 중요하다.

"건축법 개정 따른 사찰환경 피해 없도록"

법적장치 조속 마련"

박지원 문화부장관 조계종 방문서 밝혀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7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법을 개정했으나, 본의아니게 사찰에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유감을 표하고 "전통사찰보존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사찰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인사를 위해 조계종총무원을 방문한 박장관은 총무원장 고산스님에게 이같이 밝히고 "문화재보호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5월 각 시·도지사에 공문을 보내 건축법 8조 4항의 폐지로 전통사찰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사찰의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건축허가 자제를 요청했다.

박장관은 또 이날 고산 총무원장에게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화합에 불교계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고산스님은 이 자리에서 박장관에게 내년 연등축제와 진감국사의 달 행사에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정신문화 계발과 예의·도덕 선양, 종교간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산스님은 연등축제를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신라시대 때 행해졌던 육륜법회(六輪法會)를 재현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륜법회는 천상, 인간, 축생, 아귀, 아수라 등을 6개의 장면으로 연출하는 가두행진의 일종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취임인사를 위해 총무원을 방문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설립

불교등 종교인 24명 참여… 복지발전 모색

종교계 사회복지사업의 전문화와 종교간의 상호이해와 연대를 목적으로 한 종교사회복지연구소가 설립됐다.

종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혜숙)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마련한 연구소에서 현판식 및 기념 특강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 연구소 설립은 지난해부터 종교단체 복지관계자들이 만나 범종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각 종교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 연구와 사회복지 일반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 활동 및 이론 연구의 상호연계 도모를 취지로 발족한 종교사회복지연구소는 인간의 정신성(spirituality)을 증시하는 사회복지 이념 정립 및 사회복지 교육과 정책수립 등을 통해 종교 및 일반복지 발전을 목표로 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종교사회복지연구소는 월례연구모임, 연례 세미나, 워크샵, 연구 성과물 간행, 종교계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국제 교류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이 연구소에는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인과 학자 등 2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불교계에서는 소장인 이혜숙씨(동국대 강사), 상덕스님(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성덕스님(방생선원장)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 등 모두 10인이 개인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혜숙 소장은 "일반복지와 종교계의 사회복지에 차별을 두고 범종교적인 사회복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종교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 개원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날 특강에서는 미국에서 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에드워드 칸다 교수(캔사스대 사회복지대학)가 'spirituality와 사회사업'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경주불교엑스포 조기 폐막

종단협 "체불수습 노력중"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는 9일 경주에서 열린 한국불교예술대전 입주업체들의 보상요구와 관련해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단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단협의회는 불교예술대전의 취지에 동감해 행사후원 차원에서 주최자 명의사용만 허락했을 뿐"이라며 "입주업체와의 계약은 행사주관사인 한국피에스엠(대표 김재신)에 있어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단협의회는 김재신씨에게 체불금(약 6천5백만원) 지급을 종용하는 등 사태를 마무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예술대전은 4월 30일 개막해 37일 동안 경주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렸으나 관람객 저조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조기 폐막했다.

이 과정에서 김재신씨가 행방을 감춰 파행운영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입주업체들과 협력업체들은 종단협의회에 피해보상과 체불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교계에서는 이번 행사로 불교의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이후 명의사용 허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운 기자

본말사 주지연수

조계종 교육원, 이달말부터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이달말부터 오는 10월말까지 6개 권역별로 나눠 본말사 주지연수를 실시한다.

첫 주지 연수는 29~30일 천안 주택은행 연수원에서 법주사와 마곡사, 수덕사 등 충청지역 본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어 직할교구를 비롯한 서울·경기·강원지역(용주사 신흥사 월정사 봉선사, 9월 20~21일)과 경북지역(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고운사, 9월 29~30일), 경남지역(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10월 7~7일), 호남지역(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10월 21~22일) 등 권역별로 본말사 주지 연수가 실시된다.

김재경 기자

겸직금지 해제등 논의

조계종 종헌 종법특위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위(위원장 정휴)는 7~9일 종회사무처 회의실 등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종헌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겸직금지 해제와 중앙종무기관 기구 개편과 관련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참석자는 "종헌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 또는 5년 단임제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위는 이달 20~30일 사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종헌·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7월말 임시종회를 열어 종헌·종법 특위가 제출할 종헌·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문화부종무관 이승규씨



문화관광부는 11일 종무실장에 김순길 종무실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종무관에는 이승규(52·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서무과장을 임명했다.

이 종무관은 명지대와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문광부 감사과장, 문화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6월 : 사굴산문(굴산사지)·등명낙가사·보현사

6월에는 범일국사에 의해 개창된 사굴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 굴산사지를 찾아갑니다. 현재 절터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보물 제86호)와 부도탑(보물 제85호), 석조비로자나삼존불상 등을 통해 당시 번창했던 산문의 규모와 선사들의 향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등해안 일출로 유명한 등명낙가사에서 참선 정진의 시간도 갖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범일국사 최초 창건 가람인 보현사도 참배합니다.

◇출발: 6월 26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안내: 김흥술(강릉시청 학예연구사)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대한불교제과인회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군법당 기금인데…

불광사·불광법회 제2대 법주 지정 스님 추대식 봉행

"한국불교 현대화 대중화의 기수로서 전법의 횃불을 드높이겠습니다"

저희 대중은 한국불교 현대화와 대중화의 횃불이셨던 불광사·불광법회 초대 법주이신 광덕 큰스님의 열반으로 스님의 맏상좌이신 지정(至淨) 스님을 제 2대 법주로 추대하오며, 더욱 힘찬 정진과 전법으로 바라밀 국토 성취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공동 추대위원장

지환 (은상좌 대표)
하산 박충일 (불광사·불광법회 회장)

추대 위원

지환, 지오, 지연, 지상, 혜성, 지원, 지홍, 지문, 상진, 성일, 혜운, 학륜, 지선, 경민, 지명, 지철
지인, 지현, 지묘, 지종, 지성, 지암, 자명, 지도, 지한, 상곤(光德 스님 恩上佐)
진효, 진산, 진융, 대일, 대각, 대웅, 대혜, 본공, 본각, 정안, 동일, 원일, 범효, 대우(孫上佐)

한탑 스님, 송석구, 신영균, 김기동, 맹만섭, 조용길(불광사·불광법회 전 회장단)
박충일, 김상규, 김재영, 이경호, 이용희, 차정옥, 김정자, 이승한, 류정수, 김만업, 정진율, 김길원, 김창호
정칠선, 김난희, 최계순, 석주화, 김영숙, 한정옥, 국을경(현 회장단)

향적보살단, 선학보살단, 명등보살단 및 구법회 각 법회 임원단, 초·중고등학생 지도 교사단·법사단, 청년·일반 법회 법사단
월간 불광·불광출판부·도서출판 한강수, 불광유치원·불광사·불광법회 대중 일동

일 시: 불기 2543년 6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불광사 보광당 우편번호 138-190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1 불광사·불광법회 전 화 413-6060-2 팩시밀리 413-6781

오계수지해야 신도자격 준다

조계종 '신도법 제·개정 기본안' 확정

입교 신도교육 수계의식 등 정비

공청회·여론수렴후 7월 종회 상정

조계종 신도의 입교(등록) 및 교육, 수계, 조직, 활동 및 자격 등을 규정하는 '포교 및 신도관련 종법 제·개정 기본안'이 확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9일 포교원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교·신도관련 종법 제·개정을 통해 건강한 신도 양성과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공의에 의한 청정·화합 공동체를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몇 년전부터 신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행체계화 연구', '신도교육의 해' 지정을 통해 신도교육을 종단의 주요 종책사업으로 지정했지만, 결국 '중앙종무기관 따로 현장 따로'라는 결과만을 확인한 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의 신도관련법 등의 제·개정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도 교육 및 관리의 체계화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포교·신도관련법의 제·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도의 입교**=종단 차원의 통일적인 교육내용과 입교 의식을 통해 종단의 신도교육에 대한 통일성을 확립하고, 사찰에서는 새 신자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함으로써 입교자가 사찰 및 종단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신도등록 및 교무금**=△신도등록 사업이 신도의 교육 및 활동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업무를 본말사로 이관하는 안을 적극 검토한다. △신도 등록 시에 신도증 발급비(실비)만 받고 별도의 교무금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새롭게 제출하되, 현행 교무금 납부제도를 유지하는 안과 비교해 찬반여부를 묻는다.

■**신도교육과 자격, 수계 및 활동**=△신도의 자격을 '5계 수지 후 등록한 신도'로 명시한다. △신도 기본교육의 의무화 △교육에 따른 신행활동 보장

■**포교사의 위상과 역할 명시**=활동을 중심으로 일반포교사와 전문포교사로 구분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꾀한다(현행 종법이 규정하고 있는 포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각급 신도 임원이나 종무직에 대한 조항을 엄격히 적용).

■**전교사 제도의 신설**=신도의 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며 활동의 장을 보장(활동비 지급)하는 '종단 상임포교사'와 같은 전교사 제도를 신설한다.

■**신도회 및 신도단체 관련**=△사문화된 신도법 제25조에 의한 지역 신도회 규정의 폐지 △신도법 제 39조 지역단위 신도연합단체에 대한 조문을 개정해 실질적인 활동력을 갖게 한다.

포교원은 포교 일선 주지스님과의 간담회(15일), 각급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과의 간담회(16일),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25일), 불교교양대학 대표자 회의(7월1일), 종합공청회(7월10일, 종회 포교분과위와 공동 주관), 설문조사(6월10일~7월3일)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중앙종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도교육과정>

구분 \ 단계	기본	전문	지도자
주관	사찰 및 지역교육기관	인가교육기관	종단
조건	의무	신행경력 2년이상 5계 수지자	전문교육이수지 또는 보살계 수지자
목표	기초교리및 수행법 이해, 불자로서의 삶을 익힘	교계 및 사회에 봉사하는 불자 양성.	다른불자들의 신행을 이끌고 지도할 수 있는 불자 육성.
교육내용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신행의 의미와 방법 신도의 권리와 의무 사찰의 구조와 의미 ※교재:불교입문, 수행지침서(발간예정)	교리전문(深化), 수행전문(實修), 응용전문(실천) ※교과과정 기준 제시 ※3개 전문영역을 포괄치 못하는 등록교육기관의 경우 1개 코스로서만 인정	교리 및 수행 심화, 신행지도 방법등 해당목적에 맞는 집중심화 교육및 1년간 활동점검·비상설 교육기관(종법상 항후 포교사대학 설립)
기간	3~6개월 30시간 이상	2년 120시간 이상	1년 60~130시간 전문코스 개발
수료후 자격 부여및 활동	5계수지 신도등록 신도회 및 개별 신도단체 임원	보살계수지, 포교사고시 응시자격, 각종 봉사활동,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 활동	전교사(신설) 신도교육 및 신행지도 담당



◇기자간담회 참석한 종단대표들. 오른쪽부터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대정사,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조계종 종회의장 법등스님, 교육원장 일면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조불련대표 서울초청의향 있다"

고산스님 4일 금강호 선상서 기자회견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를 이끈 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조계종총무원장)은 이번 순례의 취지를 "불교의 자비사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며 "각 종단의 대표와 신도들이 북녘땅 금강산에서 한마음으로 통일을 발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산스님은 4일 금강산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현대금강호 선상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후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계사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경과는?

▲남북이 합의하면 올 늦가을쯤 기공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신계사 복원을 위한 남북공동 학술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고산스님의 북한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

▲8일부터 불추위 대표단이 방북해 조선불교도연맹과 북한 사찰의 복구와 나의 방북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의 불교도 금강산 순례를 평가한다면.

▲성과는 대단히 크다. 각 종단 대표와 신도 1천1백여명이 참가해 북녘땅 금강산에서 한마음으로 통일을 발원했다. 이후 남북불교교류도 원만히 진행될 것이다. 이번 순례로 조성된 기금(약 1억원)은 불추위와 협의해 비료보내기 성금과 합쳐 (방북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번에 모시고 온 금동불과 5존괘불도는 언제 전달할 계획인가.

▲내가 직접 북한(조불련)의 초청을 받아갈 때 전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한불교 대표를 초청할 의향은.

▲불추위 대표단과 조불련이 만난다. 틀림없이 나를 초빙할 것이다. 좋은 일 있으면 그분들을 서울로 초청할 생각이다.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한편 조계종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앙종회의 지원방안을 묻는 질문에 "종회는 입법기관이므로 종단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무원장 스님의 염원을 받들어 뒷받침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교육부 '승가대 정원동결' 제재

총동문회 '위기상황' 규정…김포학사 6월 준공 난항

한국의 나란다대학을 자임하는 중앙승가대가 정규대 인가조건을 불비해 교육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한편 김포학사의 6월 준공이 예산 및 준비부족으로 늦춰지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원종)가 지난 2일 제6차 회의에서 '현 학교 상황이 위기상황'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인 것도 이같은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날 총동문회장이지 중앙승가대 기획실장인 원종스님은 지난 5월12일 교육부의 '99대학설립인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및 이행촉구 지시'와 관련 "중앙승가대가 정규대로 승격하는 조건으로 교수를 20명이상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교육부로부터 2000년도 대학정원 동결 제재조치를 받았다"면서 "올해 안에 교수를 3명이상 충원하지 못할 시 대학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학생모집 중지 등의 추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들의 처우를 높이는 한편 교수평가제를 도입해 교원들의 강의나 연구를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김포학사로의 이전시 운영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종단지원금을 2억여원 정도 인상하고 개운학사를 활용하며, 재정후원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인 사무처장 등 핵심부서장의 공석으로 행정상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포학사 신축공사 현황에 대해 법인 실무자는 "현재 68%이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수도의 원인자 부담금 7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해 상수도 공급이 준공 때까지 어렵고, 도시가스 공급과 교통영향 평가를 제때에 받지 못해 6월중 준공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6월말까지 김포학사의 준공이나 이전이 안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각종 기계 및 배관, 보일러 등의 가동과 압력테스트 시험가동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기계설비의 부식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계 수명의 단축과 운용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시공업체인 풍림산업의 하자보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직원(기계 전기 건축 경비 등)이 상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부서 책임자가 공석인 관계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직원인력 재배치와 효율성 제고의 과제를 안고 있는 중앙승가대가 예산부족과 준비소홀로 김포학사로의 이전불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된다. 중앙승가대의 자구노력과 함께 조계종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해인골프장 관련 주요 일지

90년	성주군, 가야개발을 가야산국립공원 개발사업주로 지정
94년 12월	경상북도,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95년 4월	주민 등 해인골프장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95년 7월	문화체육부,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취소 결정
95년 8월	가야개발, 서울고법에 문체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제기
96년 6월	서울고법, 취소처분 취소 판결
96년 7월	문체부, 대법원에 상고
96년 9월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범국민대책위 결성
97년 10월	백만인 서명운동 백만명 돌파
97년 12월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가야개발 승소)
98년 12월	가야개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98년 12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연장허가 거부
99년 2월	가야개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99년 6월	해인총림대책위 등 12개 단체, 대구지법에 해인골프장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

목어

지하철에서

지하철은 조용하다. 피로와 긴장이 자아내는 어색한 침묵. 그런데 그 공간을 두드리는 소음이 들 있다. 하나는 전도사들의 기계적 쇳소리다. 그들은 당당하게 녹음된 북음(?)을 틀어댄다. 나는 다짜고짜 타인의 공간 속을 침범하는 무뢰한들을 두고 보지 못한다. 그게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고 해도 그렇다. 참다가 소리를 질러 보지만 못 들은체 계속 떠들거나 슬그머니 자리를 옮긴다.

또 하나는 잡화를 소개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다. 그들은 겸연쩍게 가방 속에서 물건을 꺼낸다. 팔고 있는 상품(?)의 종류는 다양하다. 무슨 본드류, 칫솔, 목욕제품, 비옷 등등. 조잡한 물건을 들고 최신기능과 기술혁신을 자랑할 때는 슬그머니 웃는다. 가끔 사기도 한다.

물건 값은 천원짜리 한 장. 많아도 두 장을 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더 비싸지면 아무도 사지 않을 테니까.

지하철의 공간은 철저한 익명과 우연의 공간이다. 그곳의 신뢰지수는 제로에 가깝다. 비웃이 찢어져 있어도 웃고 말 사람이나, 본드가 잘 붙지 않아도 그냥 욕하고 버릴 각오가 된 사람들이 지하철의 물건을 산다. 속는 셈치고 지갑을 여는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속는 셈치고'의 수준으로 천원짜리 한 장은 너무 낮지 않은가. IMF라곤 하나 우리 경제규모와 소비수준은 옛적 보릿고개 넘던 시절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때보다 더 각박해졌다. 여러 이유를 댈 수 있다. 조직의 규모가 크고 다양화되었다는 둥, 익명성과 위험이 확산되었다는 둥. 그러나 결국 변명일 뿐이다. 근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불신을 확산시킨 주범은 네가 아니고 바로 나다.

그 독을 치유하자면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속는 셈치고'의 수준을 높여가면 어떨까. 가령 지하철에서 과는 만원짜리 물건을 눈감고 사준다. 만원 정도라면 속아주지 했던 사람들은 십만원 정도로 수준을 높인다. 그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는다. 심리적 여유가 커지는 만큼 사회속에 팽배한 이기심과 적대감도 따라 무장해제되어갈 것이다.

한형조(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본지 논설위원)

깊은마음 · 참나

'99 쌍계사 여름 수련법회 안내

장활하게 흐르는 쌍계활수와 산허리에 이는 맑은 바람은 지친 우리들의 육신을 맑혀주고, 붓다의 말씀과 조사스님의 활구는 나약한 영혼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여 「깊은 마음 · 참나」를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행사일정

	기 간	정 원	대상
1차	7월 29일(목) - 8월 1일(일)	남30명, 여30명	일반인
2차	8월 3일(화) - 8월 6일(금)	남30명, 여30명	일반인
3차	8월 7일(토) - 8월 8일(일)	100명	초등학생

동참안내

⊙ 수련법회 신청대상(3박 4일) : 일반인
⊙ 자원봉사 신청대상 : 수련법회 참가 경험이 있는 분으로 매 차수별 6명 내외
⊙ 신청마감일 및 참가통보 : 신청마감일은 7월10일(토)까지이며, 참가 통보는 7월15일(목)까지 동참 가부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 동참금 : 일반인 6만원(교재, 기념사진 포함) ※ 초등학생은 무료

참가신청 방법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없으며, 아래의 기재사항을 A4용지에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FAX)로 신청하십시오

① 이름(한문,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우편번호 기재) ④ 직업(구체적으로)
⑤ 전화번호(직장,자택) ⑥ 종교
⑦ 원하는 차수(상기 일정표 참조) ⑧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

※팩스로 신청하실 때는 접수 후 전화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전화 0595)883-1901-2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 팩스 0595)883-6084

접수처

쌍계사 여름 수련법회 담당자 (우) 667-208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주지 도리천 합장**

"공군불심 이제 비상 해야죠"

창립30돌 김재철 공군 군승단장



"공군군승단 창립 30주년을 공군불교가 비상하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16일 오후 7시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공군회관 대연회장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공군군승단 단장 김재철법사(38·군종감실 계획담당관·소령)는 "공군산하 군법당의 의식 및 법당구조, 재정·신도회 규정 등을 통일하는 한편 각 기지별로 일요정기법회 및 사병법우회 법회, 어린이·중·고등부법회, 관사방문법회 등을 활성화해 생동하는 군불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군불교가 공식적으로 불교군종업무를 시작한 것은 지난 69년 6월16일. 이인수법사가 처음 공군법사로 임관(육·해군은 68년)하면서 부터다. 이후 윤주완법사, 지하스님, 성진스님, 이양길법사 등이 차례로 공군법사로 임관, 공군기지법당을 건설(최초의 공군법당은 71년 낙성된 공군사관학교 보라매법당)하고 포교활동을 전개했다.

법당 30곳·법사 20명
1만여장병 신행

현재 공군에는 20명의 군법사(예비역공군법사는 60여명)들이 군포교 일선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를 비롯 30 곳의 법당에서 1만여명의 공군장병들이 신행을 펼치고 있다. 93년부터 매년 공군불자수련회와 공군불자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수련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월간 〈공군불교〉라는 포교지를 월 3천부씩 발행, 공군불자들에게 교리와 신행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또 법당별로 일정한 불사금을 모아 공군사관학교와 교육사에 지원하는 등 군의 정신전력 강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마곡사 진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86년 공군법사로 임관한 김법사는 수원기지 법당의 증축과 군장병 상담활동 강화에 원력을 쏟고 있다.

한편 공군군승단이 공군중앙불교회(회장 고종무소장)와 공동주최하는 창립 3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공군불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군 불자들에게 표창패가 수여된다. 공군 참모차장 이억수 중장, 합참 전략계획본부장 김대욱 중장, 공군사관학교 부교장 김주식 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하고 작전사령부 전병태 대령, 공군본부 호일영 대령, 작전사령부 윤재원 대령이 포교원장상을 각각 수상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불교무용단 창단한 손재현교수

"불교무용 매년 한편씩 공연"



"대학시절 스승이 춤을 통해 선교하는 모습을 지켜 보며 불자인 저도 무용으로 불교를 포교하리라 결심했습니다." 불교포교 전문 무용단인 '손재현 무용단'을 창단해 창단공연 '넋의 소리'로 호평을 받은 동국대 손재현교수(사범대학 체육과)는 오랜 원력을 이룬 지금 계획이 무궁무진하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관음기도 도량, 적멸 보궁 등 전국 기도 성지를 따라 다녔으며 89년에는 직지사 조실 관응스님으로부터 '옥경화'란 법명을 받을 정도로 불심이 돈독한 손 교수의 꿈은 1년에 최소한 한 번씩 불교를 주제로 한 무용공연을 갖는 것. 하지만 사재를 털어야만 하는 현실로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장벽이다.

손교수는 "다음 공연에서는 사찰 입구에서 도량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천왕의 각기 다른 표정들을 무용으로 재미있게 각색해 보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교차로

아미타정토대 입학식 증명



설산 정토사 조실스님은 3일 서울동산교육회관에서 새로운 신행운동을 펼칠 염불법사를 양성할 아미타정토대학(학장 김재일) 입학식에서 증명법사로 참석해 법문했다.

MBC 北비료보내기에 금일봉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스님은 9일 MBC-TV의 특별생방송 '북녘동포에게 사랑의 비료'를 프로그램에 출연, 금일봉을 전달했다.

만해스님 55주기 추모재



성해 선학원 중앙선원장 스님은 29일 만해 한용운스님의 55주기 추모재를 중앙선원 3층 대법당에서 거행한다.

총무원 법당 낙성법회



효성 법륜종 총무원장 스님은 종로구 수송동 총무원 청사 3층에 30평 규모의 법당을 마련하고 25일 개원 및 점안대법회를 갖는다.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봉안한 법당은 종단 주요법회 및 회의나 스님들과 신도간부를 위한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저소득 학생에 장학금



혜창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장 스님은 7일 복지관 6층 회의실에서 지역 장애학생 및 저소득 가정 중·고생 6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판문점서 통일발원 법회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스님은 3~4일 전국의 간부회원 118명에 대한 통일교육원 입소 교육을 실시했으며, 판문점에서 통일기원 발원법회도 봉행했다.

中 보위차 학술대회 참석



여연 일지암 암주스님은 11일 중국 운남에서 열리는 국제 보위차 학술대회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보위차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 의미 등이 논의된다.

북한 식량실태 기자회견



법륜(사)좋은벗들 이사장 스님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정토회관 강당에서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출판기념식 및 북한 식량 난민실태보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02)537-8996

7군단 장병 위문법회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은 보훈의 달을 맞아 불자가수회의 후원으로 9일 7군단 사령부 연병장에서 군단장을 비롯한 장병과 육군교도소 재소자 장병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문공연을 실시했다.

中 중의약大서 명예의학박사



조재호 동국대 의료원장은 9일 중국 흑룡강 중의약대학에서 한·중 양국 교류를 통한 동서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제3의학 공동연구를 위한 양국간 협정식을 거행했다.

동국대 불자교수회장에



김경제 동국대 교수(식물자원학)는 4일 정각원에서 개최된 동국대 불자교수회 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임됐다. 김교수는 건학이념 구현과 전국사찰 순례법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민속문화연구소장에

주강현 문화재 전문위원은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민속문화연구소 창립대회에서 소장에 선임됐다.

사진동우회 '심상' 회장에



허애영씨는 3일 석왕사에서 열린 제11회 '심상'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신장기증 덕선스님

"화엄경읽다 발심 가르침 실천일뿐"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청년불자에게 신장을 기증한 스님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현재 전남 함평군 각긍암에서 홀로 거처하며 수행에만 몰두해왔던 덕선스님. 스님은 지난 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우식씨(30)에게 신장을 떼주었다. 정우식씨는 동국대 총학생회장과 대한불교청년회 조직국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불교활동을 펼쳐온 청년불자.

지난 4월 〈화엄경〉을 공부하던 중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발심했다는 덕선스님은 "수행자로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방편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 몸을 떼어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편안케 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신장기증뿐만 아니라 이미 사후각막, 뇌사시 장기, 사후 시신기증까지 도 서약했다고.

한명우 기자



구하스님 영결식 종단장 엄수

2일 입적한 대한불교 화엄종 종정 해원당(海源堂) 구하(龜河)스님의 영결식이 6일 오전 9시 인천 약사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은 삼귀의례 법주착어 반야심경에 이어 구하스님 약력보고(화담스님) 추도노래, 조사(정희수 종회의장) 영결사(덕암스님) 추도사(탄공스님) 조시 헌향 헌화 삼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대한불교 화엄종장학회 정희수 이사장, 인천시 조계종 사암연합회장 현성스님, 인천시불교총연합회장 선응스님, 동암사 무찰스님, 보화정사 탄공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경주지역 사지발굴·복원 최선"

동국대 매장문화재硏 한병삼 소장



"매장문화재연구소는 경주지역 사지 발굴과 정비에 일차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건설현장에서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일 문을 연 동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초대 소장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절터·성보 등과 관련된 역사사료를 토대로 매장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불교고고학 이론을 정립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라의 찬란한 불교문화와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불국토' 경주에서 절터와 매장된 성보의 발굴과 보존을 도맡을 교계의 전문연구소가 여지껏 아쉬웠던게 사실. 매장문화재연구소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소장은 "매장문화재연구소는 이미 발굴된 역사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는 곳"이라며 "연구자료를 통해 경주 지역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일도 연구소의 중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건이 성숙되면 문화유산 관련 학술회의, 보존·보호 운동,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 조사연구 및 자료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2시에 열린 연구소 현판식에는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 최규철 부총장, 이원희 경주시장, 대구·경북지역 대학박물관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95명 참선·염불 용맹정진"

8~11일 군승하안거 실시

"군인정신으로 용맹정진을!"

육해공군군승단(단장 이희용)은 8일부터 11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군승 하안거를 실시했다. 지난 5월29일 전국의 선원에서 2천여명의 선방 수좌들이 일제히 하안거 결제에 들어간데 이어 95명의 군승법사(전체인원 116명)들도 이번 하안거에서 참선방 염불방 간경방 등으로 나눠 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9일 격려사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인 위상과 역량이 약해지고 있는 만큼 군법사들이 앞장서 군포교의 활성화를 통해 거사불교의 토대를 일구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포교부장 현진스님은 군법사들에게 김태복 소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군포교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군법사들은 마지막날 대의원회의에서 김태복 소장사건에 대한 군승단의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경 기자

인 사

불교TV
◇총괄국 △국장=강정기 △총괄부장=최세영 △총괄부차장=이상민 △전국부장=신동우 △전국부차장=윤상호
◇사업국 △사업국장=손동용 △사업부 차장대우=천화성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부국장대우=이재한 △차장=노원래
◇총무부 △총괄차장=전병철
◇심의실 △차장=한용우
◇제작부 △제1차장=이현오 △제2차장=김양 △제3차장=김원곤
◇편성부 △부장=황낙연 △편성팀장=김형준 △뉴스팀장=임동민
◇기술부 △총괄부장=양희상

도서출판 열린마음·열린세상 전화 (051)627-5498 팩스 (051)623-3946



4×6배판 / 값6,000원

'지장사상'은
잘하면 상을 주어 천당 보내고 못하면 벌을 주어 지옥 보내는 극단의 사상이 아니라, 지옥의 모든 중생이 제도되어 지옥이 텅 빌 때까지는 자신의 성불도 포기하겠다는 구제사상 이야말로, 이 시대 중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상이요, 신앙입니다.

지장사상과 지장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책으로
지장기도를 하는 불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찬술/석용산 스님 · 염음/석효선 스님

이 책에 실려있는 "지장참부경", "지장왕보살지혜심경", "지장경약찬게" 등은 스님께서 직접 찬술하셨으며, "지장예참", "지장왕보살예찬문" 등은 한글로 번역하고, 노래로 엮어 대중들이 편히 읽고 신심 나게 독송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각권 값 3,8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①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②여보게 저승갈 때 뭘가지고 가지
③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절
④성숙은 아픔의 동굴을 지나서
⑤친구하자, 친구하자

이 책들은 그 동안 스님께서 발표하신 글들 중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을 가려 뽑아 작은 책자로 다시 엮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스님의 참모습을 바로 보고 진정한 자비실천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지장기도법회

●지장예참기도 ▶ 음력 매월 초하루(부산, 대구포교원) 오전 11시
●지장천도기도 ▶ 음력 매월 14일(부산), 18일(대구) 오전 11시
●지장예찬기도 ▶ 매주 수요일(부산), 금요일(대구) 오전 11시

우리 모임에선

한국불교硏 교사 연수회

한국불교연구원 전국교사불자회(회장 김광열 성덕여중 교장)는 8월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충북 괴산 다보사에서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는 8월6일 오후4시 입재해 오리엔테이션, 동국대 정병조 교수의 강의, 수행실수, 친교시간, 기도정진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며, 접수는 이달 20일까지 받는다. (02)4311-6167

스카우트지도자 자경문윤독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19일 다보빌딩 15층에서 〈초발심자경문〉 윤독법회를 가졌다. 이날 윤독법회에서는 광명여자중학교 조준형 선생님(교감)이 강술한다. (02)2292-8502

천불동 대구모임 정진

천리안불교동호회 대구모임은 19일 대구구도회 법당에서 정진법회를 연다.

대구모임은 19일 오후 6시 집결해 이틀동안 의상대사 법성게 공부, 영천 거조암 및 팔공산 갓바위 순례, 좌선정진, 회원 상견례, 108배 참회 등의 순으로 정진한다.

회향은 천리안불교동호회에서 만나 20일 오후12시30분 황실호텔에서 화촉을 밝히는 천불동 5호 커플 심준엽씨와 은영씨 결혼식장에서 한다.

대구구도회 (053)256-8589

고시촌 도량 연화정사 첫 수계

포교 불모지대에 새 불자 37명 탄생
불교 옹호등 전문지식 사회회향 서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속칭 '고시촌'에 위치한 고시생 기도도량 연화정사(주지 선타), 37명의 고시생들이 6일 오후 3시 '고시촌 포교와 자비광명이 온 세계를 비추길 서원'하는 결사의 의미로 수계를 받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고시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연화정사청년회(회장 안태진) 제1회 수계식은 수계자인 고시생은 물론 신림동 지역 불자 70여 명이 10평 남짓한 법당을 가득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됐다.

보문사 정진스님을 계사로 봉행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사법·행정 고시를 비롯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 37명이 5계를 받고 새 불자로 탄생했다. 더이상 타종교의 전교에 넋놓고 있을 수 없고, 향후 사회 지도층불자로 불교권익 옹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여서인지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됐다.

연화정사청년회 안태진 회장은 "고시원과 학원, 그리고 식당을 쳇바퀴 돌면서 눈뜨자마자 책상에 앉고 책을 보다 쓰러져 자기 일쑤인 고시생들이 절에 다니며 신행활동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더이상 '포교 불모지'인 고시촌의 청년불자들을 방치할 수 없어 주지스님과 청년회 회원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회 서기 이중남씨는 "청년회가 5년, 10년 연륜이 쌓이면 청년회 출신 변호사·검사들이 '연화정사청년회 OB모임'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고시촌 포교는 물론 불교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관건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연화정사 청년회는 현재 매주 회원들이 십시일반 내는 보시금으로 법사를 초청해 불교기초교리강좌, 생활법문, 참선수행, 경전강의 등의 법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

주지 선타스님은 "이번 수계식에서 수계를 받은 불자들이 장차 불교계의 권익옹호와 중흥을 위해 노력하는 불자 법조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2)872-5008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연화정사를 고시생 기도도량으로 일구고 있는 주지 선타스님이 수계식에서 고시생들에게 연비를 해주고 있다.



구인사 상월대조사 25주기 열반재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 원각 대조사 열반 25주기 추모대재가 10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열반대재에는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스님들과 전국에서 모인 신도들,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일공 원융종 종정, 김순길 종무실장,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 허문도 불교TV 사장 등 사부대중 3만여명이 동참, 스님의 덕을 기렸다.



제1회 인권문화제 수익금 전달식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 수익금 전달식이 10일 조계종포교원 회의실에서 청화스님(조계종종회 부의장) 민가협 김정수 상임대회장, 장기수후원회 회장 성관스님, 조계사수배자가족협의회 장재욱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수익금 1천만원은 불교장기수후원회, 조계사수배협의회, 민가협에 각각 전달됐다.

금강경 독송회 순국영령 천도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6일 현충일을 맞아 전국 53개 도시의 각 법당별로 가까운 충혼탑을 찾아 순국영령을 천도하는 〈금강경〉 독송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서울법당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탑 앞에서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경 1독과 미륵존여래불 정진을 했다.

금강경독송회는 현충일 행사 외에 93년부터 매년 호국영령들을 위해 하계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한국 세무사불자회 성지순례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정은선)는 6일과 7일 양일간 남해 보리암, 하동 쌍계사, 구례 화엄사 성지순례법회를 개최해 회원과 회원가족 간 친목을 다졌다.

그동안 정기법회를 통해 다져온 회원들의 신심을 향상시키고, 불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이번 성지순례에는 40여 명의 세무사불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세무사불자회는 오는 7월 9일 봉은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불심홍법원 홍법바라밀제 봉행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사장 하도명화)은 6일 신창농원에서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봉행했다. 제11회 홍법대상 시상식과 청소년 지도자 지원금 전달을 함께 가진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정년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홍법대상은 이욱태, 김형중, 정선진 법사가 수상했고 대한불교청년회, 고등학생불교연합회 등에 1천8백만원이 전달됐다.



불교 제과인회 6돌 행사

대한불교제과인회(회장 정관수)는 3일 대전 용문사에서 창립 6주년 기념 전국모임을 개최했다.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국모임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출시했던 반야심경 케익의 홍보활동 결과보고와 향후 포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정항우씨(부산 정항우 케익하우스)가 우수회원 표창패를 받았다.

또 이 자리에서는 정관수 회장을 비롯 장명환 부회장(수원 강동베이커리), 김세중 총무(대전 빵굽는 마을)등 회장단과 협력업체 사장 정용채(대우공업사), 홍민용(우성냉동쇼케이스) 최병묵(제일식품산업)씨 등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각각 전달됐다.

직장법회를 일구는 불자

체육공단 무량회 이완배회장

8년동안 맨투맨 포교
12명 회원 150명으로

91년 12명의 불자를 모아 직장법회를 조직, 8년동안 맨투맨 방식으로 불교를 알리고 목탁치는 법, 염불하는 법, 초와 향을 켜는 법, 절을 하는 법 등을 가르쳐 1백50여 명의 직장동료를 직장 신행단체를 이끄는 주역으로 단련시킨 체육지도자가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 이완배 회장(53, 올림픽스포츠센터 관장, 동양무도연구가)이 그 주인공.

91년 10월 교계에서는 이색적으로 체육계 불자모임을 탄생시켜 눈길을 끌었던 이 회장은 정부기관 내 불자회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타종교인들의 견제와 시기, 심지어는 상부의 숱한 압력으로 공직생활의 위협을 받았지만 체육인답게 꿋꿋하게 이겨내 주저하며 나서지 못했던 불자 체육인들을 감동케 했다.

故 이기영박사의 애제자이기도 했던 이 회장은 무량회 창립이후 직장법회로서는 드물게 한 주도 빠짐없이 전국 각처의 스님과 법사를 초청해 법문과 강의를 듣는 법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또 경쟁사회에서 내가 우선일 수 밖에 없는 직장인 불자들에게 이타행을 이끌어내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무량회 회원들은 모두가 광림사 청각장애인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분기별로 올림픽공원 내 경비원과 청소원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회장은 '자자법회'를 도입해 회원들이 불교에 입문한 동기와 소감, 신행생활 이야기 등을 나누며 형제자매의 연(緣)을 맺을 수 있도록 다리역 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같은 이 회장의 노력은 지난해 있었던 공기업 구조조정에서 무량회 회원 전원이 건재하는 개가를 올려 타종교 직장동료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출근 전 올림픽회관 내 무량회 법당에 들러 삼배로 아침을 시작하는 이회장은 "올해는 한국전력반야회, 송파구청불자회 등 송파구 내에 있는 직장직능 신행단체들과 합동법회 및 연대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도필선 기자



전국어린이지도자 경주서 연수

조계종포교원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주최한 제2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5일과 6일 총 739명의 어린이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 온천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슬기로운 어린이, 희망찬 미래불교'를 주제로 여름불교학교 준비를 위해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제주지구의 그림자 인형극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각 사암 스님께 드립니다.



윤홍숙 (41세)

윤홍숙 보살은 출가의 뜻이 있어 집을 나가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가를 하겠다면 한집안에 출가자가 있다는 것은 크게 복된일이 오니 집안 모두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리 할 것은 정리하고 형제 모두에게 환영과 축복속에 출가를 바라오니 혹 스님들께서 윤홍숙 보살을 아시면 설득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홍숙 보살님의 출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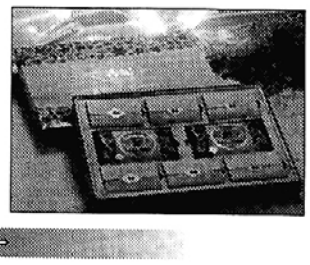
그러나 세간법이 불법이고 불법이 세간법인데 세간을 외면한 불법이란 있을 수 없으니 집에 와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모든 형제와 인연있는 분들의 축하 속의 출가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연락처 02-942-1127~8 임응순
02-3480-2184 / 02-956-4014 윤미숙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담담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렇게 들었다

나라사랑

화합 단결 善 북돋고 국토 잘 보호

호국보훈의 달 6월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마다 불교는 호국의 이념을 드높이며, 이땅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선봉에 서왔다. 임진왜란당시 의병을 이끌며 전장에 나섰던 사명대사에서부터 일제시절 강인한 정신과 불교사상으로 독립을 이끌었던 만해스님, 6·25전쟁때 파괴될뻔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에 이르기까지, 나라사랑의 정신이 없었다면 감히 해낼수 없었던 일들을 이뤄냈던 것이다. 또한 나라사랑의 일념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부처님 말씀을 통해 나라사랑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어떤 사람이 불손하게 왕명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해치거나 그 행동이 국법을 어겼다면, 먼저 좋은 말로써 설득하고 가르치라. 반역을 버리고 순종한다면, 왕은 반드시 자비로써 용서하고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방하지 마라. 이와같이 해도 뉘우침이 없다면 그때가서 나라밖으로 내보내라. 〈화엄경 입법계품〉

▨만일 어떤 왕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왕의 국토안에 많은 안락이 있게 되기를 원하거든 국토안에 사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쾌락을 성취하게 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밖의 모든 적들을 항복시켜 온 국토를 잘 보존하고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원하거든 중생들의 공포를 없애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재물을 널리 베풀어 주는 덕과 신명(身命)을 버리면서도 헛되지 않고, 대용맹을 갖추어 원적(怨敵)을 제어할 수 있는 3덕만 갖추어도 치국할 수 있다. 〈화엄경〉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 다섯가지 공포(恐怖)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임금이 순박해서 조심성이 있고, 과세기준이 평등해서 국왕에 의한 수탈의 공포가 없는 것, 군인은 충절이 있고 현명하여 욕심내지 않는 것을 신조로 하되 왕의 측근이 협박한다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관리가 그 직분을 지키고 은혜와 관용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어서 혹사로 고통받는다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각자 모두 도리를 지켜 겸양하므로 나라에 왜곡된 일이 없어 도적의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평화로와 교류가 잘 이루어지므로 침략의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즉 수탈 협박 혹사 도적 침략의 공포가 있으면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 〈화엄경〉

▨3종업륜(三種業輪)이란 군인들에게 전투의 기능을 잘 가르쳐 외침과 내란을 항복받아 인연들을 포육(抱育)하는 것이고, 집짓고 농사짓는 일을 국민들에게 잘 가르쳐 주식(住食)을 충족케 하는 것이며, 종업과 상업을 인민들에게 잘 가르쳐 여러가지 도구와 재물을 뜻대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승대집지장십륜경〉

▨5종대사(五種大事)는 만민을 영도함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되고 장군과 사병을 잘 양육하여 지위를 주고, 본업을 잘 닦아 복덕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충신들의 간언을 잘 받아들여 정직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탐욕과 즐거움을 절제하여 방일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법구성전경〉

▨만약 국왕과 백성들이 모두 일곱가지의 법을 잘 지킨다면 설령 천하의 군사가 모두 공격한다 하더라도 멸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반니원경〉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의 진리를 믿으면 국민들이 즐거움을 얻고, 위 아래가 화합하고 단결해서 선을 북돋고 덕을 쌓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할 것이니 일기까지도 순응케 할 수 있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사찰여름수련회 여는 까닭

제 언



경성스님
해인사 포교국장

단기간의 출가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슴에는 보리의 씨앗을 심고 성불의 열매를 기약하고자 하는 뜻깊은 사찰 여름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참가생을 받고 있다. 새로운 휴가모습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찰수련회에 동참하며 스님들의 무소유정신과 무욕의 삶을 익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수련법회를 개최하는 사찰마다의 특성이나 일정을 잘 살펴서 자신의 수행력이나 발원에 부합하는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의미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수련회 기간동안 수련생들은 산사에서 수행하는 스님들과 똑같은 일정으로 예불과 참선, 공양을 경험한다. 또한 큰 스님들의 특강도 경청하여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기까지 극기의 과정을, 짧은 기간이지만 스스로 느끼고 성불의 인연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소모적이고 경쟁적인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불교의 수행법을 스님들로부터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수련법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묵언과 차수(叉手)하는 마음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현대인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남의 말을 잘 귀담아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수련회는 이러한 잡담으로 인한 정신의 산란함을 막아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게하는 묵언과 차수, 하심을 강조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가늠하여 커다란 도약의 발판으로 여름을 보낸다면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선각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계종 새 청사 건립에 부쳐

제 언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

요즘 조계사에 드나들다 보면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새롭게 짓는다는 청사진을 볼 수 있다. 너무도 반가운 일이다. 구 건물을 헐고 새 청사를 짓는 것은 많은 불교도들이 바라는 바이다. 다음 몇가지를 건의하고 싶다.

첫째,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얼굴이며 시민포교의 1번지이다. 총무원 건물보다도 시민의 광장이 될 종합불교회관이 어쩌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시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목적이 중생제도에 있을진데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큰 불교회관 하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100~200년 밖에 안되는 기독교는 백주년기념관, 여전도회관, 2000년회관 등 매머드급 회관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불교는 시민을 위한 전문 세미나장 하나없이 매번 조계사 주변을 맴돌고 있고 또한 국제화 시대에 외국 귀빈들을 초청할 수 있는 불교전문 행사장 역시 없다. 불교의 크고 작은 신행단체가 공간이 없어 조계사 주변을 전전긍긍 맴돌고 있다. 총무원 청사와 별도로 불교회관을 현대에 맞게 고층으로 설계하여 청사진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조계사에 지상 주차장을 존속시켜서는 안된다. 조계사는 성지화해야 한다. 현재 주차장화되어 있는 조계사에 외국관광객들이 매일 참배하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조계사는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땅이 많이 확보되었다. 이번 총무원청사 설계계획에 지하주차장을 넓게 최대한 확보하여야 된다. 모든 차량은 지하로, 지상은 시민의 휴식처와 불교구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시로부터 도시재개발 허가를 받아 조계사를 중심으로 재개발해야 한다. 조계사가 땅을 많이 확보했지만 일부 옛 도시 계획도로가 그대로 나 있고 주변 개인주택들이 있어 향후 조계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계사가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 개발해야 불교의 1번지답게 불교타운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듯 넓은 땅이 확보되었으니 조계사와 총무원, 그리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합불교회관 등 2000년을 맞는 불교타운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목탁소리

도필선 〈취재1부 기자〉

민족의 영원한 등불로 빛나고 있는 만해 한용운 스님. 올해는 만해스님 탄생 120주년(8월29일)이자 열반 55주년(6월29일)인 뜻깊은 해이다. 이를 계기로 만해스님의 출가사찰이자 〈님의 침묵〉의 산실인 백담사가 8월 만해축전을 준비하고 있어 불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 조국광복과 독립을 이룩하자'는 만해스님의 뜻을 받들어 1920년 창립된 대한불교청년회는 기념문화행사는 커녕 추모법회조차 계획하고 있지 않아 실망을 주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만해스님의 정신을 청년불자들이 이어가자는 취지로 결성된 청년조직이다.

전국 16개 지구(직할 포함), 30여만명의 회원을 거느렸다는 '한국불교 최대 청년조직'임을 자랑하는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가 이달 29일이 만해스님 기일인데도 추모재 하나 없이 손놓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해백일장, 만해불교대학 등 무슨 일에나 '만해'라는 명칭을 붙여 개최하곤 했던 대불청이 열반기일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추모법회조차 없다니

물론 대불청이 만해스님의 기념일을 맞고서도 변변한 행사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데는 속사정이 나름대로 있긴 하다. 지난해 '회장 불신임'으로 불거져 나온 내부갈등과 조계종사태 때 종정교시봉행 성명서를 발표해 조직의 권위가 실추되는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으면서 중앙사무국의 업무가 몇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힘든 상황일수록 만해스님의 정신으로 하나로 뭉쳐야 하는게 '대불청의 자존심'이 아닐까. 조계종 사태가 끝난 지도 어느덧 반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 따라서 지금의 어려움을 '외환'으로 돌리기에는 논리가 빈약하다.

불교계 최대 청년조직 대불청이 만해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재가불교, 지성불교의 첨병이 되어줄 것을 교계는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다.

만해스님 탄신 120주년, 열반 55주년을 계기로 대불청이 빠른 시일내에 내부문제를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나 만해스님의 후예로 부끄럽지 않은 단체가 되길 바란다.

(psdo@buddhapia.com)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사찰도서실 만들면 불자 신심함양 도움

사찰도서실은 정보화시대에 불교교육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불교의 기초교리에서부터 전문적인 경전연구, 여기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양도서까지 두루 갖춘 사찰도서실은 그 자체가 불자들에게 신심을 북돋워 준다. 이제는 법당에서만 불법을 배운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법당을 비롯 도서실과 같은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런점에서 현대불교신문사가 펼치고 있는 '사찰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싶다.

불자라면 가정에 한두권 정도의 불서가 있을 것이다. 나도 그렇지만 이런 책들은 대부분 잠자고 있다.

이제부터 잠자는 불서를 깨워 사찰로 보내자. 한사찰에 1백명이 마음을 낸다면 작은 문고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이 동참한다면 작은 도서실도 꾸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불자들이 동참하면 각 사찰마다 도서실을 설립하는 것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울 것이다. 김장근〈강원도 원주시〉

사찰 소개책자 비치 관광객 포교 했으면

지난 일요일 우리 가족은 충남에 있는 ㅂ사에 갔다. 꽤 유명한 절이었는데 그 사찰의 연혁과 문화재 등을 소개하는 팜플렛이 있을까 해서 물어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해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요새는 사찰이나 문화재에 대한 답사책도 많이 나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찰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사찰안내 팜플렛이 꼭 비치돼 있었으면 한다. 단순히 소장돼 있는 문화재 소개만이 아니라 불교적인 의미, 예를 들면 사천왕상은 왜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문가에 서 있는지 등 사찰에 깃든 불교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소개서가 있었으면 포교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다. 사찰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경내에 간이 의자 같은 것을 놓아 쉴수 있게 해 주는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이명은〈서울 광진구 중곡동〉

법보시 '현대불교' 보며 지난날 과오 깊이 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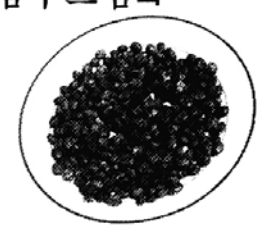
청송 제2 감호소에 있는 저희 불자들은 현대불교신문 오는 날을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있으며 그동안의 무지에서 벗어나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해 신앙심과 영적인 성숙함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그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부처님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으니 이곳 불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의 법보시로 불교사전도 잘 받았는데 불교사전은 불교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남궁경〈경북 청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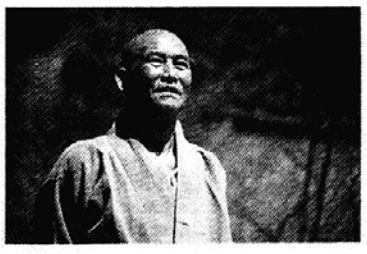
통일생각



김성우〈서울 종로구 팔판동〉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법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檀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궈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5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바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동문스님과 함께
새 천년을 여는 석림

모시는 글

귀의 삼보 하옵고,
각계 각분야에서 원력과 정진으로 석림의 이름을 빛내고 계시는 동문 스님들께 저희 후배들은 항상 깊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석림회는 하계수련회에서 「새 천년을 여는 석림」이란 주제로 동문 스님들을 모시고 화합의 마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 천년을 여는 즈음에서 석림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선배 스님들의 통찰어린 의견을 듣고 앞으로 석림의 나아갈 방향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저희 후배들의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제 : 새 천년을 여는 석림
⊙ 일 시 : 1999년 6월22일, 화요일(음력5월9일)
⊙ 시 간 : 오후 5시 저녁공양부터 오후8시까지
⊙ 장 소 : 화계사 법당
⊙ 연락처 : 백상원 02)902-2745
해광사 02)396-8066
담당자 017-204-9963

동국대학교 석림회
회장 재안 합장

철야 참선정진 법회

복잡한 현대생활의 피로를 벗고
자기 마음을
찾아 보지 않으시렵니까?

●일 시 : 매월 2번째 4번째
토요일 밤9시 - 일요일 05:00까지
●입회비 : 만원 (단 불교신자에 한합니다.)

참선에 관심있는
불자님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본사 화엄사 포교당
좋은절 선재정사
(전철3호선 구파발 삼송리역 농협대학 건너편)
전화 0344)962-6690 / 팩스 0344)967-1705

■ 월간 불교종합잡지 '불교저널' 7월말 창간

미래 지향 열린불교 제시 '기대'

진관스님 · 박경훈씨등 참여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의 불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새로운 이미지의 불교종합잡지가 탄생된다.

불교저널사(사장 진관스님)는 최근 서울 중구 묵정동 23-1 신현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월간 불교종합잡지인 〈불교저널〉을 7월20일경 창간 목표로 준비에 바쁘다.

지난해 5월호를 끝으로 폐간한 〈대중불교〉 이후 교계에 불교잡지의 영향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교리 시사 문화 신행 등을 아우르는 불교종합잡지의 발간은 척박한 불교계의 문화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높은 불교교양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국판 250쪽 분량으로 발행 예정인 이 잡지는 불교문학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해 기성, 신인을 불문한 원고와 건전한 비판정신을 담은 각종 문학작품과 문학 및 시사평론, 신행수기, 신행관련 기사, 미담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불자들의 좋은 원고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스승예찬,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미담과 올바른 신행을 계도하는 글을 비롯 신행수기, 사찰탐방기 등 재가불자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발언 등은 새로운 불교신행의 모범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저널〉은 창간호에 스님과 학계인사 100인에게 지난 한세기 동안 한국불교가 겪은 영광된 일과 부끄러운 일에 대해 설문을 받아 게재하고, 특집기사로 '미래의 과학은 불교의 적인가 동반자인가' 인간복제 해외불교 등 흥미있는 기사들을 준비하고 있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교저널〉 편집인 박경훈씨는 "이제까지 신행 학술 미술 문학 등 분야별 불교잡지는 많이 나왔지만 그 폭을 넓혀 21세기 과학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의 불교문화운동에 일익을 담당하는 새로운 불교종합 잡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진관스님이 발행인겸 사장을, 박경훈 전 법보신문 주필이 편집인을, 황석현 전 법보신문 편집국장이 편집위원을 맡았다. (02)2285-2421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죽산예술제' 참가 獨 미하일 베터

보이스 퍼포먼스 禪 메시지 전달



9일 밤 8시. 국내외 독특한 전위예술을 해마다 선보여온 제5회 '죽산국제 예술제'가 열쳐진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용설리 야외마당. 희미한 무대 조명아래 편안한 인상의 한 독일인이 탐블라(인도 전통 성악 반주악기)를 갖고 등장한다. 수행자적인 풍모가 느껴져 다른 예술가들과는 한눈에 구별이 되는 이 음악가는 선승(禪僧) 출신의 미하일 베터(57).

탐블라의 애절한 선율에 맞춰 오버톤(배음) 보이스퍼포먼스가 연주됐다. 한 목소리가 저음으로 지속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천상의 소리인양 순수한 음조의 멜로디가 동시에 흘러 나온다. 차분하고 청아한 가락은 속세의 찌든때를 다 날려 버릴 것 같이 마음속 깊숙히 파고 든다. 한국에서 초연된 이 연주를 감상한 관객들은 처음 접해 신기하기도 했지만 정신이 맑아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공연이 관객들에게 평화로움과 함께 선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게 된데에는 베터씨가 70년부터 82년까지 일본 토토리, 오바나시 등지에서 삭발을 하고 선승으로 수행정진 했던 이력이 크게 작용한 것. 베터씨는 사찰의 문, 불상, 탑, 다도(茶道) 등에서 예술적 영감을 많이 얻고 있다고 한다.

"오버톤은 우주의 깊은 의미를 재삼 깨닫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베터씨는 "수행 경험을 살려 참선과 함께 오버톤 음악으로 명상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 81호)의 설명을 듣고있는 관람객들.

미륵반가상등 유물 325점 유럽인들 '한국 혼'에 감탄

'문화재 유럽순회전' 독일 에센서 개막



◇전시포스터.

한국인의 불심과 예심이 담긴 '국보 및 국보급 문화재 유럽순회전'이 4일 독일 에센에서 개막됐다.

'한국인의 혼을 찾아서'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에센을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독일·스위스 등 2개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독일 루어재단 주최로 에센의 유서 깊은 정원건축물인 빌라뷔젤에서 오는 10월17일까지 열리는 에센 전시회에는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 제81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송림사오층전탑내유물 등 불교유물 154점과 유교·무속신앙 관련 유물 171점이 전시돼, 유럽인들에게 우리의 예술과 문화를 이해시키고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오프닝 행사에는 로만 헤어초크 독일 연방 현 대통령과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 당선자, 독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이협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이기주 주독일대사 등이 참석했다. 또 (사)민속놀이진흥회(단장 박병천)는 나비춤, 바라춤, 동래학춤 등 전통예술 공연을 식전 문화행사로 마련했다.

오증욱 기자(gibaoou@buddhapia.com)

베니스에 나툰 '플라스틱 불상'

노상균씨 비엔날레 출품

이탈리아 베니스에 한국의 부처님이 나투셨다. '모두에게 열린(APERTO over ALL)'을 주제로 10일 열린 '제48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에 노상균씨의 '불상-숭배자들을 위하여'가 전시된 것.

광선과 관객의 시선에 따라 작품 세계가 변하는 '시퀀 장르'를 개척해 온 노씨는 이번에도 투명한 플라스틱 재료인 '시퀀'을 사용, 전통 예술의 주제를 현대적 감수성으로 드러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영처럼 보여지는 이 불상은 삼라만상의 불협화음 속에서 화엄의 세계를 창조했다.

또 벽 전체에 반짝이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로 여러 겹의 동심원을 만든 설치미술 '전체를 위한 구멍'은 일루전(환상)과 같은 현상계를 상징하고 있다.

노씨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역사의 모든 것이 융화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2년마다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는 미국의 휘트니비엔날레와 브라질의 상파울로비엔날레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꼽힐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베니스비엔날레는 11월 7일까지 계속되며, 60개국에서 102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오증욱 기자



◇베니스비엔날레에 출품된 불상. 광선과 관객의 시선에 따라 변화하는 이 불상은 불협화음 속의 화엄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금동관음불 '귀환'

부여 전통예절원에 일본 삼보사 기증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일본에서 귀환했다.

구마모토(熊本)현의 삼보사가 충남 부여 백제요의 전통예절원(대표 이효천)에 기증, 6일 봉안식을 가진 이 불상은 좌대를 포함한 높이가 41㎝의 금동관음불.

구마모토 현립박물관에 따르면 이 불상은 고려시대의 미술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고려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불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구마모토현의 주민들도 삼보사 금동관음불을 '고려불'로 통칭하고 있다.

이 불상이 부여로 이운 된 것은 이효천 전 통예전원장과 삼보사 부주지 하라다센꼬(原田千光)스님이 수년동안 '다도'를 통해 쌓아온 각별한 인연 때문.

부여군청 문화재담당관은 "국내 전문학자들의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상의 가치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미륵사지석탑 해체보수 소위원회 발족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보수를 감독할 소위원회가 발족됐다. 문화재청은 4일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소위원회'(위원장 김동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해체보수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된 소위원회는 보수 및 수리, 석탑양식, 실측, 보존과학, 구조안전, 석조물분야 등 6개 분야의 관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김동현 위원장은 "소위원회는 앞으로 석탑의 해체보수와 관련된 실측 및 해체, 보존처리, 보수복원공사 등의 제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술적인 중요사항을 지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륵사지석탑은 노후화로 인해 탑의 구조안전 문제가 제기돼 정밀구조안전진단을 거친 끝에 지난해 해체보수하기로 결정됐다. 오증욱 기자

문화 단신

18일 봉원사 영산재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주지 인공)는 단오날인 18일 오전 9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지정기념 제11회 영산재를 시연한다.

영산재보존회(총재 박송암스님) 주최로 봉행되는 이날 법회에는 인간문화재 박송암·장벽응·이일응스님 등이 의식을 집전하고, 준보유자·전수 교육보조자·이수자와 신도등 1천여명이 동참한다.

영산재보존회는 이번 영산재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선가의 법구인 '간당'의 원형을 복원·공개할 예정이다. (02)392-3007

사찰음식 무료강좌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성인스님)는 22일 개원 7주년기념 전통사찰음식 무료공개강좌 및 시식회를 마련한다.

이번 강좌에서 성인스님은 '성인병 예방과 사찰음식' '다이어트와 사찰음식' '보양과 사찰음식'을 주제로 이론과 버섯과 두부를 이용한 요리 실기를 각각 지도한다. (02)355-5964

하계 교원 문화연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국의집'에서 '99 하계 교원을 위한 전통문화연수를 실시한다.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이번 연수는 '한국문화재의 이해' '기록문화유산' '매장문화재' '문화교류' '한국사상' '현장답사' 등 8개 분야 21개 과목이 개설된다.

문화정책 DB 개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연구보고서에 대한 풀텍스트(Full Text)DB 및 각종 문화정책관련정보DB를 개발, 인터넷을 통한 전자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자체 자료실소장 서지정보, 각 발간자료 목록, 정책연구보고서 초록 및 풀텍스트 DB 등을 제공한다. 각 자료는 홈페이지 접속후 보고서 초록 메뉴를 통해 검색하며,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http://www.kcpi.or.kr

기막히게 슬프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수안스님 그림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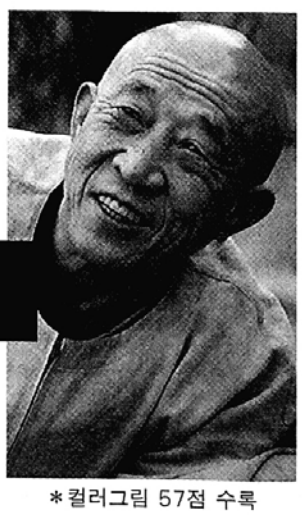
참좋다, 정말 좋구나

시끄럽다, 먹이나 갈아라!

개구쟁이 화가 수안스님의 재미있고 아름다운, 걸판진 에세이 한마당

물 속에도 부처가 있다며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아프리카 춤을 추고…

산에 살면서도 산이 그립다고 고백하는 스님. 스님이 '먹이나 갈라'고 외친 진정한 뜻은…



*컬러그림 57점 수록

부처님 앞에 공양드리는 순진한 마음으로 써낸 담백한 문체와 소박한 그림 중앙일보 경쾌한 구도, 해학적 요소가 어우러진다.한국일보 큰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경향신문 난해한 법문이나 불교 용어는 한마디도 쓰지 않고 풀어 놓은 이야기와 그의 삶 자체가 따뜻한 정감을 담은 사자후의 설법이다.문화일보 세상사에 대한 웅숭깊은 글 50여 편이 독자들을 감동시킨다.세계일보 숭복의 찢긴 틈새를 쪼는 새도 스님의 눈에는 모두가 부처. 아무런 구속도 없기에 그의 고백에도 거리낌이 없다.동아일보 선화의 독특한 경지를 개척해 온 저자가 스님으로서의 독특한 삶을 보여주는 개성있는 에세이.불교신문 세상을 보듬어 안는 스님의 진솔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사람과 사회 지혜의 보살인 문수의 눈, 혜안의 눈이란 뜻이다. 이 글들 하나하나에는 그런 눈길이 느껴진다.부산일보 들에 박힌 수도보다는 중생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는 작품세계를 통해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영남일보

즐거운 책읽기, 생각하는 책읽기 - 늘푸른소나무 / 전화 (02)2276-0290 / 팩스 (02)2276-0295

화제의 책

화엄의 길 생명의 길 | 도법스님 지음

화엄사상으로 문명의 방향 제시



생명위기 등 현대문명사회에 대한 진단과 비판, 그리고 대안으로 화엄의 세계관을 담고 있다. 도법 실상사 주지스님이 펴낸 〈화엄의 길 생명의 길〉은 연기론적 세계관을 가장 보편적으로 체계화 시킨 화엄사상이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생명의 길임을 설파하고 있다.

94년 불교개혁불사에 대한 글들 속에는 개혁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굳은 신념이 담겨져 있다. 저자는 한국불교의 정체성, 올바른 승가상 정립 등을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불교 승단의 문제를 푸는 바탕이며 원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불교가 나아갈 바를 걱정하며 지난 10여년동안 써온 글들을 모은 것이다. 〈선우도량 刊, 값 8천원〉

화제의 책

티베트 성자와 보낸 3일 | 심재룡 옮김

달라이라마의 지혜와 자비 강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사로운 일상의 고민에서부터 심오한 삶의 진리까지 아우르는 티베트의 성자 달라이라마가 전하는 지혜와 [illegible]가 담긴 〈티베트의 성자와 보낸 3일〉. 심재룡 [illegible] 철학과 교수가 옮긴 이 책은 1984년 영국 런던 캠던홀에서 3일간 5회에 걸쳐 이루어진 달라이 라마의 강연을 엮은 것이다. '불교가 보는 인생' '무명에 끌려 다니는 삶' '수행의 단계' '이타행의 가치' '지혜와 자비는 한 수레의 바퀴' 등 다섯 강연은 12연기에 근거를 두고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삶의 일상과 고민들이 담겨져 있다.

〈솔 刊, 값 1만원〉

화제의 책

…유기체 철학과 불교 | 고목스님 지음

유기체철학은 법신사상과 일치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의 기본사상은 이 세계 속의 모든 사물은 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존재라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북돋우고, 포섭하면서 약동하는 유동현상이다. 이러한 유기체 철학의 근본사상은 불교의 법신사상과 일치한다.

고목스님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불교를 비교 분석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불교〉를 내놓았다.

이 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수학자, 현대물리학자 그리고 고전철학에 정통한 현대 철학자로서 화이트헤드가 주장하는 철학이 불교의 공사상, 연기론, 업사상, 윤회론, 열반론과 잘 부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시간과공간사 刊, 값 1만5천원〉

"법구경에 나를 비쳐보자"

법정스님 '진리의 말씀' 새로펴내



부처님께서 시의 형태로 설한 가르침을 주제별로 엮은 〈법구경〉이 법정스님의 글로 번역돼 불자들곁에 다시 왔다.

〈진리의 말씀〉은 모두 423편의 불교 잠언시집. 주제에 따라 26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개는 독립된 시로 구성됐지만, 때로는 두편 또는 여러편의 시가 한데 묶여져 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한편 한편의 시는 일상에 파묻힌 우리들의 잠든 영혼을 깨운다.

저자는 "마음의 바다에 비춰보면서 차분히 일거간다면 이 책은 맑은 거울이 되어 현재 자기얼굴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책은 번뜩이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넌지시 깨우쳐 주고 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지난 84년 불일출판사에서 문고본으로 출간되었던 것을 다듬어 재간한 것이다. 〈나무를 심는사람들 刊, 값 6천원〉

시로 쓴 명산고찰 답사기

원로시인 박희진씨 '백사백경'



원로시인 박희진씨(69)가 전국의 2백여 명산고찰을 참배하고 그속에서 좋은 사찰, 운치있는 고찰일 수록 주변의 산세와 어김없이 절묘한 균형과 조화의 미가 녹아 있음을 발견하고 시어로 담아냈다.

〈백사백경〉은 박희진시인이 30여년등안 답사한 명산고찰의 아름다움을 시로 써온 것들을 모은 책이다. 그는 이 책을 "풍경화보다 아름다운 사찰시다"고 소개한다.

이 시집은 66년 '겨울 해인사운'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 쓴 '다시 가본 백담사'까지 총 247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시적 흥취 속에 녹여 전달하는 사찰과 명산, 그리고 사찰 특유의 분위기와 개성, 고승들의 일화가 입체적으로 담겨 있는 명산고찰 안내 시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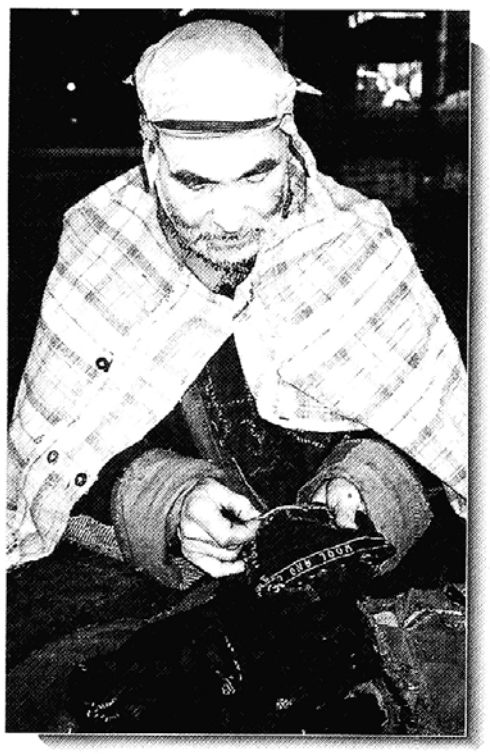
불교문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읽어 볼만하다.〈불광 刊, 7천5백원〉

무소유 실천 홀로 만행

전재성著 '거지성자'

독일 쾰른의 성자 페터와 함께한 7년

"그의 삶과 사상은 반성의 거울이었다"



◇ 현대문명의 그늘속에서 누더기 한벌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



◇전재성

전재성씨가 독일 쾰른대학 초기 유학시절 호숫가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를 만난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전재성씨는 "집없이, 돈없이, 여자없이 산다"는 말을 듣고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동서양의 많은 성자들의 이름과 말씀을 술술 토해내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수행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와의 만남은 7년간 계속된다. 그가 바로 신간 〈거지 성자〉의 주인공 페터 노이야르이다. 그는 독일인으로 죽음과 서구문명에 대한 회의로 방황하던 중 동양사상과 종교, 특히 불교에 심취하여 부처님의 수행방식인 아나가리카 (집없는 수행자)로 무소유의 삶을 도심속에서 실천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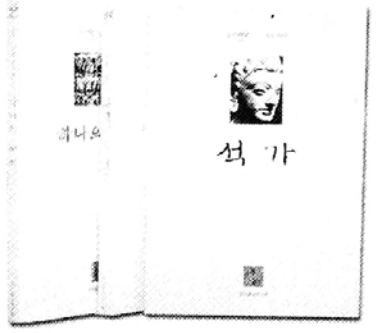
페터씨가 가진 것은 낡은 누더기와 작은 손수레, 보자기, 실과 바늘이 전부다. 잠자리는 숲속의 나무밑이고, 하루 한끼 먹는 공양은 탁발로 얻은 썩은 과일과 검은 빵, 버려진 야채뿐이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다. 동서양의 수많은 사상과 경전들을 꿰뚫고 있을뿐 아니라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터씨는 망명 온 이란인이나 외국인 유학생 등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자상한 카운슬러 역할을 해 주고 있다. 호숫가 벤치에서 아침식사를 할 때의 일이다. 그는 저자가 빵을 먹는 모습을 보며 '부처님은 음식을 완전히 씹어 물이 된 다음, 다시 입안에서 세바퀴 돌린 뒤에 삼켰네. 〈아유다 베다〉에 따르면 위장병을 치료할 때 망고 과일 한개를 여덟시간 꼭꼭 씹었네"라며 음식먹는 법을 설명한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부처님과 예수를 비롯 마호메트와 이슬람의 수피들, 공자와 노자, 장자의 가르침 등 동서양의 수많은 종교와 성현들이 등장한다. 심지어는 세익스피어의 아름다운 시들을 줄줄 암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항상 진실하고 온유하며 겸손하여 자신의 깨달음과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친구처럼 대한다. 그는 나무 하나 꺾지 않고 몸에 기생하는 벼룩조차 잡지 않을 만큼 철저한 생명존중을 실천하고 있다.

〈민중불교론〉을 대화 誌에 실어 학생운동의 배후로 지목되는 한편 광주민중항쟁 이후 경찰의 끊임없는 감시와 연행으로 지친 폐결핵 3기의 몸을 이끌고 탈출하듯 독일 유학길에 올랐던 전씨.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수행자를 만나 심신의 안온을 얻는다. 모든 욕망 단절을 요구하는 그는 저자에게 있어 깨달음의 길을 안내시하는 '쾰른의 성자'였고, 삶과 사상은 반성의 거울이었다. 페터씨는 최근 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인스턴트적인 명상에 대해 "욕망 제어가 전제되지 않는한 명상이란 기초없이 고층빌딩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완전한 가난보다 더 나은 부는 없다고 주장하는 그는 지금도 거지 모습으로 살고 있다.〈선재 刊,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석가 | 하나의 의미 | 사색인의 염주

이기영박사 전집 3권 출간

故 이기영박사의 모든 저술을 총망라한 '불연이기영전집' 34권 가운데 〈석가〉〈하나의 의미〉〈사색인의 염주〉 등 3권이 출간됐다.

이번에 출간된 세권은 모두 故 이기영박사가 생전에 출간한 것은 수정 보완한 것. 〈석가〉는 이박사가 처음으로 출간한 것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문화사와 사상적인 입장에서 서술했고 〈사색인의 염주〉 〈하나의 의미〉는 올바른 사색과 실천, 개인과 사회의 삶과 그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전집은 이 박사가 남긴 저서와 역서, 논문과 수필, 법문, 강의록 등이 총망라됐다. 지금까지 이박사의 삶을 조명한 〈내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 발표되지 않은 논설과 수필을 모은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과 〈불교개론〉이 출간됐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오는 11월 8일 3주기 추모법회에 맞춰 〈임제록 강의〉 〈불교와 사회〉를 발간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전집을 완간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연구원 刊〉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승려와 철학자	이 용 철	창작시대
3	타래	보 현	찬 섬
4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5	선문촬요	이 철 교	민 족 사
6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 타	민 족 사
7	화엄의 길 생명의 길	도 법	선우도량
8	기도	일 타	효 림
9	금강경강의	무 비	불 광
10	파란눈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	김 종 명	예문서원

구입문의:(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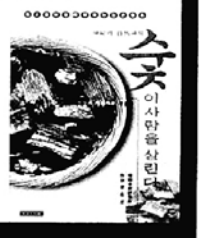
당신의 건강을 숯이 책임집니다!

전국에 숯의 돌풍을 몰고온 화제의 베스트 셀러, 드디어 3판 돌입!

집안에 놓아두기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숯 100배 활용법

2100년 전 무덤에 묻혔던 여성의 시체가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게 만들었던 숯의 비밀,
우리 조상들이 장을 담글 때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면 금줄에 숯을 사용했던 비밀을 여기에 밝힌다

숯은 수많은 구멍과 탄소성분을 갖고 있으며
음이온 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원적외선을 방사하며
수많은 미네랄을 갖고 있어 미네랄의 보물창고라고도 불린다.
방부효과 · 여과효과 · 음이온 발생 · 전자파 차단효과 · 원적외선 효과 등등



숯 이 사람을 살린다

한국목탄 연구소 소장 강 재 윤 지음 값 9,000원

▶ 숯의 일반적 효능
⊙수돗물도 미네랄 워터로 만든다. ⊙숯을 밥 속에 넣어 맛있는 밥을 짓는다. ⊙반풍에 넣어 쌀벌레 발생을 방지한다. ⊙과일, 야채의 농약성분 제거에 숯을 넣는다. ⊙튀김을 바삭바삭, 기름을 오래 쓰게 한다. ⊙탈취에도 숯을 넣어 보왕재 한다. ⊙공포의 전자파를 차단한다. ⊙독가스를 먹어치운다. ⊙유독한 실내공간을 숲속 같이 만든다. ⊙병실에 비치하면 생명에너지를 공급한다. ⊙목욕탕에 넣으면 알칼리 온천이 된다.…등등

▶숯의 치료적 효능
⊙잠을 자면서 건강해진다. ⊙위궤양, 식중독, 설사 장염, 맹장염, 변비, 고열, 간염, 황달, 담석증, 담낭염 등 ⊙숙변제거와 다이어트 효과 ⊙뱀, 벌, 개, 모기, 불개미에 쏘였을 때 ⊙풀이나 물에 데었을 때, 습진, 피부염, 골수염, 각종 염증 ⊙중이염 ⊙눈의 염증 ⊙기관지염, 폐렴, ⊙신장염, 신부전증 ⊙발모증에도 특효 ⊙기미 주근깨도 없애준다. ⊙하천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 ⊙해수, 담수, 양식장에도 숯이 필수… 등등

지성문화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 2동 1423 (대지 빌딩 205)
☎02-2233-5554 02-2233-8090 FAX. 02-2238-4240

사찰용 ~

숯 제품

▶참선용 숯방석 ▶차내, 실내용 숯방석
▶숯매트(숯요) ▶숯베개, 베개패드
▶해독용 숯과립 ▶물탱크 정화용 숯
▶법당, 법회장 실내 정화용 숯

효 능

정신이 맑아 기도정진이 빠른 방석
법당내의 냄새, 습기제거
공기정화(실내 숯 비치)

여름에 습기없이 가슬가슬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석(침구류)

한국목탄연구소
"숯이 사람을 살린다" 본 연구소 출간 책 증정
(일정가격 이상 구매시)
TEL. 02)925-0300,4096

'99 길상사 여름 선(禪) 수련법회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일반인들과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3박4일의 '한시적인 출가'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쌓인 몸과 마음의 피로를 도심 속의 산사인 길상사에서 '참나'를 찾으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차수	날 짜	대 상	동참금
제1차	7월17일(토)~20일(화)	일반인(20~60세)	5만5천원
제2차	7월24일(토)~27일(화)	중·고등학생	4만5천원
제3차	7월31일(토)~8월3일(화)	「맑고 향기롭게」회원	5만원
제4차	8월7일(토)~10일(화)	일반인(20~60세)	5만5천원

(수련교재, 기념사진, 수련T셔츠 포함)

⊙ 인원 : 각 60명(선착순)
⊙ 내용 : 108배,발우공양,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불자기본예법, 동중공부, 참선 실참실수, 선체조, 용맹정진, 1080배, 윤좌모임, 수계식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팩스 이용시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직업, 수련회 경험유무, 수련회 동참소견을 적어서 팩스로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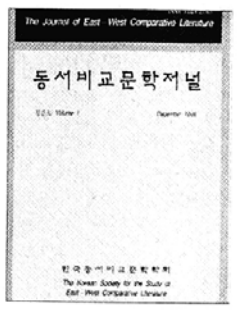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용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양간 찬상정리, 사무실보조, 뒷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하며 강의와 참선시간에는 같이 정진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길상사 수련원
136-020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 전화 02)3672-5945 / 팩스 02)3672-5947

▪ '동서비교문학저널' 창간호 발간

英美문학의 불교사상 연구



T.S. 엘리엇, 휘트먼, 에머슨, 토마스 하디 등 소설가 시인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영미문학에 나타난 불교와 동양사상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다.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회장 박영의)는 97년 7월 59명의 영문학자들이 모여 발족한 단체이다. 이 학회는 2년여 동안의 활동성과를 모아 최근 학회지 〈동서비교문학저널〉 창간호를 편찬해 냈다.

창간호에 실린 11편의 논문 가운데 "'자아의 노래': 견성을 위한 휘트먼의 화두"에서 김원중 교수(한림대)는 "휘트먼이 노래하는 '자아의 노래'에서 신비적인 경험 내지 참된 자아의 깨달음은 그 본질에 있어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과 유사하다. 시를 통해 자신이 깨친 것과 유사한 영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독자를 인도하려는 휘트먼의 모습에서 자신의 제자를 선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려는 선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자아의 노래'는 영적인 깨달음을 노래하는 휘트먼의 게송이고 휘트먼이 독자들의 깨달음을 위해 특별히 고안해낸 공안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경일 교수(경희대)는 '니르바나의 시학: 불교적-포스트모던적 영문학 읽기를 위한 방법서설'에서 "엘리엇이나 키츠 등과 같이 불교도를 가장하지 않고 불교적 지혜의 이해와 실천을 보여주는 담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니르바나 시학'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태호 교수(관동대)는 휘트먼에게 불교사상을 심어준 시인으로 유명한 에머슨을 고찰한 '미국시의 선시적 특성의 원류: 에머슨의 'Nature(자연)'의 선적해석'에서 "에머슨은 표면적으로는 서구 철학적 식견과 내용을 표출하지만, 내면에는 인도 철학적 사상과 불교 사상을 심도있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D.Salinger의 단편과 불교사상'에서 박영의 교수(충남대)는 J.D.Salinger의 단편들에 나타난 염불삼매, 사홍서원 등에 돌두하는 주인공들의 행위를 한층 깊은 불교철학의 세계로 이해하고 있다. 이외에도 'Immanent Will(내재의지)과 불교사상: Thomas Hardy의 동양적 자연관'(백원기 동국대 교수) 등 6편이 불교사상과 관련해 영문학을 조망한 논문들이어서 주목된다.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는 현재 오국근 교수(동국대), 전진농 교수(부산대), 한태호 교수, 박경일 교수 등 59명의 회원이 동참하고 있다. 학회는 앞으로 국내 학술회의 개최, 세계 각국의 유사학회와의 교류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진표율사 정치적 평가 무리"

김상현교수 '금산사의 역사와 인물' 학술회의서 주장

진표율사를 백제부흥운동 견훤 궁예 등과 연관시켜 정치사적으로 해석하던 기존 학계의 경향에 대해 진표의 미륵신앙을 그의 점찰교법과 관련지어 종교사적인 접근을 시도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으로 9일 중앙승가대에서 개최된 제2차 학술회의 '금산사의 역사와 인물'에서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진표의 불교사적 위치-미륵신앙을 중심으로'를 통해 "진표가 백제인이었다는 〈송고승전〉의 기록만으로 진표의 사상과 활동을 정치사회사적 관점으로 평가해온 기존 학계의 주장은 무리가 따른다"고 비판했다.

첫째 진표의 출가동기를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각오로 본 견해는 12살이었던 진표에겐 너무 조숙한 생각이었고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출가동기라고 지적했다.

둘째 '너는 이 몸을 버리고 대국왕의 몸을 받아 후에 도솔천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는 미륵보살의 수기를 이상국가의 건설을 꿈꾼 것으로 해석한 것과 신라 경덕왕이 진표를 궁으로 초청해 보살계를 받았다는 기록에 대해서 경덕왕과 진표가 밀착했다거나 경덕왕이 진표의 신앙운동을 회유하려 한 것이라는 견해는 종교적인 내용의 기록을 반대로 해석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 '금산사의 역사와 인물' 세미나에서 김상현 교수는 "한국불교사 연구에 있어서 종교현상을 종교현상 그대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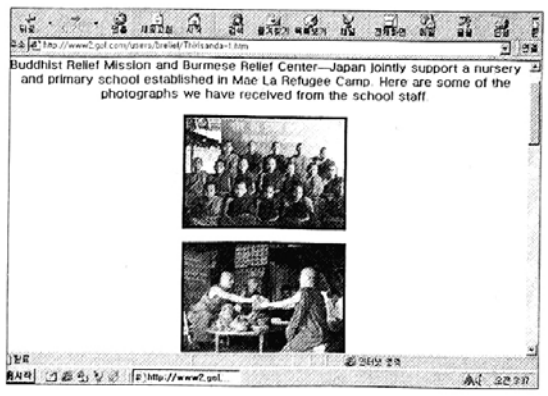
셋째 진표의 미륵신앙을 통해 백제미륵신앙의 성격을 규명해 보려는 시도나 신라말의 사회변혁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은 진표가 백제불교 전통의 부활이나 백제의 부흥을 꿈꾼 반신라적인 인물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이해이며,

넷째 진표의 점찰교법이 영심을 거쳐 심지에게 계승됐다는 기록을 '진표의 미륵신앙이 신라의 변방에서 그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마에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참회 수행했던 심지의 종교적 열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해석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제시했다.

다섯째 견훤이 3개월 동안 금산사에 유폐됐다는 기록에 대해 미륵신앙에 기반을 둔 반신라적인 이상국가의 건설이라는 진표의 소망을 견훤이 나름대로 실현했던 것이라는 해석과 궁예와 진표의 미륵신앙을 연결지으려는 시도, 신라 말 농민 봉기의 종교적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 주장 등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고려시대 유가종의 역사와 금산사-김상영 교수(승가대) △뇌묵당 처영의 생애와 승군 활동-박영기 강사(동국대) △조선후기 시승(詩僧)과 금산사-이진오 교수(부산대) △일제하 금산사의 사격(寺格)-김광식 연구실장(대각사상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빈민구제사업단

아시아지역 복지·장학사업등 전개

'불교개론' 소책자 보급 난민 포교

지역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난민과 빈민을 돕는 불교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바로 불교빈민구제사업단(Buddhist Relief Mission, 이하 BRM).

일본에 본부를 둔 BRM은 주로 아시아 지역 난민과 빈민을 위한 불교구제기관으로 널리 알려진 국제불교단체다.

88년 일본 나라현(縣) 카쉬하라시(市)에서 일본불교의 각 종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난민·빈민구제' 활동을 위해 설립한 이 단체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초석으로 사회복지운동·불교자선봉사운동을 전개해온 국제적인 불교 포교단체이기도 하다. 특히 BRM은 '무주상보시'를 활동의 기본으로 삼고 있어, 모든 구성원이 무급의 자원봉사 직원들로 조직·운영되는 특징도 있다.

BRM은 네팔 카투만두에 있는 노약자들을 위한 불교수용소, 인도 캘커다에 있는 관자촌 학교, 미얀마 상가병원(Sangha Hospoital), 방글라데시 차크마시(市)의 아동과 고아를 대상으로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다. 빈민과 난민이 모여 있는 곳에 어김없이 지부를 개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BRM은 태국과 방글라데시에 피신해 있는 미얀마 스님 50여명도 정기적으로 돕고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미얀마 상가병원에 기증하는 것은 물론 염불·명상등 일반불자들의 신행을 돕는 불상·염주·불경등과 오디오·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포교자료도 병원과 난민촌 그리고 교도소에 기증하고 있다.

또 BRM은 인도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 스님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불교지식인사절단(Young Buddhist Sutdent Literacy Mission)이라는 장학재단을 개설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더욱 늘리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과 미얀마 국경선 근처에 개원한 사찰 가운데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사찰의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하로크하니 몬 난민 캠프(Halockhani Mon Refugee Camp)에 사찰을 건립하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BRM의 재원은 독지가나 일반인들의 기부금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BRM은 기부자, 회원들에게 〈담마파다(Dhammapada, 법구경)〉라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 소식지는 아시아 분쟁지역인 '라오'에서 4천8백부, '크메르'에서 5천부, '몬'에서 3천부 등이 배포돼, 분쟁에 시달리는 현재 주민들의 마음도 달래주고 있다.

미얀마 난민들에게는 〈불교개론〉이라는 소책자를 보급해, 불교포교에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Strive On With Diligence)'과 '기부(Donations)'라는 비디오를 제작, 미국와 유럽에 아시아 지역의 분쟁과 고통받는 난민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2.gol.com/users/brelief/brm.HTM

학술단신

'종교연구' 등 학회지 발간

종교관련 학회인 원광대 한국종교사연구회(회장 류병덕)와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가 잇따라 학회지 〈한국종교사연구〉 제7집과 〈종교연구〉 제17집을 발간했다.

〈한국종교사연구〉에는 정순일 교수(원광대)의 '화엄성기의 사상적 연원', 이병욱 박사(고려대)의 '원효와 종밀의 회통사상에 대한 비교연구', 노권용 교수(원광대)의 '불신관에 관한 연구' 등 10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종교연구〉는 조선후기 강학(講學)의 부흥과 전개-김창숙 박사(동국대), 한국 불교의례의 절차와 의기구조-박선영 교수(동국대), 영지주의와 불교 그 상관성에 관한 비교종교학적 논의-이상훈 박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12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

19일 비판불교 2차 세미나

고려대장경연구소의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에 대한 2차 세미나가 19일 2시 동국대 90주년기념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2차 세미나에는 '비판불교의 중관사상 이해에 대한 검토'를 김성철 강사(승가대), 홍성기 강사(덕성여대)가 발표한다.

삼학원 하기학기 개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의 99년도 하계계절학기 교육을 24일부터 8월28일까지 10주에 걸쳐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불교원전연구과정 불교어학연수과정 기초학습과정의 3단계로 나눠 〈백문화상어록〉 〈진각국사어록〉 강독, 불교 근본교설의 이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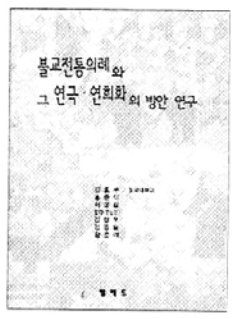
불교의례 연극 연희화 제안

김흥우교수 '불교전통의례와…' 펴내

"천도재나 49재는 의례만 가지고서는 그냥 의례로 끝난다. 성불도 놀이라든가 종이학 만들기 대회 그리고 유명인의 일대기를 극화하던가 망자의 일대기를 극화하여 경내 공간을 활용, 볼 수 있게 하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티벳의 어느 절에서는 '미나르파 공화기'란 작품 하나를 경내에서 공연하여 천도재를 지내러 온 사람이 모두 즐기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모재를 지낼 때 사명대사 서산대사 원효대사 무학대사 등의 일대기를 극화하여 보여주는 일도 '미나르파'와는 다르지만 우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강원도 낙산사의 경우 '조신의 꿈'을 천도재가 있을 때 보이는 것은 퍽 의미있는 일이다."

최근 발간된 〈불교전통의례와 그 연극 연희화의 방안 연구〉에서 김흥우 교수(동국대)는 천도재 49재 우란분재 등의 역사와 전통을 고찰해 전통을 살리면서 불교의례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연극 연희화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우란분재의 경우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와 고려 때에는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의례로서 행해졌지만 조선조 이후에는 배불정책에 의해 사찰에서는 암암리에 행해지고 민간에서는 소멸 변형되어 백중놀이로 변해왔다. 우란분재등 전통불교의례의 연극 연희화가 정착된다면 영산재 등과 같은 무형문화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과 함께 포교는 물론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한 세계적인 사찰로 부상할 기회"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홍윤식 교수(동국대)의 '제종불교전통의례의 기원 역사와 그 사상성', 서윤길 교수(동국대)의 '문헌상의 불교제종의례와 그 실행목적', 정각스님(동국대 강사)의 '제종불교 재의례의 설행절차와 방법', 김형우 문화재감정관(서울시)의 '불교의례의 법의 법구와 그 용법' 등이 실려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구름 끼었다고 태양 사라지나"

능가경 (上)

글쓴이



남수영
〈동국대 강사〉

경전 속의 禪 사상 22

달마대사 혜가에게 "이經따라 행하라"
번뇌 사라지면 보배로운 본성 드러나

선(禪)은 범어 디야나(dhyāna)의 음역인 선나(禪那)의 줄인 말로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사유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선은 본래 인도의 전통적 수행법인 요가의 불교적인 변용이며, 선정(禪定)·정(定)·정려(精慮) 등으로도 번역된다. 선은 근본불교와 부파불교에서도 중시되었고, 특히 대승에서는 6바라밀이나 10바라밀에 포함되어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 닦는 수행법으로서 중시되었다.

선은 중국 불교에서도 수행의 중심이 되었는데, 특히 선종(禪宗)의 초조인 보리달마(菩提達磨)는 대승 벽관(壁觀)을 전하여 선종이라는 하나의 종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선종에서 말하는 선의 궁극적 목적은 견성성불(見性成佛)이다. 그러면 견성이란 무엇일까? 보리달마는 〈이입사행론(理入四行論)〉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견성에 대한 그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릇 도(道)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여지만 결국은 둘이 된다. 첫째는 이입(理入)이고, 둘째는 행입(行入)이다. 이입이란 경전을 통하여 도(道)의 큰 줄기를 알고, 사람은 모두 범인(凡人)도 성인(聖人)도 평등하게 진실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다만 외적인 망상에 의해 덮혀지고 숨겨져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망상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가 의연히 벽관(壁觀)에 머물면 자타(自他)도 범성(凡聖)도 하나이다. 굳게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문자(文字)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진리와 일치하여 마음에 의식하는 것도 없고 조용히 안정되어 작위(作爲)가 없는 것을 이입(理入)이라고 한다."

여기서 달마가 말하는 이입이란 곧 견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달마는 그것을 '범인도 성인도 모두 평등하게 진실의 본성, 즉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벽관에 머물러 진리와 일치하여 마음에 의식하는 것도 없고 조용히 안정되어 작위가·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선종의 5조(祖) 홍인(弘忍, 602~675)이 지은 〈수심요론(修心要論)〉에서도 견성의 의미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문구가 발견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다시 태양에 비교한다면 구름이 괄방에서 뭉게뭉게 일어나서 천지가 캄캄해질 때와 같다. 태양이 어찌 사라져 버릴 것인가? 어찌 빛이 없어질 것인가? 빛은 원래 소멸하는 일이 없다. 다만 구름에 가려졌을 뿐이다. 사람들의 청정심(淸淨心)도 이와 같다. 반연하는 망념(妄念)이나 번뇌의 여러 견해라는 검은 구름에 덮혔을 뿐이다. 의연히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된다. 망념은 일어나지 않고 열반이라는 법의 태양(法日)은 자연히 일어난다."

홍인은 중생들의 마음 속에 있는 청정심이 번뇌의 구름에 가려 있지만,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면 곧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견성이란 번뇌에 덮혀 있으면서도 그 번뇌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본심, 즉 불성을 깨닫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선종의 '견성성불론'은 여래장(如來藏) 사상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여래장이란 불성의 다른 말로서, 중생의 번뇌 가운데 덮혀 있으면서도 번뇌에 더럽혀지지 않고 본래부터 청정하여 변함없는 깨달음의 본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여래장 사상에 따르면 이 여래장은 번뇌에 덮혀 있어서 그 본성이 감추어져 있지만, 번뇌가 제거되면 곧바로 그 보배로운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한다. 〈능가경〉은 바로 이와 같은 여래장 사상을 설하는 경전인데, 〈능가경〉은 제3 '집일체불법품(集一切佛法品)'에서 여래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래장은 자성(自性)이 청정(淸淨)하여 32상(相)을 갖추고서 일체 중생의 몸 속에 있건만,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진실치 못한 번뇌의 때로 더럽혀졌으며, 5음(陰)과 18계(界)와 6입(入)의 옷에 얽히고 쌓인 것이 되었기에 값진 보배가 때묻은 옷 속에 묻힌 것과 같다고 하시었습니다."

〈능가경〉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보리달마와 홍인의 언급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우리는 여기서 보리달마가 〈능가경〉을 중시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도선(道宣)의 〈속고승전〉에 실려 있는 선종의 2조 혜가(慧可, 487~593)의 전기에 따르면, 보리달마는 〈능가경〉을 혜가에게 전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보건대 다만 이 경이 있을 뿐, 너는 따라 행해서 스스로 제도함을 얻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과 〈능가경〉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초기의 선종은 능가종(楞伽宗)이라고까지 불리워 졌다고 한다.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③

무지에서 공까지 (하)

'돌아옴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뜻은 더 이상 사람 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고, 완전히 깨달아 일을 다 마쳤다는 말이다. 감각적 욕망과 미움은 '돌아옴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완전히 사라지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욕심과 성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미혹'에 빠져있는 것이며, 그것들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나'라는 예의 그 보석을 지키고자 이다지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욕심과 성냄이 일어나는 까닭이다. 그러나 명상을 계속해서 실천하면 마음은 점점 맑아지게 된다. 마침내는 깨닫게 된다. 깨달을 때 마음은 초월적 진실을 보게된다. 단 한 찰나 동안 볼 뿐이라도 그 경험은 실로 커다란 영향을 끼쳐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

누구든 목재나 벽돌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은 건물은 우리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한다. 명목상의 집일 뿐이다. 진정한 보금자리는 우리 내면의 평화이다. 외면의 물질적인 집은 보기에는 그럴 듯할 지 모르나 생각만큼 평화롭지 않다.

그곳에는 이런 걱정 저런 근심이 끊일 사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상적 일에 말려들지 않고
마음 평온하면 空心 알게돼

우리에게 그것은 눈앞의 한 사물에 불과하며, 따라서 서둘러 버려야만 하는 그런 것이다.

진정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그것을 '나' 혹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역시 세상에 속하는 또 하나의 다른 집일 뿐이다.

전 우주가 온통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우주에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마음이란 요소와 몸이라는 요소도 포함된다. 믿건 안 믿건 이 이합집산은 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체험해 보면 극명해진다. 망고의 맛을 아는 데는 망고를 직접 깨물어보는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체험해 보기 위해서 명상수행이 필요하다. 평범한 마음으로는 평범한 관념과 개념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망고의 맛, 즉 비범한 마음은 선정을 통해서만 생겨난다. 비범하다는 것은 마음이 제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또한 일상적인 일들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선정을 이룰 수 있게되면 마음은 이전에는 전연 몰랐던 경계를 체험하게 된다. 이윽고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고요해지고 평온함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공심(空心)의 개념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며, 마음 그 자체가 전적으로 무상(無常)한 것인 줄 알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비어 있다는 것은 대체 무엇이 비었다는 말인가? 이 비었다는 말은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흔히 오해를 범하게 된다. 여기서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실체가 비어 있다는 뜻이다.

그 어떤 것도 특별한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심지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한낱 '흐름'일 뿐이다. 아무런 실상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환상일 뿐이다. 비어 있음은 바로 그러한 상태인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 학 산 책

식물의 의식 (상)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
수맥찾아 뿌리 방향 바꾸듯
환경에 적응하며 신진대사



식물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우리 불교에서는 식물에게도 당연히 불성이 있다고 답한다. 그렇데 서양 과학에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물론 서양 과학에서는 불성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물도 우리와 같이 바깥 세계를 인식하고 이에 반응하며 일종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서양 과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과는 같지 않지만 식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주장했다.

20세기초 라울 프랑세(Raoul France)는 인간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식물도 자유롭고 쉽게, 그리고 우아하게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식물에게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놀라운 점들이 있다. 땅이 건조해지면, 식물의 뿌리는 수맥을 찾아 방향을 바꾼다. 어떤 식물은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땅까지도 뚫는다. 일단 비옥한 땅에 도착하면 뿌리는 성격이 달라져 땅을 파기에 적당하던 세포는 사라지고 토양 속의 무기염을 분해해서 그 원소들을 빨아들이는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 마치 외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동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물에게도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신진대사가 있다. 하루에 해바라기 한 그루가 잎사귀들을 통해 증발시키는 수분의 양은 사람 한 명이 흘리는 하루의 땀의 양과 맞먹는다. 한 그루의 자작나무가 무더운 날에 잎사귀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켜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빨아들이는 물의 양은 약 380리터나 된다.

또한 식물들은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같다. 식물들은 자신의 꿀을 훔치려 오는 개미들이 기어오르지 못할 만큼 줄기에 이슬이 충분히 맺혔을 때라야 꽃잎을 벌린다.

아카시아의 경우, 어떤 종류의 개미와 공생관계를 맺어 다른 벌레나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해주는 대가로 꿀을 제공해 준다. 난초과의 한 식물은 특정 종류의 수파리를 꾀기 위해 그 종류의 암파리 모습과 꼭 닮은 모양의 꽃잎을 피운다. 달맞이꽃은 밤나방과 밤나비들을 보다 잘 꾀기 위해 하얗게 피어나 황혼 무렵에 더욱 강렬한 향기를 풍긴다. 파리들만 우글거리는 곳에서 자라는 캐리온 백합은 고기 썩는 냄새를 피워 수분받이를 한다. 이와 반대로 벌레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바람에 의해 꽃가루받이를 하는 꽃들은 아름다움이나 향기가 독특한 형태를 띠지 않고 그저 수수한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다.

높지대에 사는 어떤 식물들은 질소 성분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살아 있는 벌레를 잡아먹음으로써 이를 보충한다. 이런 육식성 식물들은 500여 종이 넘는다고 한다. 곤충을 잡아먹는 끈끈이주걱은 잎사귀에 돌이나 금속조각을 올려놓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다윈에 의하면 이 끈끈이주걱이 자신의 먹이에 대해서는 0.00000083그램의 무게까지도 감지해 낸다.

고산 지대의 꽃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매화는 계절을 정확하게 알아내어 아직 남아 있는 눈더미들을 스스로 열을 내어 녹이면서 봄을 맞아 땅에서 뚫고 나와 싹을 틔운다. 피터 톰킨스와 크리스토퍼 버드는 〈식물의 정신세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식물에 의식이 있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소리없이 팔리는 책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
⋮
주머니 속 대장경

3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101 - 교리 입문편 2쪽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36 변형 242쪽 / 값 5500원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201 - 생활불교편 4쪽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조웰 스님 편역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502 - 문화 · 학술편 4쪽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102 - 교리 · 입문편 2쪽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501 - 문화 · 학술편 1쪽
불성이란 무엇인가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조선 시대 선사 41인의 선시 모음집
401 - 문학편 1쪽
허공의 딸꾹질
이중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 5000원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301 - 선(禪) 2쪽
참선요지(參禪要旨)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 값 5500원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303 - 선(禪) 2쪽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06쪽
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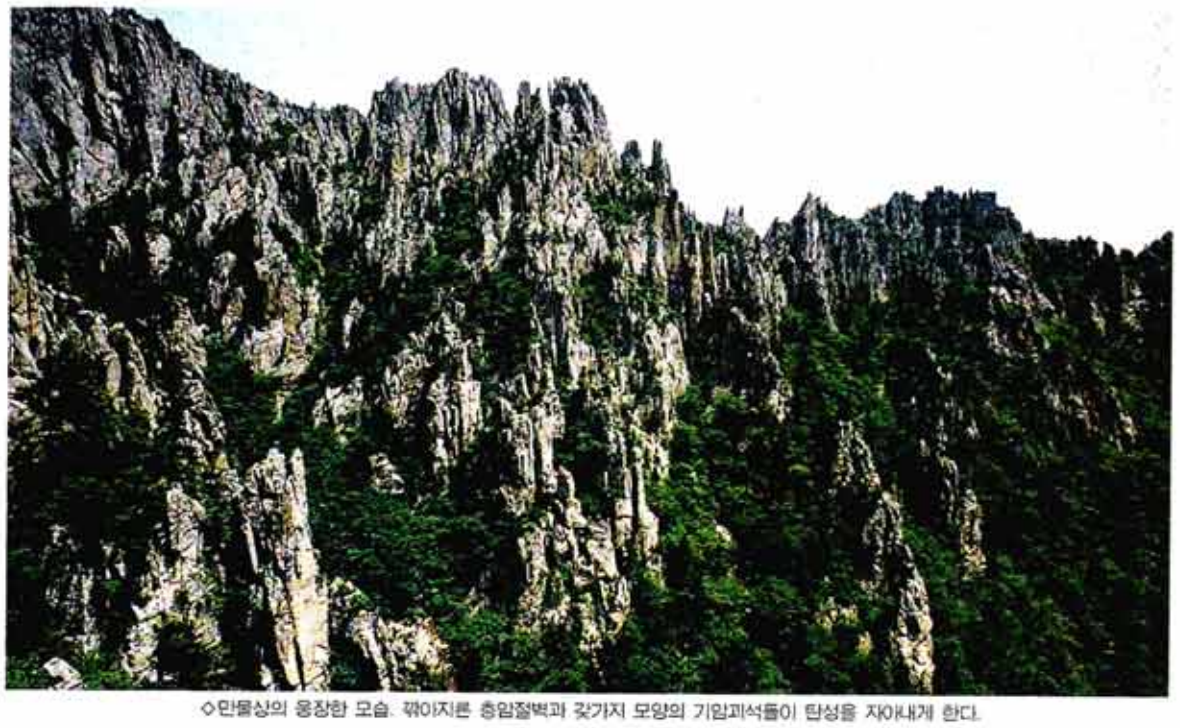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6월 2일~5일 1천1백여명의 불교도들이 금강산 순례에 나섰다. 옥류동 계곡을 지나 구룡폭포를 오르는 스님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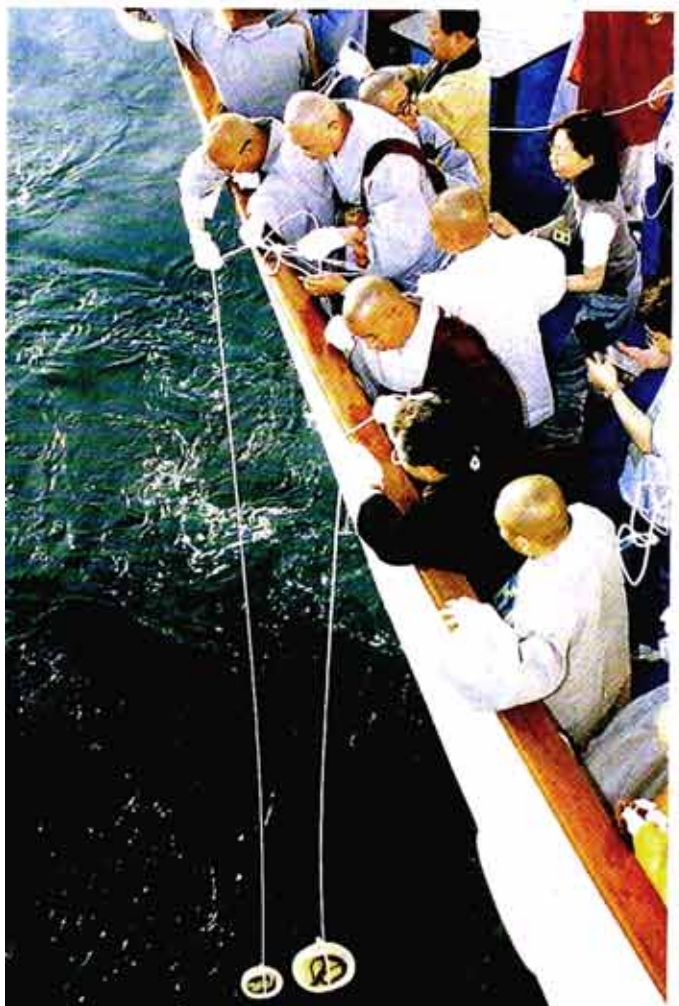


◇만물상의 웅장한 모습. 깎아지른 층암절벽과 갖가지 모양의 기암괴석들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법기보살이여! 이 민족 일깨우소서



◇현대금강호 선상에서 봉행된 통일기원대법회. 오른쪽의 석가모니 금동좌불상은 고산스님이 가을에 방북하면 북한에 전달될 계획이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방생법회. 각 종단 대표들이 현대금강호 선상에서 바다장어를 바구니에 담아 풀어주고 있다.

불교도 1천1백명 금강산 성지순례

혼적만 남은 신계사터서 순례단은 너나없이 합장 '석가모니불' 부르며 탑돌이 반세기만의 법회 '장엄'

1천1백의 불교도들이 금강산에 올랐다.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 아직은 먼 바다를 에둘아갈 수밖에 없었다. 현대금강호는 3일 오전 6시 북한의 장전항에 닻을 내렸다. 주체사상탑이 보이고 몇 척의 군함이 정박해 있다. 동포가 사는 곳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낯선 풍경으로 다가온다. 멀리 둥고깊 아이들이 출맞춰 걷고 있다. 순례단은 2개조로 나눠 구룡폭포 코스와 만물상 코스를 번갈아 올랐다.

금강산에서의 첫 번째 행사는 신계사터 법회. 신계사터는 구룡폭포 코스의 초입에 있다. 519년 신라 법흥왕 때 보운조사가 창건해 법등을 밝혀오다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폭격으로 전소됐다. 3층석탑과 만세루의 돌기둥이 남아 전쟁의 상처를 쓰다듬고 있다.

무너져 흔적만 남은 절터.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절터에 엎드려 3배를 올렸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순례단은 너나없이 두 손을 모았다. 석가모니불을 부르며 탑돌이가 시작되고,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법어, 발원문, 사홍서원으로 이어졌다. 기단석이 부서져 기울어진 3층석탑 앞에서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분단 이후 금강산에서 봉행된 첫 법회는 엄숙하고 장엄했다.

목탁을 친 화암스님(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은 숙연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어찌 첫 법회의 감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와 더불어 금강산 4대 명찰인 신계사를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불자는 "아버지께서 늘 오고 싶어하던 곳인데, 오늘 제가 대신 왔습니다. 향이라도 피웠으면 좋겠는데…"라며 음료수 하나를 놓고 절을 올려 주위 사람들의 눈을 적셨다.

신계사터에서 구룡폭포까지는 약 5km. 구룡폭포 구역은 외금강의 산악미와 함께 계곡미를 대표하는 곳이다. 세존봉과 옥녀봉의 기암괴석들과 구룡폭포 비봉폭포 옥류담 상팔담 등 폭포와 많은 소(沼) 등이 산굽이를 돌 때마다 나타난다.

깎아지른 절벽에서 힘찬 물줄기를 쏟아내는 구룡폭포. 폭포 길이 84m. 우뢰소리와 부서져 하얗게 흩어지는 물안개가 주위를 휘감는다.

구룡폭포 위 불쑥 튀어나온 바위를 자세히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다. 은은한 눈빛으로 폭포를 굽어보고 계신다. 오른쪽 절벽엔 1919년 해강 김규진의 글씨로 새긴 길이 20m, 폭 2.8m의 '彌勒峯'이 선명하다. 그대로 도량이다. 분단의 아픔을 폭포수로 씻어내고 통일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서원하는 순례객들의 합장배례가 이어졌다.

만물상 코스는 금강산의 산악미를 대표하는 구역이다. 층암절벽이 이어지고 기암괴석이 갖가지 모양을 보여준다. 내금강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지은 만상정과 장수바위를 지나면 삼선암과 귀면암이 순례객의 눈길을 모은다. 만상정에서 만물상을 한눈에 바라보는 천선대와 망양대까지는 3km 남짓한 거리지만 매우 가파르다.

망양대에 오르는 곳에 서있는 북한의 안내원에게 말을 건넸다. "남한 사람들이 금강산에 오는데, 북한 사람들도 설악산에 와야지요." "통일이 돼야지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외금강은 미인송 군락지로도 유명하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붉은 줄기가 우람하다. 수령 200~300년생으로 지름이 보통 2자쯤이다. 일제 때 송진을 뽑아가기 위해 파놓은 흉터가 여전하다.

구룡폭포, 만물상 코스 모두 4~5시간이 걸리는 곳이어서 젊은 사람일지라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순례객들은 부처님의 산에 오른다는 마음에 힘든 줄 모른다. 세수 72세인 광우스님(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은 "힘들다고 잠깐 앉았다가는 경치에 취해 오르지 못한다"며 쉬고 있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재촉했다.

순례단 가운데 최고령자인 김귀순보살(86, 부산 영도구)도 "산사의 법회는 다 풍어다닌 몸"이라며 앞장서 산을 올라 힘찬 박수를 받았다.

4일 저녁 8시 현대금강호가 서서히 남으로 방향을 틀었다. 갑판에 서서 장전항을 바라보던 순례객들이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인다. 장전항의 불빛이 하나 둘 늘어나더니 이내 점점 작아진다. 통행검사소 앞에 차렷자세로 서 있는 북한군인의 모습도 어둠에 묻힌다.

금강산=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신계사터의 만세루 돌기둥과 3층석탑. 불자들은 이곳이 통일발원 성지로 복원되길 기대하고 있다.

"법계 장엄한 금강산이여"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금강산 순례 게송



"효봉스님이 득도하신 데가 바로 이곳 신계사이니 내 뿌리도 여기에 있는 셈이지. 가을여진 석탑을 보니 너무 애처로워요. 남한에 있었으면 탑은 물론 옛모습을 찾을 수 있었을텐데…."

효봉스님의 손상화 보성스님(송광사 방장)은 신계사터에 도착하자마자 덥석 엎드려 3배를 올렸다. 다음은 스님의 게송이다.

금강산은 세계적인 명산이다. 중국사람들도 '寧生高麗國하여 一見 金剛山'이라는 애절한 원을 세웠다. 화엄경 보살주처품에는 법기보살께서 1만2천의 권속과 함께 반야경을 상주 설법하시는 도량이라 하였다. 신계사는 금산사 용화사(통영)와 함께 당래세(當來世)에 용화회상이 되어 삼회도인(三會度人)할 때 제일회가 되고 봉천총석으로 기둥을 삼아 미륵보전을 지어 상선인(上善人)을 제접할 도량이라는 설도 전해내려온다.

法界莊嚴金剛山이여 願一見之平生心이라
今日見聞別無事하니 萬壑松風千峰月이로다.
법계를 장엄한 금강산이여
평생 동안 한번 봤으면 그 마음 간절했네.
오늘에 보고 들으니 별 일이 없구나.
일만 골짜기에 솔바람 시원하고
일천 봉우리에 달이 솟아 밝게 비칠 따름일세.

금강산순례 소감

만2천 봉우리와 불교도가 어울어져 봉행한 장엄한 법회였다. 기암괴석과 맑은 물빛은 화두에 다름 아니었다. 멀리 바다를 돌아 성지를 찾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50년 단절의 시간을 넘어 이제는 남북의 불교를 잇는 불사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새삼 느꼈다.

◇성타스님(불국사 주지): 무엇보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신계사를 참배한 것이 기쁘다. 반세기의 긴 시간은 백도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불제자로서 50년만에 찾아 예를 올렸다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다. 어서 통일이 되기를 기원한다. 불제자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도 통일운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우스님(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이번 순례는 법기보살님을 모시고 1

◇송지화(불교 송지종 통리원장): 불교는 남북을 화합시킬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다. 분단된 가운데서도 남북 동포들의 생활과 문화의 동질성은 불교에 있다. 멀리 배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머지않아 육로로 오고가는 날이 올 것이다. 이번의 순례로 남북불교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결쳐지길 기대한다.

◇지성스님(태고종 총무부장):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신계사뿐만 아니라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등에서 남북의 불자들이 합동으로 법회가 봉행되기를 발원한다. 금강산뿐인가, 백두산 묘향산도 찾아 참배하기를 조석으로 기도하자.

◇장종술(경주 총원심인당 신도): 금강산의 절경을 보다니 꿈만 같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후손들에게 이대로 물려주어야 한다.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하기도 했지만, 금강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㉓

或曰何名平常心也
혹왈하명평삼심야
曰人人 具有一點靈明 湛若虛空
왈인인 구유일점영명 담약허공
徧一切處 對俗事 假名理性 對行識
변일체처 대속사 가명이성 대행식
權號眞心 無分毫分別 遇緣不昧
권호진심 무분호분별 우연불매
無一念取捨 觸物皆周 不逐萬境遷移
무일념취사 촉물개주 불축만경천이
設使隨流得妙 不離當處湛然
설사수유득묘 불이당처담연
覓卽知君不可見 乃眞心也
멱즉지군불가견 내진심야

물었다. "평상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대답했다. "사람마다 한 점의 신령하고 밝음을 갖추고 있는데 맑기는 허공 같아서 천지에 두루 미치고 있다.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방편으로 이성(理性)이라 부르고, 몸과 마음의 작용인 행식(行識)에 대해서는 방편으로 진심이라 부른다. 털끝만큼의 분별도 없으나 인연을 만나게 되면 우매함이 없으며, 한 생각도 버리고 취함이 없지만 항상 모든 사물과 두루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바깥 경계를 따라 이리저리 옮아가지 않으며, 설사 흐름을 따르더라도 신묘함을 얻어서 불변의 그 자리는 떠나지 않고 항상 고요하다. 그러나 이를 찾으려 한다면 그대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곧 진심이다."

기종종차별 소이명평상진심야

물었다. "평상하지 못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대답했다. "경계에는 성스러움과 범속(凡俗)한 것이 있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고,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이 있고, 이치와 현상계가 있고, 생기는 것과 사라짐이 있고,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이 있고,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있고,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고, 선함과 악함이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런 경계를 자세히 논하자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이제 열 가지만 대립된 경계를 예로 들었다. 이런 것을 일컬어 다 평상하지 못한 경계라고 한다. 마음은 이렇듯 평상하지 못한 경계를 따라 생겼다가 평상하지 못한 경계에서 사라진다. 평상하지 못한 경계의 마음이란 앞의 평상한 진심에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컬어 평상하지 못한 망심이라 한다. 진심이란 본래 평상하지 못한 경계를 따라가서 갖가지 차별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평상의 진심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或曰眞心平常 無諸異因 奈何佛說因
혹왈진심평상 무제이인 내하불설인
果善惡報應乎
과선악보응호
曰妄心逐種種境 不了種種境
왈망심축종종경 불요종종경
逐起種種心 佛說種種因果法
수기종종심 불설종종인과법
治伏種種妄心 須立因果也
치복종종망심 수입인과야
若此眞心 不逐 種種境
약차진심 불축 종종경
由是不起種種心
유시불기종종심
佛卽不說種種法 何有因果也
불즉불설종종법 하유인과야

평상심은 털끝의 분별도 없어 만물 접촉해도 항상 고요하다

대답했다. "망심은 갖가지의 경계를 따라다니다가 그 경계를 잘알지 못해 마침내 갖가지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부처님은 갖가지의 인과법을 설해서 갖가지의 망심을 다스리려 했기 때문에 인과를 세운 것이다. 만약 이 진심이 갖가지의 경계를 따르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갖가지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처님도 갖가지의 법을 설하지 않았을 것이니 거기에 무슨 인과가 있겠는가."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반성은 善의 길이고

혜경스님 〈봉원사 원로〉



악 · 1919년 당진서 출생
· 40년 봉원사에서 만성스님을 은사로 완담스님을 계사로 득도
력 · 41년 봉원사에서 월하스님 문하에서 범패 사사
· 65년조계종 경기교구 총무국장
· 78~80년 봉원사 제 27세 주지
· 83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 86년 태고종 감찰원 감찰부장
· 88년 영산재보존회 이수자
· 91~93년 봉원사 제 33세 주지
· 92년 영산재보존회 회장
· 94~97년 봉원사 제 34세 주지
· 현재 봉원사 운수각 주석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은 마음의 여러 갈래 길이니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그 마음이 뻗어 나가는 길은 셀 수 없이 많은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의 근원은 바로 한가지 마음에 있는 것이며, 어느 길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가짐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속의 옹달샘 물은 하나의 근원이지만, 뱀이 먹으면 독으로 변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는 얘기도 바로 그러한 연유입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치는 일마다 자신을 돕는 약석으로 삼고, 남을 탓하기 좋아하는 자는 생각하는 것마다 스스로를 해치는 창칼로 만듭니다. 반성하는 한가지 길은 선(善)으로 나아가지만, 탓하는 한 가지 길은 악(惡)의 근원을 이루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뽀리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화 속에 깊이 숨쉬고 있는 불교정신과 신심에서 우러나는 그 체취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절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참선 염불 주력 간경 등 모든 수행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교전통의식을 간과한다거나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려는 의지나 의식들이 사뭇 부족해 보입니다. 재가자들은 의례 스님들이 해주겠지 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고, 정작 스님들은 불교전통을 폄하하거나 소홀히 여기니 말입니다. 내 뜻은 그래요. 불교전통의식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한국불교의 뿌리를 아는 것이고, 종교적 자긍심을 확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불교의식을 계승하는 상징도량인 이곳 봉원사를 떠나 산 적이 없습니다. 출가하기 이전부터 출가의 원을 품고 절집안을 기웃거려 본 것도 봉원사였고, 출가를 단행한 곳도 봉원사입니다. 그리고 봉원사에서 중물도 들고 불교의식도 빠짐없이 착실하게 익혔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날인 8.15 해방되던 그날도 봉원사서 맞았어요. 말하자면 금생을 봉원사서 보내는 것입니다.

봉원사는 어느 절보다 해방을 뜻깊게 맞았어요. 70평에 46칸 규모의 웅장 화려한 해방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불사금이 어디 들어옵니까. 당시, 말하자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를 했는데 그 대금만도 지금 돈으로 13억원정도 됩니다. 그래 해방되기가 무섭게 탁발을 나갔습니다. 나도 탁발단에 끼었는데 그때까지 자신있게 고사염불을 잘하지 못해 뒤따라 다니면서 정성스레 목탁을 쳤습니다. 그런데 탁발이 어찌나 힘이 드는지 염불하시던 스님들이 목이 아파 도저히 염불할 수 없게 되자 부족하나마 대신 염불을 하게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이 하루종일 염불하고 걸어다녀도 어디 한군데 아픈 구석이 없어요. 하루 자고 나면 다시 힘이 솟고 힘차게 목청껏 염불해주니 자연히 공양올리겠다는 가구 수도 줄을 잇게되는 겁니다. 결국 6개월만에 탁발해 모은 것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아픈 것이 그 해방기념관은 5년도 안돼 6.25 난리통에 불타버렸습니다.

다 인연따라 가는 일일진대, 어쨌든 나는 공부하고는 인연이 적은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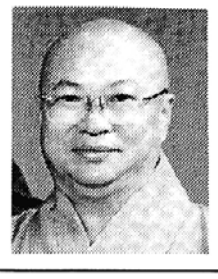
마을살 때 우리 집은 백석군이었습니다. 대지주로 워낙 부지런하셨던 선친덕에 우리는 춘고개를 넘길때도 쌀밥을 먹었거든요. 넉넉한 가정형편으로 맏형은 공부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맏형의 글읽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보일 수가 없었기에 의례 나도 글을 읽게되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친께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둘째 형과 나는 가르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선친께서는 돈들이고 정성을 들여 가르쳤던 맏아들에게 심한 실망을 하신 것입니다. 큰형이 좋지 않은 잡기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워낙 기대가 컸던 선친께서는 자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신 것입니다. 천자문만 떼고 둘째형도 나도 노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공부 배우고 싶다고 해도 선친은 꿈쩍도 않으셨습니다.

15살이 되고 머리가 굵어지자 아무래도 공부하러 서울로 가야겠습니다. 그래 몰래 집을 나와 막연하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선 취직을 해서 어떻게 공부하나를 살폈습니다. 그때 내 살던 집 옆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봉원사를 다니는 신도였나봐요. 절에 같이 가자고도 하시고 글 배우려면 절에가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를 따라 봉원사를 갔고, 경내며 스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출가를 결심하고는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없이 봉원사로 출가를 결행했습니다.

만성스님 시자로 행자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워낙 큰 절이라 대소사 일이 끊이질않아 참으로 호된 행자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장 기다렸고 눈밝혔던 시간은 강사스님이 가르쳤던 공부시간입니다. 아침 8시부터 딱 30분만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곳 내가 묵고있는 운수각 이방이 강사스님 방이고 저 옆방이 공부방입니다. 10여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해방이되자 강사스님은 훌쩍 떠나가시고 그후로는 경학을 따로 집중적으로 배우는 기회는 없었지요.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품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큰스님 수행한담

남 탓함은 惡의 길"



◇해방후 김구선생이 봉원사를 방문, 대중스님들과 해방기념관앞에서 기념촬영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경월·법암스님·김구선생·기월(주지)스님. 앞에서 셋째줄 왼쪽에서 두 번째 스님이 혜경스님, 뒤에서 두 번째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인간문화재 송암스님.

지극한 독경과 염불
자기구원의 수행이니
한시간이라도 매일 정진
바른생각-맑은 지혜 내세요

결국 그토록 공부하고 싶어했음에도 부유했던 속가 선친께서도 가르치려는 생각을 안하셨고, 절에 가면 공부할 수있겠지 하고 출가했더니 막상 봉원사 안에서도 큰 집인 만성스님을 시봉했음에도 상황이 공부를 할수없게 되더라구요. 대신 월하스님 운파스님 등 당대 명인스님들께 염불 의식 작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사실 범패가 귀로는 들려도 소리로는 잘 안돼요. 참으로 어렵게 배웠습니다.

나는 독경과 염불 수행을 주로 해 왔고 또한 신도들에게 이 공부를 많이 권해왔습니다.

팔관사천 부처님 가르침을 살피면, 수행의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근기에 따라 해야만 성취가 빨리 이루어 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구경성불에 있어서는 다같이 하나로 회향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빠르고 늦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투철한 근기는 오직 한 마음으로 염불 기도 하여 깨달음을 성취시켜 가는 것입니다.

수행의 기본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탐, 진, 치의 삼독과 번뇌망상에 둘러싸여 의식의 파도가 끊일 사이가 없어 언제나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 날 기약이 없습니다. 본래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 깨달아 갈 때 경을 읽고 그 뜻을 따라 수행하게 됩니다.

경을 인연으로 해서 깨달은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육조 혜능스님도 시장에 나무를 팔러가다가 〈금강경〉읽는 소리에 깨우쳤다고 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한 마디에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경을 존중하고 독경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됩니다.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주술적인 것을 금하셨지만, 마음닦는 길의 하나로 염불하는 공덕은 한량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깨달음을 염원하며 수행해 갈 때 염불의 공덕이 나타납니다. 독경과 염불은 현세와 과거세와 미래세의 어려움과 재액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염불의 공덕은 진실 그 자체 속에 지니고 있는 힘에 의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실한 것이 있음으로 진실한 것을 알고, 진실에 의해 진실을 말하며 그로 인해 세상의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지극히 염불을 할 때 공덕이 성취됩니다.

사람은 호흡만 떨어지면 죽게되는 것이고 죽으면 곧 내생인 것입니다. 재가자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쿠척 바쁘고 고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신통일을 해서 염불하고 독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조금씩 매일 염불과 독경을 하세요. 이것이 계속되면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집중되고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쾌함을 얻게됩니다.

비록 견성성불을 돗할지라도 관찰력과 관단력이 좋아지고 바른생각으로 돌아서고 맑은 지혜가 나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 됩니다.

나는 절 소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자구 주지를 해야한다는 주위 권유로 주지자리에 세번을 앉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봉원사가 어려움에 처할 때예요. 뭔가 내게 복을 지으라는 부처님 가피인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것이 대웅전이 원인 모를 화재로 불탄 직후예요. 대중공사를 벌여 나보고 주지를 하라는 겁니다. 누가해도 질 짐이라면 내가 져야겠다 싶었지요. 오직 대웅전을 다시 짓는 불사가 화급했거든요. 주지수락 인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대웅전 불탄 것이 사회법적으로는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대중 스님네들의 정성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의 시주에 의지할 것도 아니고 우리 50명 가까운 대중스님네들이 모두 동참해서 다시 정성을 기울이고 기도해서 새로 짓자고 말입니다. 내가 먼저 그동안 모아온 약값 기도공양비 등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전 대중스님네들이 한결같이 따라주었고 오히려 앞장서는 것입니다. 마침내 19평이던 작은 대웅전이 42평의 큰 대웅전으로 거듭 세워진 것입니다.

80년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물질을 얻는 대신 마음의 깨끗함과 인내심 등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심이 희박해진 것 같아요. 신도들도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스님네들도 그전만 같지 않아요. 출가수행자로서의 생활은 탄탄하고 굳건한 신심위에서 이뤄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마음가짐이 허약해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순리에 따르는 마음가짐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인류 전체에 고통과 좌절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아픔과 허무감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또한 이시대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통을 삭이며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요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자세와 방식입니다. 죽는다고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고통은 우리가 피하고자 한다고 해서 비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이 약이라는 알량한 처방으로 혹은 될대로 되라는 식의 체념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방정토는 이미 어디에 있어 우리를 기다리는 완성된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속에서 만들어 가는 세계입니다. 온갖 인내와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차곡차곡 일구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토는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고정된 세계라기 보다는 추구해가는 과정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다면 내가 거기서 깨닫고 닦아 가야할 어떤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크기만큼 스스로가 무엇을 그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정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기쁨은 언제나 고통을 식량으로 삼는 것입니다.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작은 기쁨이 있고 큰 고통을 이겨내면 큰 기쁨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토의 실현이라는 것이 이런 저런 공덕을 쌓아 이 편에서 저 편으로 훌쩍 뛰어넘어 극락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욕망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단련하고 일체중생을 교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중생을 떠나 부처가 따로 없고 예토를 떠나 정토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도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가 보살이라고 확신하는 중생이 부처의 땅을 일구는 곳은 어느 곳이나 정토세계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이치를 다 담고 있는 부처님 경전이나 진실을 드러내는 염불을 부지런히 행해서 공덕을 닦아 마침내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몸을 받기 어려우니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약할 수 있을지 까마득하기만 한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고통 이겨낼줄 알아야 기쁨 맛봅니다
정토는 생활속에 만들어가는 부처님 세계

나의 수행일기



박동춘 〈과천서당 원장〉

매일 새벽참선후 '화엄촬요' 독송
"부처님 은혜 갚자" 이웃포교 노력

새벽은 조용하고 신선하다. 청계산으로부터 날아 온 목탁새의 맑은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산사에 있는 것처럼 엄숙하고 경건하다. 그래서 나는 새벽이면 항상 참선을 한다. 그후엔 어김없이 손에 잡히는 것이 〈화엄촬요〉다. 이 책은 부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올바른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 책은 스승이며 기쁨이다.

불자 대부분이 깊이 있는 공부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사찰을 찾아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행생활로 전부라고 여기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나의 신행생활을 180도 변화시킨 계기가 있었다. 몇 년전 무더운 여름날 광주 백화암을 찾았을 때였다. 책을 읽고 있던 노스님이 돋보기 안경 너머로 나를 올려다 보며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스님은 내게 불교에 대해 요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님은 나를 위해 〈화엄경〉을 요취하여 〈화엄촬요〉라는 책을 직접 만들어 주셨다. 불자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한자 한자 직접 쓴 책을 건네주었다. 이밖에도 스님은 원시불교에서부터 종교학, 금강경 까지도 가르쳐 주셨다. 사실 나는 암자를 찾아 갈 때까지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했다. 현시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불을 찾아 날아드는 불나비처럼 절만 찾아 다녔던 것이다. 그 때 나는 불교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것 같다. 때문에 이제는 노스님께서 낡은 원고지에 빼곡히 육필로 쓰신 이 책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며, 몸이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부터 진정한 불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된 셈이다. 그리고 하루일과 자체가 신행생활이다 여기고 생활하기 시작했다. 선방 수좌들이 화두를 놓지 않는 것처럼 생활속에서 부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정진했다. 이 방편으로 경전을 외우고, 참선을 하고, 차를 마시며 나름대로의 신행생활을 했다. 때론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산사를 자주 찾는다. 이러한 산행은 자연과 함께 동화되는 법을 배웠다. 자연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보고이다.

말은 언제나 뜻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말에는 공허함과 장황함이 있다. 그래서 참선을 자주 한다. 고요한 참선은 무수한 나를 만날 수 있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욕망에 춤추는 나, 모든 내가 지나간 자리에 고요가 있다.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외쳤다는 소리를 듣고 황당하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날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내가 얼마나 우매한 정보에 현혹되었나를 알았다.

또 차를 즐겨 마신다. 차를 만드는 일은 물과 나를 알게 하는 좋은 수신의 방법이다. 한점 사심이 없다면 변화하는 참나를 느낄 수 있다. 마음이 혼탁할 때 차를 대하면 흐트러진 마음을 한잔의 차에 녹일 수 있다. 물 끓는 소리에서 자연의 움직임을 본다. 작은 일렁임에서 점점 커져 크디큰 출렁임으로 변화하는 것에서 우주의 생기를 느낄 수 있다. 수행은 나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수행은 공허하다. 이제는 내게 있어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지고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다. 내가 불법을 만나 새롭게 태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러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포교현장에 뛰어들 형편은 아니다. 하지만 주변 생활속에서 불법을 전하는 일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불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불자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가족불교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내 조건속에서 가장 적당한 포교의 한 방편이다. 이제는 나혼자만의 불교가 아닌 실천으로 모두가 함께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타 큰스님의 신간

불자의 기본 예절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I. 불자의 마음가짐과 언행
II. 합장법과 예배법
III. 사찰에서의 예절
IV. 법문 듣는 법
V. 절집안의 생활예절

4×6 판 / 3,500원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생활속의 기도법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 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전하시는 큰스님의 법어집.

· 기도(祈禱)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 시작하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강설집.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 범망경보살계 1 - 5 — 신국판 / 각권 6,000원
큰스님의 보살계 법문.

· 법공양문 —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감로법문 —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6

새 천년을 앞두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성대한 밀레니엄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축전 속에서도 지구촌 곳곳에서 피를 흘리는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장밋빛'을 기대하는 인류에게 어쩌면 '핏빛'의 새 천년이 열릴지도 모른다.

새 천년을 암울하게 내다보는 사람들은 "냉전이 끝나면 평화가 오리라던 일반적인 예상이 빗나갔음을 상기해보라"고 말한다. 인종·민족분쟁에 종교분쟁까지 가세하면서 지구는 오히려 '힘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

이런 인류에게 부처님은 경고한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대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민족·종교분쟁

52개국 내전…몸살 앓는 지구촌

종교연합단체의 활동

IARA·WCRP등 60여곳
평화·종교화합 한목소리

종교연합단체는 비단 종교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종교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교간의 갈등의 벽을 허물고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종교연합단체는 현재 10여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1900년 창립된 국제종교자유연맹(IARA)은 소수그룹들의 신앙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해 왔다. 종교간의 공식적 차원보다는 종교인 개인끼리의 만남을 통해 종교간의 화합은 물론 환경, 경제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30여개의 크고 작은 자선사업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1970년 창립된 세계종교평화회의(WCRP)는 지금까지 세계 각국을 돌며 다섯차례의 회의를 열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존을 위협하는 사안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벌이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켜 왔다.

1988년 창설된 세계종교회의(Parliament of World's Religious)는 지난 93년 '지구윤리(global ethics)선언'을 통해 세계 평화와 종교갈등을 포함한 인류의 당면문제들에 대해 '사회의 영향력 있는 조직(개별 정부 및 각 단체)들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계종교회의(WCP) 역시 93년 창설이래 매년 세차례 〈World Faiths Encounter〉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종교인들간의 대화와 화합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60년 설립된 '이해의 사원(ToU)'이나 1990년 창설된 세계평화종교연합(IRFWP) 등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각 종교인들의 논의를 통해 서로가 하나의 공동운명체임을 상기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엔 산하 종교관련 활동기구에는 미국불교연합, 아프리카-아메리카 이슬람 기구, 동유럽기독교연맹, 국제종교자유연합 등 세계 각 종교단체가 구성한 NGO나 종교연합 NGO 등 5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종교의 국제연합과 같은 기구를 표방하고 2000년 6월 발족예정인 종교연합창설선도기구(URI)도 발족되는대로 세계문제에 대한 공동 노력을 모색하고 종교간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예정이다.

민족·종족분쟁은 '피'가 다른 민족들이 한 국가라는 정치적 단위로 묶여진 상황에서 숫적·정치적 열위에 놓인 소수민족이 분리독립을 시도하는 데서 파생된다. 같이 살면서도 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롯되는 민족분쟁은 다른 국가끼리의 영토 전쟁이나 같은 민족끼리의 정권다툼 분쟁보다 하나같이 더 잔인하며,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21세기를 눈앞에 둔 세계사에 큰 짐을 지우고 있다.

"21세기 종교대결 시대" 예측

식민지 해방·민족 독립 투쟁과 민족 대립으로 인한 내전, 원주민의 저항 운동 등 현재 민족·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은 세계 40여곳에 달한다. 이중 민간인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모두 7백만명에 이른다.

유럽의 분쟁지역은 발칸,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이 치열한 터키, 북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이며, 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동티모르, 스리랑카, 티베트, 카슈미르 등이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미주지역은 아이티와 콜롬비아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오의 벽'을 만들고 춤처럼 화해의 깊을 찾지 못하는 종교분쟁도 새 천년의 최대 이데올로기로 떠오를 전망이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21세기를 종교 대결의 시기로 예측한다. 특히 종교의 정치화나 정치의 종교화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종교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세계 12곳. 지난 9일 종전된 세르비아 (세르비아 정교)와 알바니아계(이슬람교)간의 코소보사태를 비롯해 이스라엘(유태교)과 팔레스타인(이슬람교)간의 오랜 갈등, 정권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저항으로 매일 무수한 양민이 학살되고 있는 알제리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또 최근 인도네시아는 사소한 시건과 소문으로 발생한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간의 갈등으로 2개월간 사망자가 1백여명에 달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인도도 힌두교도와 소수 기독교도들간의 갈등으로 힌두교인들의 기독교인·교회시설 습격이 계속되는 등 치안마비 상태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유혈분쟁을 치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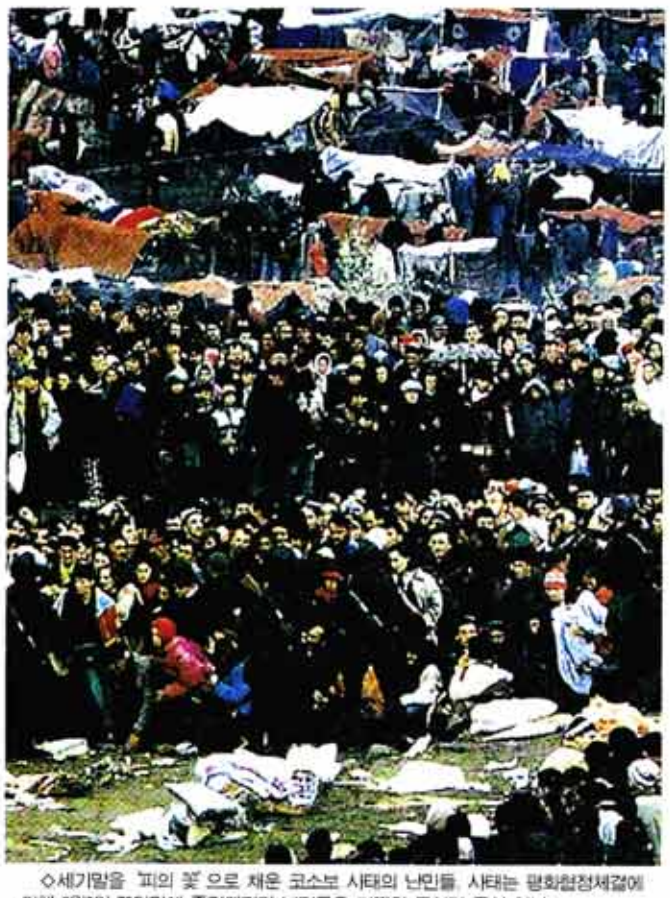
불특정 다수 희생양 삼아

민족·종족분쟁과 종교분쟁은 불특정 다수를 희생의 제물로 삼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국가대 국가간의 '고전적인 전쟁'이 아니라 양민학살이 수반되는 게릴라들과 테러분자들의 전쟁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는 '무고하다'는 개념은 사라지고 특정종교, 특정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르완다, 보스니아, 부룬디, 수단 등지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분쟁은 분쟁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다. 전쟁으로 인한 농작물 파괴는 어린이 영양실조와 전염병을 유발시키며, 죽음을 면했다 하더라도 정신적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결과를 남긴다. 그런 상처를 안고 사는 인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지난 5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종·종교분쟁 등으로 고향을 떠나 떠돌고 있는 난민이 세계적으로 1천2백40만명에 달하며, 자국내에서 거처를 잃고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1천8백여만명에 이른다. 또 최근 들어 3백50만명의 난민이 새로 생겨났으며 수백만명이 그들 나라에서 거처를 잃고 방황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망명지와 보호지를 찾고 있는 사람이 1백만명에 이른다고 UNHCR은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30년간 계속돼 온 북아일랜드 분쟁이 지난 98년 평화공존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민족이나 종교분쟁을 해결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2개월간의 긴질긴 협상은 마주 앉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기말을 '피의 꽃'으로 채운 코소보 사태의 난민들. 사태는 평화협정체결에 의해 6월9일 78일만에 종전됐지만 난민들은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다.

아프칸·코소보·수단등 3400만 난민 유랑생활
힘의 대립-배타성 원인…공존사상이 해법

아프가니스탄으로, 지난 79년 이래 20년 내전으로 2백만명이 사망하고 2백6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두번째는 수단으로 지난 83년 내전 발발 이후 현재까지 민간인 1백90만명이 희생됐다.

분쟁이 가장 심각한 대륙은 아프리카로 수단을 비롯해 알제리, 에리트레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10여곳에서 살육, 방화 등의 참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난민만도



◇가톨릭과 이슬람의 지도자인 교황과 이란대통령은 지난 3월 9백년만에 만난 두 문명을 대표해 악수를 나누고 '종교의 공존'을 확인했다.

지난 3월 이란의 하타미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성베드로성당에서 악수를 나눈 것도 서로 다른 문명간의 화해의 첫단추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실로 9백년만에 만난 이슬람과 가톨릭 두 지도자는 똑같이 "모든 종교는 공통적인 바탕이 존재한다"고 선언했다.

적극적 대화가 해결 단서

두 가지 예에서 보듯이 분쟁의 해법은 예상외로 간단하다. 상호간의 배타성을 버리고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길 밖에는 없다. 하지만 '힘'을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는 분쟁 당사자들에게는 새로운 천년도 '힘'에 의해서만 생존 가능하다는 대립의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서로 연관되어진 것으로 본다. 분리와 대립, 모순의 관계가 아닌 서로가 연관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관계인 것이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조화가 필수적이다. 뱀을 죽이는 것이 개구리를 살리는 이치가 될 수 없으며, 뱀과 개구리와 풀벌레가 공이라는 같은 터전에서 상호연관되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이치와 같다.

민족과 종족, 그리고 종교는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다. 바로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자기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밝은 새 천년을 여는 유일한 열쇠다. 불교는 불교라는 이름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기 고집을 놓아버리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로 보고자 하는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자기마음과의 조화, 여기에 다툼은 있을 수가 없다.

기획취재팀
정성운 차장 한명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 호

지상중계 제7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❷
좌선(坐禪),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선의」를 교재로 좌선의 의미와 참선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좌선의에서 말하는 좌선하는 법

불교계진단 ⑨ / 불교계 승 · 재가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
흔히 말하는 불교의 인물부재. 결국 사람을 키우지 않은 업보라는 지적이다. 그 근본 원인과 승 · 재가의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⑨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우리 멋 집의 건축체험 1
가보았어도 또다시 가보고싶은 절, 부석사
부석사는 자연을 닮아 흐름이 살아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도량이다
절은 건축가 유걸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부석사의 건축세계

문화시평 / 불교교리의 현대적 해석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불교의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교리적 근거를 들어 소개한다
- 제3의 길과 불교의 中道

특집 / 희망의 상징, 이 시대의 미륵신앙
민중들의 삶의 희망으로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민족신앙, 미륵.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긍신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미륵신앙을 재조명한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불교사이트 만드는 법과 운용하는 법

안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가족을 찾아서 · 학술편
근 · 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발전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한다
- 화엄학과 삼론연구의 대가 현곡 김잉석 박사
- 근대 한국불교학의 태두 포광 김영수 선생

우리시대의 庶人 / 불교문화를 빛는 사람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장인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전통 창호(창과 문) 장인, 심용식 씨

사찰과 자연생태 / [1]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절집 화장실, 해우소(解憂所)
최근 환경미화를 이유로 사라져가는 해우소의 자연친화적인 구조와 형태를 소개한다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4
백파 스님의 편지 - 김정희 정화에게 답함

특별기고 / 인각사 보각국사비 복원기

서평 - 하동 스님의 「참선요지」

불교계 주요일지(1998.12 - 1999.3)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1998.12 - 1999.3)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久服卽輕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9시 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의 보도("오가피 알고봤더니 술가피")에 다르면 이중범 선동렬 이봉주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6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가 담긴 오가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 추출액, 오가피 열매 발효액, 오가피 묘목
■ 주소: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682-5034/3
■ 인터넷 홈페이지:http://myhome.netsgo.com/baegh/

滴天髓闡微
역 신 수 천 미
上下 (卷)완결판 芮光海 譯



명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바른 길이 있으며 바르게 배우고 익힘으로써 올바르게 行할 수 있으니 흥미로움에만 관심을 두어 뭇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출처(出處)도 근원(根源)도 알 수 없는 허황된 말들만을 나열한 그릇된 책과 이러한 글을 배우고 익혀 잘못된 논리에 젖어든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는 안될 것이다.

-筆者의 책에서-

명리서의 백미
命學之書의 교과서

上·下권 20,000원

통신판매 예금주 서 찬 배
• 조흥은행 436-04-054683 • 국민은행 833-24-0147-067
• 서울은행 39807-0602412 • 축 협 047-11-12095-316

도서출판 指南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6-4(3층) TEL. (02) 387-8429, 2264-5139

길을 묻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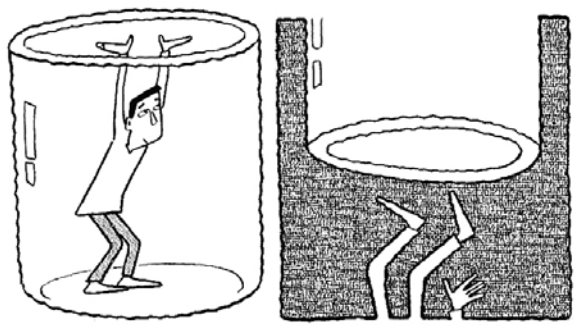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 자성불 있는데 밖에서 찾습니까

"이세상 모든 번뇌 망상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니 자기 없애는 공부를 해야죠"


그림 · 최주현

과거의 업 나오는대로 되놓아야 녹아요
평등한 세상에서 내가 제일일수 있나요

오늘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토도량도 물론 한도량이지 각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도량이 있길래 각각의 처소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함이 없이 말을 하는 것이 그대로가 정말 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불교라고 하면 보통 머리깎은 사람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불(佛)이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요, 교(敎)는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한군데 국한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죠. 그리고 우리가 첫째 알아둬야 할 것은 내 몸이 주머니자 바로 자기의 집이라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공기 주머니 즉 지구가 바로 공기주머닙니다. 우리는 한 주머니 속에 있으면서 서로 싸우고 뺏고 울고 불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라는 공기 주머니가 버스라면 우리는 한 버스에 탄 승객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한 버스에 탔으면서도 이건 내 걸상이고 저건 네 걸상이다, 이건 내 종교고 저건 네 종교다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이자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쉴사이 없이 공임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내다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제일이라고, 내가 제일이라고 우기고 사는 겁니다. 내가 제일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등한 공법을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평등하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똑같으니라. 우리가 이 한 바다에서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자기 일체처에다가 즉 내면 일체처에 다 놓으면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모아진 바다의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비로 내린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요만한 풀 하나도 어김없이 물을 먹죠. 잡초든 꽃이든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빠짐없이 다 먹고 삽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왜 평등하다고 하셨나. 그러면 작은 풀은 자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대로 먹었죠, 어떡합니까? 큰 것은 또 큰 대로 먹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큰그릇이다 작은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습은 다를지언정 생명은 다 같습니다. 공생(共生)입니다. 공생(共生)이며 공심(共心)이며 공체(共)이며 공용(共用)이며 공식(共食)입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도 그냥 공법으로 뛰어넘는 법입니다. 원식이라고도 하지만 공식입니다. 사선도 공법으로 뛰어넘고 십이인연 연기법도 공법으로 뛰어넘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한계단 한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삼천년 전으로 뛰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삼천년 후로 뛰어도 뛰는 거고 일초전으로 뛰어도 뛰는 거죠. 자유스럽게 마음을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자유스럽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만 있다면 하는 일마다 걸리고 보는 것마다 걸리고 듣는 것마다 걸려서 애를 태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걸릴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대사의 인연을 뼈 한 무더기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뜻이 뭐겠습니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렇게 진화해가면서 인간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것을 모두 안다면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귀 축생 아수라 이것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생각이면 아수라가 점잖은 부처로 화할 수도 있고 또 점잖은 사람이 아수라로 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마음에 달린 거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규명을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방편으로 나오셔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일러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항상 얽매여서 자기 통안에서 나오질 못해요. 자기 통안을 병 속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새를 병 속에다 넣고 길렀는데 새는 점점 커지고 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새가 병 속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병 속과 같은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지혜로와지면 누가 꺼내주기 이전에 스스로서 나고 들고 하는데 자유스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병에서 새를 꺼낼려고 하니 꺼내집니까 그게? 즉 말하자면 내 자성불이 있는데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 소리죠.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일대사의 인연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일일이 거쳐서 한 것이 아니라 한생각에 그 과정을 다 거치신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돼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십시오. 부처님 법이 어떤 것인가.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현실의 법이 바로 부처님 법이다 하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수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된대로 현실에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어디다 하소연을 하고 남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것이 나오는 대로 거기다 새로운 입력을 되집어 넣으라는 거죠. 거기다 되놓으면은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풀려나오겠죠. 녹음테이프처럼 말이예요. 이 세상에 번뇌나 망상이나 모든 걸 끊으려고 하면 끊어집니까 그게. 녹여야죠, 그리고 대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에 그러죠, 억울한 일이 생겼다 또 무슨 일이 생겼다, 아프다, 자식이 나가서 안들어온다 등 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일어나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없다면 일어날 리가 없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에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있기에 상대도 생기고 세상도 벌어졌죠. 그러니 자기 없애는 공부를 해야죠. 자기가 공한 줄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가 공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되집어서 '너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그냥 거기다 되놓을 때에 바로 입력이 들어가서 과거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된 게 현실에 나오는 거죠. 요만한 거 하나도 삐놓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움쭉거리는 것이 다 그 공법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현재 그런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불을 못해요. 성불이라고 이름 부르기 이전에 자기 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벗어날 수 없다면 이 지구라는 주머니 안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또다시 반복이 되면서 수레바퀴처럼 굴러다니겠죠. 아무 것도 모르고 끄달리는 그 생명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사실 생각한다면 사람 뿐만은 아니죠. 땅속에서 사는 생명들도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들 모두 살고 있는지. 축생들도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생명을 다 바치면서도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사실을 말이예요.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좀더 이 공부를 해서 벗어나게 되면 길바닥에 오고가면서도 축생도 건지고 사람도 건질 수 있게 되죠. 꼭 손에 뭘 집어줘야만 보시가 아니거든요. 무주상보시로 함이 없이 하는 보시, 이것이 더 갸륵하고 좋은 거니까요. 이 함이 없이 하는 보시는 실천에 있어서도 그냥 요만한 거 하나 에누리가 없이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물질로 주고 받는 것은 잠시잠깐 뿐이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을 감사하게 받고 혹은 내가 했다는 상이 있는 보시라도 그것을 무보시로 돌려서 받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한 뜻으로 되돌려주고 이런다면 그게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묻기를 "나는 이렇게 많은 절을 짓고 스님네들한테 공양을 해드리고 옷을 해드리는데 얼마나 공덕이 됩니까" 하고 물었죠. 그런데 달마대사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면 너무 많아서 하나도 없다는 소리로라도 들었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못들구선 결국은 달마대사를 그렇게 했죠. 달마대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깨우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하게끔 길을 막아놓은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달마대사는 '길을 막아도 내게는 막은 사이가 없다' 하고 신 한짝은 땅에 두고 신 한짝은 주장자에다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라 하고 말이예요.

여러분이 어제 일을 아시고 한달전 일을 아시고 일년 전 일을 아시고 내가 뭐를 했구나 하는 거를 아시고 그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수가 컴퓨터와 같아서 거기에 입력이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인과성 이거를 모조리 멸하게 할려면 컴퓨터에 새로운 걸 입력하는 수밖에는 없는겁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 주인공에다 몽땅 놓고는 그냥 시치미 뚝 떼요. 코웃음 치라고요. 시치미 뚝 떼고 거기다 놓고는 '너 알아서 해. 네가 형성시켜 놓은 네 모습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는 딱 맡기고 지켜보는 거죠. 꼭 그래야만 돼요. 얽매이면 어떻게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창작시대 전화 325-5355 팩스 325-5385

♠ 우리는 이 책을 읽고 꼭 행복해져야 합니다!

히말라야 '山中問答'
生과 死를 논하다!

부자간의 대화를 통한 동서양의 만남!
현대 철학자 5인 중의 한 명인 아버지와 생물학자이자 티베트 승려인 아들이 세계와 인류, 삶의 의미에 관한 열흘간의 지적 성찰을 통해 우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이 책은 순전히 우연한 기회에, 아니 굳이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이런 책이 출간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 나오게 되었다
— 프랑스 「빌」 편집부 —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 · 교보문고 인문 베스트셀러 1위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르벨 미티유 리카르 지음/이용철 옮김/양장본 값 12,000원

뉴욕타임스, 더타임스, 르몽드 등
이 책에 쏟아진 세계언론들의 찬사!

저자인 두 사람도 이 책의 성공에 깜짝 놀랐다. 철학이 소르본느 대학의 강의실이 아닌 공항의 대합실에서도 쉽게 읽히게 되었다 —더타임스

이 책에 수록된 대화가 난해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대화를 나누는 주인공이 보여주는 진지함과 지적 깊이 때문일 것이다 —뉴욕타임스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적 대화로 이루어진 이 책은 카다란 대중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르몽드

철학자인 아버지와 승려인 아들이 만났다. 두사람은 『승려와 철학자』라는 부자간의 대화록을 출간,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조선일보

이들의 대화가 더욱 가치 있는 점은 둘 다 최고 수준의 서양 과학문명을 공부한 학자라는 점. 이들의 대화는 물고문만 아니라 철학, 정치학, 윤리학, 심리학 등 인류 정신사에 대한 굉범위한 지적 탐구로 이어진다 —동아일보

이 책은 현대인의 삶과 사회를 되짚어보고, 그 병리와 대안을 생각하는 데도 유효한 계기를 마련한다. 깊이 있는 지적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어렵지 않게 읽힌다. —문화일보

초베스트셀러가 된 책,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책의 가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미 베스트 1위, 일 년 만에 600만부 돌파!
일본 베스트 1위, 6개월 만에 200만부 돌파!
한국 서점연합회 비소설 베스트셀러 1위!



왜, 맨날 이 모양이지?

허구한날 푸념만 할뿐,
아무것도 달라지지않는 인생을 위하여
비비 꼬인 인생의 매듭을 확실히 풀어 줍니다.
아주 쉽고도 편안한 실천 방법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처드 칼슨 지음
정영문 옮김/값 7,500원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체가 없는 마음 왜 마음대로 못 쓰세요

☞ 15면에서 계속

됩니까. 불구덩이에다 탁 집어넣고 그냥 입 씻고 돌아서는 거와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 억울한 점이 없을 겁니다. 모든 걸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자손들도 착한 자손들로 화하고 남편도 착한 남편으로 화하고 부인도 착한 부인으로 화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조상이 잘못됐다면 그것도 관해 줌으르써 조상과 산 사람이 함께 다 평화를 얻고 화합이 이루어져서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을 좇아가서는 안되니 그것도 앞에 말한 것처럼 관하십시오. 갖다주는 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살아있거든요. 돈도 집안을 들여다 보고 이 집이 복잡하다 그러면 안들어가요. 가봤자 만날 싸우고 찢기고 할테니까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다 하고 자꾸 들어오게끔 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해놓구서는 시치미를 뚝 떼고 계세요. 마음이란 체가 없어서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마음대로 못 쓰거든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들 살아나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들었다 하면 벌써 지나가고 봤다 해도 벌써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보면 보고만 있습니까, 들으면 듣고만 있습니까, 가면 가기만 합니까. 오면 오고만 있습니까. 만나면 만난 사람만 만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 공해서 탤런트가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이 없이 하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찰나찰나 화해서 지금 과거로 돌아가면서 현실로 다가오면서 미래로 다가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올라오실 때에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한 발 딛고 한 발 놓고 한 발 딛고 한 발 놓고 오셨죠? 그런데 그 한 발 놓은 거는 어떻게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놓고 오셨습니까? 자연으로 놓고 왔죠? 뭐 거북하게 신경쓸 것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한 발 성큼 딛고는 한 발 놓고 또 한 발 딛으면 자동적으로 한 발 놓고 왔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왔죠? 우리 살림살이가 다 그래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착을 두고 욕심을 두고 붙들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늘어지는 마음이 있고 속에 앙금이 있기 때문에 놓고 간다고 해도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앙금이 남아있는 한 끝이 안난다구요. 그러니 관해서 완전히 녹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똑같이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실천을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고정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삼세가 공하고 우리가 다 공했다 이겁니다. 공했다는 뜻이 이해가 잘 안되시면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한 이치니까요. 고정된게 없으니 찰나찰나 발을 떼어놔도 찰나찰나 없어지죠. 또 보는 것도 찰나찰나 딴 것 봐야하고 듣는 것도 찰나찰나 딴 것 들어야 하고 만나는 것도 찰나찰나 딴 사람 만나야 하고 먹는 것도 이것 먹으면 저것 먹어야 하고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자동적으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자체를 자기 마음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어요. 아무때 연분에는 이랬고 아무때 연분엔 이랬으니까 '요거 두고 보자' 이러구 붙들고 있는 거 말이어요. 아무때 연분에는 이랬으니까 이거 이렇게 꼭 갚아야 되지 이러구 붙들고 있다구요. 그러니 그걸 갚겠다고 마음먹고는 못갚고 또 앙심을 품고 있다가도 뜻대로 못하고 이러다 죽으면 그게 어디로 다 갑니까. 그 품은 마음이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유전성이다 인과성이다 이런 걸로 연결이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도 선한 것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놓으란 말입니다. 산에 가보십시요. 짧은 것 긴 것, 큰 것, 작은 것, 천차만별로 조화를 이루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목나무도 있고 벌레먹은 것도 쭉쭉 뻗은 나무도 있고 휘어진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큰 산이지, 좋고 잘 뻗은 나무만 있다면 그게 무슨 큰 산입니까.

그래서 여북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주산신도 되고 주해신도 되고 맘대로 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내 몸이 어디 아프더라도 스스로서 약사를 만들어 낫게 할 수 있어야죠. 즉 말하자면 '아픈 거 낫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관하게 되면 약사로 화해요. 또 용도에 따라 관세음보살로 화하고 지장으로 화하고 칠성으로 화하고 주산신으로 화하고 주해신으로 화하고 자꾸 변해서 응신이 돼준단 얘기입니다. 자기 안에 다 있는 줄 모르고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온통 바깥으로 야단법석들을 하며 자기가 끌려다니니까 문제죠.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죽어서 소밖에 더 되겠습니까?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끌려 다니는 소 말입니다. 일만 죽도록 하고 자기 자유대로 사람도 될 수 없이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빌어먹어도 자유스럽게 산다는 얘기가 있죠. 자유가 좋아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애를 봐달라고 얼어먹고 다니는 사람을 불들어 뒀더니만 그 이튿날 달아나가더래요. 왜 그렇게 달아나가느냐고 하니까 난 자유가 좋다고, 나가서 밥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가 좋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도 자유가 좋으시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은 아프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돈이 많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그릇대로 주어진 겁니다. 끼리끼리 주어진 거예요. 금방에는 금이 놓여있고 넝마전엔 넝마가 있고 깡통전엔 깡통이 있듯이 끼리끼리 만난다 이겁니다. 과일가게에 가도 배는 배대로 놓고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모두 그렇게 끼리끼리 놨죠. 우리 인생도 끼리끼리 맺어지고 끼리끼리 주어진 겁니다. 가정에서 만난 인연도 똑같습니다. 지어놓은 대로 차원대로 끼리끼리 주어졌는데 그걸 누구 탓을 합니까. 남편은 부인 탓을 하고 부인은 남편 탓을 하고 또 부모는 자식 탓을 하고 자식은 부모 탓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두 화합이 무너지고 제각끔 놀게 되죠. 이거를 뭘로 다스리느냐. 마음밖에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전력이 가고 오는 줄 모르게 흘러서 불이 켜지듯이 그런 거거든요. 전력은 가고 오는 것이 눈으로는 못 보지만 그러나 불은 켜져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부자가 되지 않아서 억울하십니까. 그럼 부자로 살려고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울어야 하고 아파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때거리가 없어서 남한테 꾸러다니고 또 갚질 못해서 남한테 붙잡힐까봐 도망다니고 숨어지내고 이러니까 이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정말이지 생활 속에 부처님이 계신 거지 생활을 떠나서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인생은 끼리끼리 모이는 법
가정에서 만난 인연도 똑같아요
차원대로 주어진걸 누굴 탓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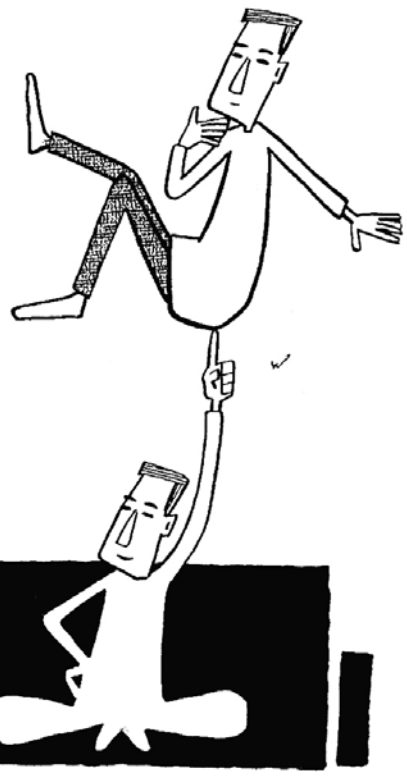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는 여러분처럼 지식이나 학식이 많아서 말을 잘 할 줄은 모르지만 한마디도 거짓은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해서 딴 사람이 이익을 못본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죠. 그건 죽는 것만도 못하죠. 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부숴져서 가루로 만들어 뿌려져도 좋다고요. 여러분도 그러한 각오가 돼있으면 물질로 넉넉지는 못할지언정 마음은 넉넉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분이라면 요 손가락 하나로 하늘을 받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올때 한발 딛고 놓은 그한발 짊어지고 왔나요 그냥 놓고 왔죠 우리네 살림살이도 같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처럼 어려운 고통이 없어요. 거짓말을 한번 하다보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하고 또 거짓말을 해야하니 이거는 사람이 할 노릇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맞아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털어놔 버려요. 속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죽일려면 죽이고 살릴려면 살려라 하고 마음을 크게 쓰세요. 이왕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되죠.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죠. 모든 걸 둘로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다가 꿈을 꿔도 둘로 보면 안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꿈에 어떤 여자가 미친 것처럼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 구렁이를 끌고서 자기집으로 왔더래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데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느냐고 하니까 그냥 싹 없어지더라는 거죠. 꿈에도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를 대치해 나갈려면 지금 살아있으면서 둘로 보지 않는 대치를 할 수 있어야 죽어서도 대치를 할 수 있어요. 조상의 변고가 나는 것도 둘로 보기 때문에 병고가 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조상이 현재의 여러분이고 또 인과성이나 업보성이나 유전성이 모두 얽혀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가, 즉 여러분 자체가 없다면, 또 공한 걸 안다면 아무리 공에 와서 한데 합쳐도 공이지 다른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우치시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공까지도 마저 놔라 이랬어요. 그런데 공에다가 놓으면 뭐가 되느냐. 수만 개를 마음에 갖다놔도 그건 영이예요. 그걸 아세요? 조상의 마음을 다 끌어다가 나타나는 것대로 다 자기 주인공에다 놓는다면 불성이니까 그냥 화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도 두지 않고 공간도 두지 않아요. 그냥 찰나에 화해버려요. 그러니까 만개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도 만개라는 이름이 없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리송하세요? 아리송한 것도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실천을 자꾸자꾸 해보면 알게 돼요. 내가 실천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삼천년의 부처님이 아무리 지금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 누가 살아줍디까, 대신 먹어줍디까, 똥을 눠줍디까, 잠자줍디까, 아파줍디까, 죽어줍디까, 깨우쳐줍디까. 그것은 도저히 대신해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과거 나와 현재 나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만이 되는 거죠. 과거의 나는 수억겁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진화되어 나온 아주 금강과 같은 보배니까 그게 바로 자불이죠. 현재의 나는 모습일 뿐이죠.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면 상대성 원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내가 모습이 있어야만 상대가 나를 보고 내가 상대를 보고, 이래야만이 보살행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공용으로서 해결을 할 수 있다구요. 어떤 분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랬다지요. 그건 무슨 뜻이냐하면 공도 탁 치고 넘어갔다 하면 그대로가 여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여여하다, 그대로 여여한 걸 알라.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딴 사람이 길게 나오면 나도 길어주고 또 남이 짧게 나오면 나도 짧아주고 이래야 화합이 되죠.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부처라는 이름이 없는 것이 부처예요. 길면 긴 대로 길어주고 짧으면 짧은 대로 짧아주고 요만하면 요만해져서 같이 해주고 이만하면 이만하게 해서 같이 해주고 바다같이 넓어지면 바다로 같이 해주고 이러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나가다 보면 알게 돼요. 그렇게 애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러면서 살아온 그 역경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기 때문에 놔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거든지 다 거기 놔야 녹아져요. 육조스님이 오로지 자기 마음가운데에 자기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자기 불성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자기 불성으로 인해서 여여한 줄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자기 불성이 있는 반면에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자기 불성이 있는 반면에 만법을 들이고 내는 걸 어찌 알았으리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고정됨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니
삼세가 공하고 우리가 공했다 하죠
그러니 좋은것 싫은것 다 놓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알면은 그렇게 한발 한발 딛고 나갈 때 삶의 재미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없는데서, 그 없는 가운데서도 튀어나가면 내일이 있고 참 재미있는 그런 자유 여건이 돌아와요. 즉 자유인이 된다이 소리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먼 친척이나 누가 먼데서 지금 당장 급하다 이런다면 바로 거기까지 한걸음에 뛰는 거지, 두걸음도 아닙니다. 멀고 가깝고 이것을 떠나서 한발이예요, 한발! 과거 삼천년전이라도 한발입니다. 일초전도 한발이고. 그러니까 그 요량과 뜻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이지 성불아닌 성불을 하게 되고 견성아닌 견성을 하게 되고 또 과거삼 현재삼 미래삼을 한데 합쳐서 구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구요. 그래서 닭이나 지렁이까지도 다 자기 몸을 바쳐요. 자기 몸을 산산조각을 내든지 자르든지 찢든지 맘대로 해라 하고는 다 맡겨요. 맡겼을 때 때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화해서 다른 걸로 나오기도 하지만 생각을 못하면 그대로 또 지렁이가 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를 속에서 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주면 자꾸자꾸 화할 거란 말입니다. 아셨죠? 이것도 나만 잘 살겠다 이러면 욕심이니까 그냥 베풀어요. 길에 오고가면서도 베풀고 그저 앉았다가도 베풀고 섰다가도 베풀고 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요. 일하는 것은 행선이고 앉았으면 좌선이고 섰으면 입선이고 누워 자면은 와선이어요. 이것이 그냥 그대로 선(禪)이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요만한 것 하나도 잘못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꼭 여러분은 앉았어야만 참선인 줄 알아요. 그럼 앉았을 동안만 지구가 돌아가고 앉았지 않으면 지구가 안돌아가나요? 그런 줄로 알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 일을 하는 것도 행선이지 어떻게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까. 요만한 거 하나 울고 웃고 하는 것도 선이지, 사방이 다 터졌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이것만이 참선이다 하구선 꼭 틀어앉아야만 합니까? 거기에 매여서 일어나지도 못하다가 오줌마려우면 일어나거든? 오줌은 왜 눕니까? 선이 끊어지는데. 하하하 참. 그럼 배가 고파도 먹지도 말아야 하고 똥이 마려워도 누지도 말아야 하고 오줌 마려워도 누질 말아야죠. 그래야 선이 안끊어지지, 안그래요? 똥이 마려우면 똥누고 오줌 마려우면 오줌누고 그래야 될텐데 그건 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선이 자꾸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도루묵이죠. 이왕 그렇게 할거라면 차라리 이것도 선이고 저것도 선이고 선 아닌 게 없다, 팔죽방울을 보고 요것도 분수 요것도 분수 하듯이 그저 요것도 선 요것도 선 선아닌 게 어딨느냐 이 세상에. 그러구선 밀치구 그냥 나가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활기있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죠.

'돌려놓는다' 무슨 뜻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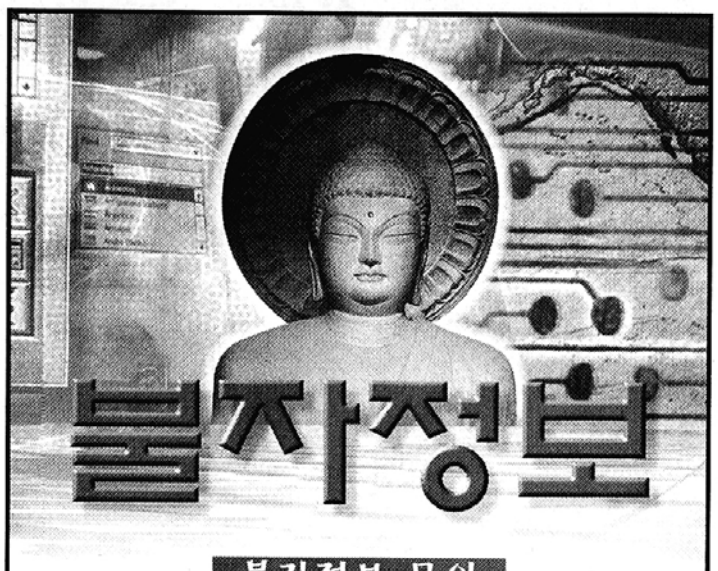
문 스님 말씀중에 돌려놓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 돌려서 놓으라는 거는요, 바로 이거에요. 내가 내 앞에 닥친 일에 대해 '너만이 알아서 할 수 있어' 하고 놓는 것이 돌려놓는 거에요. 또 몸이 아플때도 '아프게 한 것도 너니까 낫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 돌려놓는 게 돌려놓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일어날때도 '이런 것을 없애주는 것도 너 뿐이야,' 하고 돌려놓는 거, 물론 번뇌망상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지만 마음이 산란할 때는 '산란치 않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 돌려놓으세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마음이 상쾌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얘, 마음을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해놔. 네가 형성시켜놓았으니 네가 좀 쾌활하게 살게 하지 왜그래' 그러면 쾌활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돌려놓는 거예요. 굴려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사를 지혜롭게 이렇게 굴려놓으시라 이거죠. 다가오는 대로 닥쳐오는 대로 그 용도에 따라서 말이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을 해줘야 되거든요. '엄마' 하면 엄마노릇을 해줘야 하고 때로는 '얘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량있게 해야죠, 또 '여보' 하면은 남편이 돼줘야죠.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 이 원리가 바로 부처님 마음이며 그 자체가 바로 보살의 마음이에요. 보살이 화해서 여러분한테 응신이 돼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보살이 응신이 돼서 여러분에게 응접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나만 잘난 게 아니니까요. 둘로 보지 않는다 하는 소리가 거기에 다 연관이 돼있어요. 보살의 통신처, 부처의 통신처, 이 세상 전체의 통신처는 여기밖엔 (가슴을 가리키시며)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근본자리, 거기밖엔 통신처가 없거든요. 빠져나갈 구멍도 거기고 통신처도 거기고 활발하게 살게 하는 것도 거기예요. 거기밖엔 없어요. 딴데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는 마음이 아니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타가 다 성불하십시다.

※위 법문은 1999년 4월11일 서울 정토회관 정토회 백일법문때 '새문명의 지평,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간 병 인
불심깊은 불자간병인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로 유료 간병 서비스는 물론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자원봉사
전화 02)363-7884
팩스 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강좌

통지판매
易학교육전문학원 교재로 만든
5주 속성 **易학 학습지**
농협 : 037-01-298413 (예금주)글향기
SBS 모닝와이드(운명을 배워 운명을 개척한다)에 박규병(전직교사 · 59)원장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5주 속성 프로그램 소개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8729(代)

전통불교의식 연구원
02) 511-0108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술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화엄경 (80권) - 1,400,000원
법화경 (7권) - 170,000원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창본
011)545-7252 쳐 사

마음을 다스려 병을 고친다.
최면-명상 치료사생 모집
? →마음(전생의식) → 생각(의식) →목 →운명
만성성인, 알레르기등 각종 난치병, 치매예방, 비만, 체질, 악습, 성격교정, 금연 · 금주, 학습력강화, 안정과 지혜계발.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017)609-9068

구인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 30만원선 ◆
011)685-7904
0416)841-7904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 대구 ◆
053)942-0700
011)501-2219

수양,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공고

탈 종 공 고
한국불교태고종 귀하
●주소 : 노원구 상계4동 152
●사찰명 : 백운사
●주지스님: 유선순(법명:정각)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9. 6. 14.

직인 무효 공고
●사찰명 : 태화사
●소재지 : 울산시 중구 태화동
위 사찰의 주지직인을 1999년 4월 30일에 분실하였습니다. 이에 그 이후 직인 사용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1999. 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기타

세계최초로 특허를 획득한 자석+금침+은의 3가지 복합효과
동광자기금침
실용신안등록 제118585호 보건복지부허가제조허가 131호 제품허가 31호
근육경직, 무릎, 어깨, 통증은 이제 그만!
동광자기금침은 이제 가정상비 필수의료품 입니다.
동양의 신비가닥긴 금침과 인체에 좋은 자석을 결합하여 개발된 동광자기금침은 한방의학의 경락과 생체 에너지에 직접 작용하여 혈액순환, 요통, 관절염, 류머티스, 근육경직, 부시고 걸리는 각종 통증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CATV 및 통신판매 중! 적은 투자! 고수익! 확신!
※ 지역총판 및 사찰판매점주를 모십니다. ※
제조원 동양전자의료기기 (주)판매원 東廣通商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5-11
대표전화 (0344)938-6292 FAX(0344)973-3505

기(氣)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질병상담문제아 무료상담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신경통, 당뇨, 비만증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852-0067/011)453-8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82번지 **광불사**
주지 대 원 합장(氣 달마도 무료보급)

건강추구! 자연치유
(스트레스 해소 氣 기운 보강) 춘천 玉山家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 (02)777-0105

사찰안내

귀 달마스님
◆사주 : 대운 · 행운 · 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 ~ 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 ~ 15:00
02)999-5551 달마사
02)928-5551

보이차
1kg (10만원)
■소타차 500g(10만원)
■칠자병차 3개(10만원)
茶道里
02)911-6798
017)406-6682

사찰 (급) 안내
◇위치 : 서울 ◇부지 : 58평
◇실사용평수 : 120평
◇법당 : 20평 ◇요사 : 50평
◇가액 : 2억 7천만원(급매)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급)안내
◆위치 : 진주시
◆부지 : 142평 ◆대지 : 등기필
◆법당 · 요사 37평
◆가액 : 답사후 절충
◆특징 : 진주시내 10분거리 소재 교통편리, 준공4년, 고급전원주택 (임법당), 시설일체 무상기증
080)048-4848/011)488-3339

포교당 안내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안3동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 · 산신탱화
◆시설 완벽
053)942-0700
011)501-2219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지 60평, 건평 36평
◆임법당 13평, 방14칸, 부엌, 목욕탕
◆가격 : 1억 (절충가능)
02)936-4785

포교당 안내
◆위치 : 경북 의성군 안계면 면소재지
◆대지48평, 방3, 주방(현대식 건물)
◆포교에 최적합한 지역임.
◆가액 : 3천 8백만원
0576)862-0329

결장경 기도 · 휴양처 공급
◆원룸식 8평
◆텃밭 제공
◆자손 대대로 연구 사용
지리산 약수암
0671)625-6831

포교원 안내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5평
◆법당, 주방시설, 스님 거처할 방1
◆삼존불, 후불, 신중 · 칠성탱화 완비
◆가격 : 전세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
02)954-1289

경남 사찰 안내
◆위치 : 통영 바닷가 옆
◆대지 : 120평
◆평수 : 114평(신축 2동)
◆가액 : 3,800만원
◆차진입가능
011)582-1736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이천 소재 (서울 약1시간 거리)
◆대지 약 435평(건물5동), 대광전 27평 (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법전 거실 1, 방 3), 요사 43평(방11 식당 회장실독립)
◆가액 : 3억 5천
◆특징 : 취락시가지 확정, 도면 열람가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신고속도 건설중(서울근린지역), 녹지푸른 산을 낀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2)925-6118

절터 안내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절골)무주 구천동인근
◆부지 : 약30평
◆가액 : 평당 6천원
◆특징 : 덕유산 줄기 식수, 경관수려 이조초기 절터임. 천연고로쇠나무, 자작나무,잦나무등 현재 사슴농장으로 운영중
(주)0598)942-2400/(0)0598)944-2467

사찰(포교원) 운영하실 분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대지 : 85평
◆건물 : 법당17평, 주지실, 상담실, 거실, 방3개, 주방, 욕실(건평45평)
◆가격 : 일억 팔천만원 (매매가)
◆특징 : ●건축한지 3년 됐으며 사찰로 등기 되어 있어 어떠한 종교 행사도 할 수 있음. ● 건물 전면에는 주택 단지, 뒷면에는 야산에 산책로 조성되어 있음 (2K) ●전철역에서 택시 기본 요금거리 위치 (지하철4호선)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모셔져 있으며 법당 조성되어 있음. ● 단독주택이나 구조는 사찰용도로 건축하였음(현재 운영중) ●융자(오천만원) 할 수 있음
0345)419-3224 / 011)417-1008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강원
◇법당및 요사 : 35평
◇부지 : 2,080평
◇가액 : 7천만원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부산
◆대지 : 500평 사용, 300평 등기필
◆법당26평 산신각 용왕전
◆요사 총 4동 (방9개)
◆산속 암벽이 둘러있는 기도처이며 바다가 보임.
◆가액 : 2억9천(절충가)
019)616-3200

토굴 안내
◆위치 : 경남 산청군 오부면 일물리
◆땅 700평 (집포함)
◆법당26평 산신각 용왕전
◆가액 : 3천만원
0596)972-5613

사찰 안내
◆위치 : 춘천시 효자3동(도심지)
◆대지 : 40평 ◆건평 : 17평
◆입식기와집, 포교적지
◆가액 : 9,300만원(전세 2000포함)
※사찰 암자와 교환 또는 매매 원함
017)372-8968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 연산9동
◆평수 : 35평
◆법당, 공양칸, 욕실, 방3
◆주전 2,300세대 아파트 입주중
011)851-0115

사찰안내
◆위치 : 전라북도 남원근교
◆법당1,산신각 1,종각,석탑,요사채2동
◆특징 : 대숲과 노송 사시사철 변함없는 자연수
◆좌향 동남향
◆가액 : 2천2백만원(가격조정 안됨)
◆당장이라도 사찰재건립시 시주자 있음
◆단, 사찰부지는 아님
0673)642-2965(저녁 8시이후부터)

사찰 안내
◆위치 : 사천시 사남면
◆대지 300평, 법당30평, 요사채20평
◆교통편리 주차진입가능
◆가액 : 1억 3천
017)583-4895,
0593)854-0869

법당 안내
◆위치 : 모래내 시장내
◆법당15평, 큰방1, 주방1, 목욕탕1
◆가액 : 3천 (월세)
032)468-3210
011)238-3210

고가 한옥 안내
◆위치 : 공주군 반포면
◆대지 : 407평, 임법당 있음.
◆가액 : 상담후 결정
0613)336-0504

사찰 안내
◆위치 : 과천 대공원 청계산 뒷편
◆법당 : 30평 ◆반지하 : 40평
◆1층 : 요사채 30평
◆가액 : 상담후 절충
02)502-2932

대지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대호동 금정산아래 동신대학 뒷편
◇ 대지 : 250평
◇ 평당매매가 : 135만원 (가격 조정가능)
※사찰부지 입지좋음
※기초공사완료, 지하수개발완료
011)607-3155/012)601-4041

포교당 안내
◆위치 : 경기도 일산 주엽역 3분거리
◆대지 : 80평 (법당, 강의실, 사무실, 주지실, 대중탕, 주방)
◆가액 : 4,000만원
◆특징 : 일산 신도시 포교 최적지 (중심가), 아파트 밀집 백화점 (그랜드 · 롯데 · 태양 등)밀집
011)708-8282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광주광역시내권
◆대지 : 300평
◆법당 : 50평
◆요사채 : 50평
◆가격 : 전세 6천만원
011)608-2669
062)223-2669

임법당 안내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4동 산2번지
◆건물40평, 법당15평, 방6개, 입식부엌
◆가액 : 6천5백 (가격절충)
042)255-5063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괴산군
◆부지 : 420평
◆법당 : 20평
◆요사채 : 40평
◆가격 : 2억 8천만원
◆정통사찰임
한국불사 02)561-7020 018)293-9390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 시내
◆부지 : 700평
◆법당 25평, 요사채 200평
◆특징 : 산세좋음. 지하철역 전통 대형사찰임
◆가액 : 답사후 절충
좋 은 인 연
02)561-7020/018)273-9390

사찰(급) 안내
◆위치 : 진주시
◆부지 : 142평 ◆대지 : 등기필
◆법당 · 요사채 37평
◆가액 : 답사후 절충
◆특징 : 진주시내 10분거리 소재 교통편리, 준공4년, 고급전원주택 (임법당), 시설일체 무상기증
0591)745-8339/011)488-3339

포교원 안내
※ 아미타도량 급매 ※
◆위치 : 장안평 사거리 지하철역앞 최요지
◆법당 : 40평 (시설최상급)
◆큰방4(주방,화장실,목욕탕)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철학원도 가능 (아주생활편리)
02)2212-1255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영동군 4차선 국도서150m 거리
◆법당 15평, 요사20평, 창고 18, 대지 150평
◆가액 : 3,500만원
0414)742-6772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 321-47(89번 버스 종점옆)
◆평수 :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신중단, 방2, 세면장, 주방
◆가액 : 보증금1,500 월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2)521-7512/017)339-0566

토굴 안내
◆위치 : 충남서천
◆대지 198평 건평 28평(임법당), 목욕탕2, 입식부엌1, 방2, 마루1, 법당앞마루
◆가액 : 3천 8백만원
0459)951-6917

생활정보

수도요금 관련법규 개선

(생활) 서울시는 3일 수도요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건물매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전 소유자가 사용한 3개월분의 요금을 새 소유자가 승계토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의 새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후 최초 검침분에 해당하는 요금부터만 부담하면 된다.

여름철 기상상담실 운영

여름철 방재기간(6~10월)에 기상상담실이 운영된다. 기상청은 지난 6월1일부터 10월말까지 5개월동안 기상리포터 경력을 지닌 상담요원 2명을 전담 배치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실에서는 전국의 기상 상황과 기상특보 현황, 특이 기상현상, 일반 기상상식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02)831-0365

직장인 야간법률상담

(상담) 가정법률상담소는 근무로 낮시간에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6~9시 '직장인 야간상담'을 실시한다. 상담분야는 주택임대차, 가사채권채무, 교통사고, 형사사건 등이며, 매주 10여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며 상담에 응한다. (02)780-5688

경찰관 차량정비서비스

(교통) 경기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고속도로와 시내 각 도로에서 타이어 펑크 등 차량 고장으로 곤경에 처한 운전자를 돕기 위해 교통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해 도와주는 응급조치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로 주행중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연료가 떨어졌을 때, 또 밧데리가 방전돼 시동이 안걸릴 경우 운전자들은 카센터에 연락할 필요없이 112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름사워 미지근한 물로

(건강) 여름철 여성 건강 목욕법. 각질제거 기능이 있는 보디클렌저로 불필요한 각질층을 살짝 벗겨낸다. 샤워할때 물온도는 미지근한 것이 좋다. 마무리 때 약간 차가운 물로 발등부터 목까지 서서히 샤워하면 피부에 탄력이 생긴다. 일주일에 한번쯤은 욕조목욕을 해 근육의 피로를 풀고 피부속 노폐물도 없앤다.

철로 만든 맥주캔 개발

(새상품) 올 하반기에 알루미늄 대신 철로 만든 맥주 캔이 등장한다. 포항제철은 OB·하이트·진로쿠어스 등 국내 맥주 3사와 공동으로 스틸 캔 설비제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포철은 오는 8월부터 시범 판매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전국 판매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이옥신 오염 식탁불안



◇다이옥신 파동 이후 소비자의 발길이 끊긴 서울 한 백화점의 돼지고기 판매대.

청산가리보다 독성1만배…암 등 유발
정부 섭취허용 기준도 없이 무대책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더이상 없다.' '다이옥신' 파문으로 최근 전세계가 난리아닌 난리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이옥신에 오염된 벨기에산 수입 돼지고기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인간이 합성한 물질중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다이옥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모두가 다이옥신에 오염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환경오염을 줄이면 다이옥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이옥신이란 무엇인가=발암성이 높은 화학물질. 염소 등 특정 화학물질을 만드는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독극물의 대명사인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약 1만배나 높다. 주로 쓰레기 소각로, 화학공장, 비료공장 등에서 배출되며 화산폭발이나 삼림화재 등으로도 발생한다.

▲안전기준치=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의 1일 다이옥신 노출 허용치를 체중 1Kg당 1~4pg(피코그램)으로 정해놓았다. 1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이다.

▲다이옥신 오염 가능식품=이번의 경우처럼 주로 육류 및 유제품에서 발견되나 생선, 과일, 야채에도 존재한다.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는 고등어, 갈치, 조기, 대구 등의 어류에서 벨기에산 돼지고기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오염돼 있다는 사실도 지난 8일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굴, 잡어, 도다리 등 어패류에도 감염돼 있다. 닭고기나 달걀, 베이컨, 소시지, 햄 등에는 당연히 포함돼 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다이옥신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흔한 질병은 피부병이다. 그러나 가장 큰 공포는 암을 유발하고 인간의 생식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행동이상, 당뇨병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다이옥신 오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암에 걸리고 생식능력이 감퇴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다이옥신 허용치를 1일 1~5피코그램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몸무게 70Kg의 사람은 매일 70~350피코그램을 섭취해도 무방하다. 다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과 환경이 다이옥신에 오염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인체로 들어오는 다이옥신의 총량은 이미 기준치를 넘어섰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대응실태=수입육류 1차 관문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유통 접검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옥신 검사장비 등 검사능력이 없다. 게다가 다이옥신 하루 섭취허용량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더욱이 이번 파문에서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정청 등 관련부처간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늑장 대응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의 눈

"환경과 우리몸 둘아니다"

〈증아함경〉에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을 주관적, 소유적으로 과악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불교는 '환경과 우리 몸이 둘이 아님(身土不二)'을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國土淸淨)'으로 강조해왔다. 다이옥신 공포는 무분별한 개발논리로 환경을 해쳐온 자업자득의 결과다. 자연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소유물로 여긴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다이옥신 파문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살생이나 다름없다는 불교적 해석이 가능하다.

정각스님(불교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불교의 환경친화사상으로 문제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인-재벌-세무원 順
가장 부패한 직업 꼽아

리서치앤리서치 '국민의식 조사'

가장 깨끗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부패했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가 지난 7일 발표한 '한국 사회의 부패 및 청렴도 관련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정치인, 재벌총수, 세무공무원, 고위직공무원, 대기업사장 등을 가장 부패한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이나 단체중에서는 국회, 검찰, 기업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중앙부처, 법원, 연예계, 광역시도, 시군구, 청와대 등도 뒤를 이어 부패단체로 지목됐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권력기관과 지도층 인사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한 것은 사회통합과 국가안위를 위해서도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직업별 "부패하다" 응답률

순위	직 업	%
1	정치인	96.3
2	재벌총수	91.8
3	세무공무원	88.3
3	고위직공무원	88.3
5	대기업사장	87.1
6	경찰관	84.0
7	변호사	76.9
8	검사	75.4
9	판사	64.0
10	하위직공무원	63.5
11	기자(언론인)	62.4
12	대학교수	56.5
13	의사	50.1
14	중소기업사장	48.9
15	노조간부	48.5

시론

이산가족의 숙원



김 대 환
〈통일사회문화연구소장〉

"헤어짐의 반백년 정치적 논리떠나 무조건 상봉해야"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까. 지난 3일 남북간의 대화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16년전의 눈물겨운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다. 몇십년을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를 연출했던 이산가족찾기 TV앞에 앉은 온 겨레의 가슴을 적셨었다. 아무리 보아도 지치지 않는 드라마. 어느 누가 이와 같은 감동의 드라마를 또 만들수 있을까.

우리는 21세기를 맞는 세기의 전환점에 임박해서 또다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게 됐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겪고, 거기에다 6·25의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어야 했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면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겨레의 삶은 거센 파도의 격랑을 헤쳐오며 고통으로 점철된 눈물의 세월이었다. 그런 우리 삶에 다시 희망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분단의 아픔이 살아온 20세기와 함께 묻히기를 우리는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랐던가. 이제 우리들 남북인은 진지하고 차분한 노력으로 21세기의 출발과 더불어 새 민족사의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한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들은 생각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차원높게 바로잡아 진실과 성심으로 실사구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남북이 화목한 상봉을 위해 베이징에서 차관급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문제와 고향방문단 왕래, 서신교환 문제까지 논의하고 21일부터 다시 차관급 회담을 열고 남북간의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8, 9월쯤이면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날이 기다려질 뿐이다.

사실 고향방문단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5년에 이뤄진 바 있었고, 89년에는 거의 합의가 됐다가 "내부 후유증이 적지 않아 다시는 않겠다"는 북측의 일방적 선언으로 중단된 채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이번 6·3합의는 잘만 진행되면 남북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아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 민족이요, 한 핏줄의 저력이 어떤 것인가를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본질은 하나의 민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금 세계에는 2백여개의 크고 작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일민족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이나 일본 등 몇몇 국가뿐이다. 단일·동질의 민족사회를 바탕으로 한 국가를 우리는 민족국가라 부른다. 그렇기에 우리사회는 역사적·전통적으로 단일의 민족국가로서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바탕아래 대가족제도를 유지해왔다. 그런 가족제도 아래에서 가족간의 이별은 비극이고 한(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비극과 한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산가족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삼고, 분단의 절규를 조금만 더 내 삶의 절규로 받아들였더라면 아마도 지금쯤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문제로 다시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동서독은 70년대부터 이산가족 상봉과 방문, 자유로운 우편과 통신의 교류끝에 민간주도의 통일기반을 구축하고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서로 인내하고 양보하며 참고 기다려왔다. 단지 한 핏줄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

기다리다 지쳐 시간이 올러 아픔이 물히기만을 바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또다시 상처를 입혀서는 안된다. 1천만 이산가족들은 재결합까지는 안되더라도 고향방문이라도, 그것도 어렵다면 가족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어한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그 감격의 드라마를 다시 한 번 연출해보자. 가족상봉의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신제품
걸 망
CHUN HWA
◆ 특허청 ◆
상표 등록출원
40-1999-0014193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걸망을 매세요.



♣ 좋은점 6가지 ♣
· 때가 묻지 않습니다.
· 방수가 잘 됩니다.
· 八正道를 마크로 사용했습니다.
· 주머니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 大, 小 구분으로 체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안감은 卍자로 佛心을 담았습니다.

규격 : 大 가로 44cm 세로 48cm
小 가로 40cm 세로 38cm
가격 : 大 ₩33,000 小 ₩30,000
색상 : 회색

은행	온라인구좌	예금주	서울·경기
농 협	061-17-001230	(주)천화무역	5개이상 주문하시면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우체국	013805-0068619		

※ 전화주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 본 걸망은 小白山 金剛寺 (0572)636-6546 노스님 선방건립을 후원합니다.

노스님의 근심
· 늙은 것이 서럽습니다.
· 노후보장 되어야 수행, 포교 전념할 텐데
·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탁할 곳이 없는데
·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에 갈곳이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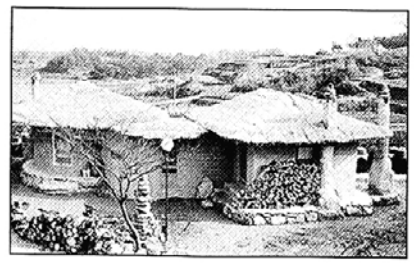
공급처 : 불자들의 모임 (주)천화무역
전화 : 02)449-8844
02)449-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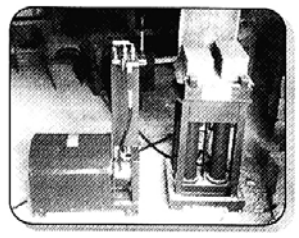
사주 명리학
특 강
사주·신수·궁합·택일·길흉·방위·진로·선택등을 기초부터 완전한 단명에 이르기까지 특별강의하오니 개업·부업을 희망하시는 수강인을 모집합니다.

◐ 강의시간 : 매주(화.목.토) 2시간씩 3개월
◐ 오전반 : 10시 ~ 12시
◐ 오후반 : 2시 ~ 4시 — 각 2시간씩
◐ 저녁반 : 6시 ~ 8시
◐ 개강일 : 1999년 6월 10일부터
◐ 수강료 : 교재대 포함 월 10만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801-57
해동명리연구원
전화 02)713-4852~3 FAX. 02)713-4853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도시-농촌 함께 잘살자" 사찰 도농공동체 매장 운영

운동본부 7월 발족…봉은사 · 능인선원 · 조계사 등 개설

사찰의 도농공동체매장(생활협동조합매장) 설립을 통한 불교도농공동체 운동이 본격화 된다.

인간과 자연을, 도시와 농촌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하나로 잇기위해 지난 4월 수도권 지역 23개 사찰과 단체로 결성된 불교도농공동체 준비위원회(위원장 원혜스님)가 오는 6월 말 봉은사의 도농공동체매장 개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도농공동체매장 개설은 상생하는 삶을 위한 생명공동체운동의 일환"이라 말하는 원혜스님은 "봉은사 신도뿐 아니라 지역주민까지도 도농공동체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원 참여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농공동체준비위는 이미 지난 3월 30일~4월 18일 능인선원, 봉은사, 조계사, 수원포교당, 영화사 등 도농공동체매장 설립에 적극적인 5개 사찰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생협학교를 열었다. 생협학교 교육을 마친 5개 사찰의 실무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특별판매를 기획, 지리산 실상사, 남농영농조합 등 전국 9개 생산지에서 가져온 나물류, 잡곡류, 옹기류 등 110가지 무공해 제품을 5월 15일~22일까지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도농공동체준비위는 지난 1일 봉은사에서 도농공동체매장협의회(회장 유억근)를 구성해 각 사찰의 도농공동체매장 설립을 위한 교육, 홍보, 물류유통, 판매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농공동체매장은 기존 생활협동조합매장의 다른표현으로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함께 발전한다는 생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교계에는 지난 95년 교계 최초로 개설된 부천 석왕사의 생활협동조합을 비롯 덕유사회복지관산하 덕유복지생활협동조합, 강남포교원 생활협동조합, 영화사 한마음 유기농산물판매장 등이 운영중이다.

도농공동체준비위 이정호 사무국장은 "봉은사를 시작으로 능인선원, 수원포교당, 조계사, 영화사 등에 도농공동체매장 설립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 사찰과 단체로 도농공동체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또한 석왕사, 강남포교원 등 기존의 사찰생협과의 연계방안도 점차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제2차 생협학교를 준비중인 도농공동체준비위는 이같은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2일 불교도농공동체운동본부로 정식 발족하게 된다.



◇5월 17일~2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은사에서 열린 유기농산물 특별판매 현장. 불자들의 환경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수입농축산물의 오염 등 생명위기, 생태위기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도농공동체매장 설립은 이벤트성 환경운동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흙을 살려내고, 건강한 먹거리를 살려내는 친환경적인 활동으로 각종 오염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02)723-1884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⑧



김 지 견 〈전통불교연구원장〉

5월말 잠시 귀국했던 김지견 박사(불교학)를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건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울 신사동 무불선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박사는 1시간을 넘게 열변을 토해 주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수개월전 일본으로 출국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김박사가 이렇게까지 건강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일본에서 바쁜 학술교류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스스로 개발해 실천해 온 건강비법 때문이다. 김박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든 비법은 세 가지, '아침 식사는 최대한 줄이고', '걷기를 마다하지 않고', '숨을 쉴 때에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다.

"아침식사 간단하게…많이 걷자" 호흡 관하며 항상 맑은정신 유지

익은 음식을 최대한 줄인 김박사의 아침 식단은 매우 특이하다. 밤 · 대추 · 고구마 · 당근 등이 주메뉴로 오른다. 김박사는 "화식을 한끼라도 피하는 것은, 몸의 '탐식(貪食)'과 마음의 탐심(貪心)을 절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탐(貪)'이 바로 만병의 근원 아니겠어요"라고 설명했다.

또 김박사는 가능하면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걷기에 열중하는 데에는 나이들수록 '유산소 운동'이 절실하다는 의학적 견해에서 비롯됐지만, 최근에는 걸으며 호흡을 관(觀)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걷는 것은 좁게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서 생명의 등불 즉, 불성을 밝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관법'을 가르치셨잖아요."

김박사가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비법은 결국 '맑은 마음'의 유지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한다.

요양을 위해 산사를 찾아온 요양객에게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하며, 하산을 종용했던 한 노선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김지견 박사의 건강한 얼굴에서 노학자의 '맑은 마음'이 느껴진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불교방송 발전기획단 떴다

재정 확보 · 광고 유치 방안 연구

석달간 한시 운영…백서도 펴내

2000년 개국 10주년을 앞둔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이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21세기를 대비하기위한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섰다.

불교방송은 사내 6개팀에서 뽑은 11명으로 구성된 '불교방송 발전연구기획단(단장 홍준기)'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주1회 회의를 갖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3개월뒤에는 10여차례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불교방송 발전을 위한 보고서 형식의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3일 열린 회의에서는 불교방송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방송제작 및 기술, 재정 확충 및 사업, 후원회 활성화, 방송 포교, 광고 유치 방안 등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21세기를 맞이해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를 수립키로 했다. 또 그동안 재정 수입의 주축을 이뤘던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하반기에 폐지될 경우 불교방송의 재정 독립을 위해 선결해야 할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통일한국 대불련 역할 찾는다

7월 28일~8월 2일 '1600년대회'…강연 · 음악회 · 문화공연

신 대승불교운동에 뜻을 같이 해 온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의 대향연 한국불교 1600년대회가 열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 이하 대불련)는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서울에서(장소 미정) 제18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개최한다.

대불련은 '하나에서 칠천만으로 이어가는 통일세상! 청년불자가 함께 합니다'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대불련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는데 중점을 둬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불교 1600년 대회는 △7월29일 오후 6시30분 입재식에 이어 각 지부의 문화공연과 각 회원간 상견례 △7월30일 오리엔테이션, 굴렁쇠굴리기 남북한 전래놀이 등 청년불자 하나됨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통일강연 및 비디오 상영 △7월31일 임진각 통일기원법회, 통일동산 순례, 통일음악제 △8월1일 신대승불교운동에 대한 강의, 대불련 후원의 밤, 대불련 가요제 및 대동제 △8월2일 지자포살, 울력 및 회향식, 뒤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불련 가요제와 대동제는 청년불자의 화합과 대동단결을 다지고 끼를 발산하는 자리로 마련될 전망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선사들의 선시 노래에 담았어요"

방송인 이근찬 음반 출시



불교방송에서 '퀴즈대장경'을 진행하는 등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불자가수 이근찬씨가 역대 고승들의 선시를 번안해 부른 노래를 음반에 담아냈다.

타이틀곡인 '보계나'를 비롯 '부처와 나' '화두' 등 10곡이 수록돼 있다. 또 같은 노래를 양악과 국악이 멋진 조화를 이룬 섭세하고 감미로운 반주에 맞춰 시로 낭송한 것도 함께 들어 있다.

차분한 리듬과 고승들의 감로법문이 배어 나는 가사가 어루러진 악곡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청량음료 같이 시원하고 편안함을 선사해 준다. 학명선사, 서산대사 등의 선시를 석정스님이 번안하고 국악 작곡가 유성민씨가 곡을 썼다.

단 신

20일 길상사 알뜰시장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가 아나바다정신에 입각해 세상과 자연을 맑고향기롭게 가꾸기위한 제9회 알뜰시장을 20일 서울 길상사 앞뜰에서 연다. 알뜰시장에는 의류, 도서, 생활용품, 신토불이 먹거리, 사찰전통음식, 무공해 세제 등이 판매된다. 매 짝수달마다 열리는 알뜰시장의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02)741-4697

'가정과 이혼관' 세미나

'IMF불확실성시대 각종단종교인이 본 가정관과 이혼관 학술세미나'가 1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천리교 등 5개종교의 대표자들이 각종교의 가정관과 이혼관에 대해 발표했다. 불교부분은 법사종 성순경총무원장이 발표했다.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연수회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정호스님)는 '새 천년 불교는 어린이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23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를 26일~27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연다. 선체조, 레크리에이션 댄스, 선체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738-7860

풍경소리 찬불동요 8집

창작곡 17곡 수록

좋은벗 풍경소리가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곡 제8집을 발매했다.

이번 제8집에는 '탑돌이', '개구장이 스님', '연등밝히는 날' '석탑위의 가릉빈가' 등 불교적 정서를 가득담은 17곡의 동요가 담겨있다. (02)2242-2567

청년불자 자아의 등불 밝혀보자

정토회 · 능인선원등 교양강좌

청년불자들을 위한 불교교양강좌가 속속 열리고 있다.

100일 정진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를 진행중인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19일 오후 3시 서울대 장희익 교수(물리학과)를 초청해 '연관과 상호의존의 우주적 깨달음'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청년불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마련한다. 또 20일 오전 11시에는 '현실 속의 수행과 수행의 현실화'에 대한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강연이 이어진다. (02)587-8994

능인선원(원장 지광)도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청년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청년아카데미는 한국불교 사상의 흐름(고영섭 교수), 현대사회와 불교(최봉수 교수), 종교와 불교(송위지 교수), 참선수행(명선스님), '공부보다 재미있는 놀이' 등의 강좌로 진행된다. (02)577-5800

또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7월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기초교리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불자로서의 삶' 등에 대한 주제로 3개월간 열린다. (02)730-9108

도필선 기자

큰스님 요즘 장경 보실시간 없으시죠!

정원스님의

增補 玄句集

一. 本書는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全內典과 논어, 도덕경 등 外典 若干에서 參學人의 指南이 될 玄妙章句를 抄하여 한글 번역한 것임.

一. 原文과 譯文을 분리하였고 上中下卷으로 편집하되 上卷 諸經集352件, 中卷 經外集1127件, 下卷 句頌集1452件 都合2931項, 原文만 一十五萬餘字이며 每項目마다 出典을 세밀히 밝혔고 특히 하권 구송집은 첫째 字의 畵數順으로 安排하였음.

一. 此集은 抄譯者가 출가 이래로 삼십여 년 간 佛典을 열람하면서 긴요한 文句를 수시로 拔萃하여 쌓아두었다가 금번에 인연이 도래하여 출간하게 된 바 특히 抄譯者가 직접 毛筆로 原文과 譯文을 한 字 정성을 다해 書寫한 것이며 增補라고 이름한 由來는 몇 년 전에 역시 抄譯者가 출간한 바 玄句集을 대폭 修正補完한 연고임.

총판대리점 법 우 당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TEL : 994-4437 FAX : 994-4438

국내 성지순례 회원모집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에 불자님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비추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경주온천관광호텔에서는 불자님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성지순례 행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제1차로 불교문화 역사의 고장인 경주를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순례에는 서암(전 조계종 종정)큰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또 국내 제일의 약알칼리성 중탄산나트륨 원탕으로 유명한 경주온천관광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며, 특히 이곳은 여성의 피부미용은 물론 혈액순환, 산성체질개선, 등 성인병에 놀라운 효험이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무좀, 피부병은 3회 정도만 목욕해도 효과가 금방 나타날 정도의 옥빛 온천수입니다.

경주온천관광호텔 뒷편 큰 연못에는 우거진 송림과 연꽃이 피는 산책코스로서 연산홍 꽃밭에서 추억의 사진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정: 1999년6월26일(토) - 6월27일(일) 1박2일
2. 순례코스: 대구동화사 · 약사대불 - 경주온천관광호텔 숙박 - 온천 사우나 - 석굴암 새벽예불 · 해돋이 - 경주남산 용문사(서암 큰스님 친견법회)
3. 참 가 비: 80,000원(호텔4인1실, 2식 제공)
4. 모집인원: 45명(선착순)
5. 접수마감: 6월 22일(화) 17:00까지
6. 출발시간 및 장소 : 6월26일(토) 오전 07:30 조계사앞(신한은행 건너편)
7. 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중구 정동15-5 정동빌딩 16층(서울사무소) 전화 02)777-2049, 019-265-5593 팩스 02)756-3696
8. 온라인 : 농협 476-12-326786 (예금주 :이인섭) 국민 006-21-0904-698 (예금주 :이인섭)

서암(前조계종 종정)큰스님 법회

· 일시 : 1999. 6. 27 (일) 오전10시

· 장소 : 경주 남산 용문사

경주온천관광호텔 서울사무소 KYONGJU SPA HOTEL

-세계를 한 빛깔 진리의 법 깃발 아래에

· 불교 지도자들의 필독서 ·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과 불교

고목스님 지음

시간과 공간사 Tel.3272-4546

이 한권의 책으로 3천년 서양철학은 불교에 회합하였다.
미래철학으로 주목받는 유기체 철학을 불교이론과 사상으로 명쾌하게 해설한 조유의 저술

· 알프레드 노쓰 화이트헤드는 케임브릿지대, 런던대 수학물리학 교수, 하바드대 철학교수를 지낸 20세기의 대표적 과학 철학자. '20세기는 수학과 철학의 분야에서 화이트헤드를 능가할 인물을 낳지 못했다'고 평가될 만큼 그는 금세기 최고의 철학자.

세계적 석학들은 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허드트리드 -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래 과학과 철학을 결합시킨 가장 중요한 책을 저술한 대 철학자'
■죤듀이 - '철학에 혁명적 공헌을 했다'
■찰스 · 레이븐 - '이제 부터 해명되어야 할 미래의 철학자'
■레오 훼츠 - '모든 문제를 새로운 형태로 담고 있는 유일한 철학자'

올.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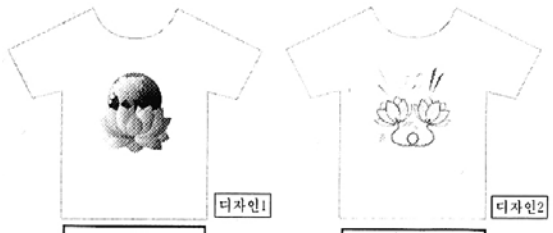
주문전화 ·····

02-732-1522

대표전화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올.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부다피아 면 티셔츠



■ 재질 : 순면 100%(20수)
■ 색상 : 흰색
■ 인쇄 : 나염인쇄(칼라)
■ Size : 대(XXL,XL),중(L),소(M,S)
■ 가격 : ₩ 7,000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사찰명·단체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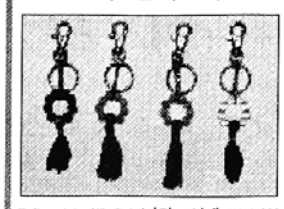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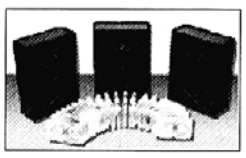
색상 :금색, 검정

단주 열쇠고리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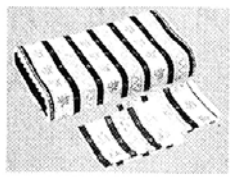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한국불교 총 람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한방 옥베개



가격 : ₩ 30,000(1개), 1세트(2개) ₩ 56,000
크기 : 50×28×80cm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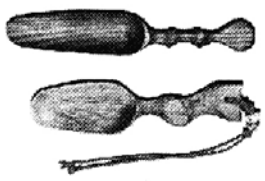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차 시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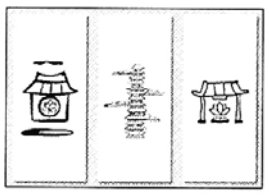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가 격
₩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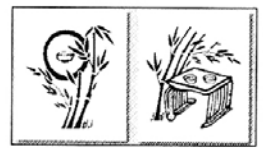
순금 99.9%

기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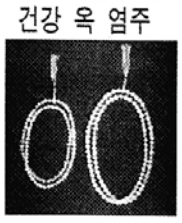
가격 ₩ 1,600 / 기장 84㎝ 폭 39㎝

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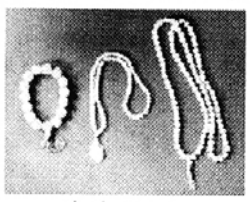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건강 옥 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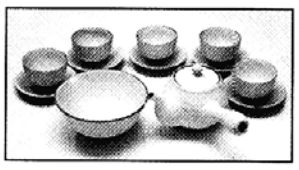
종 류 청옥·백옥염주(小) ₩ 30,000
청옥·백옥염주(大) ₩ 40,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압옥 염주 세트



가 격 : ₩ 95,000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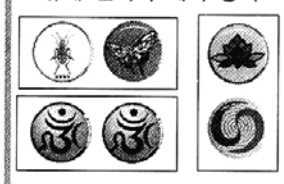
크기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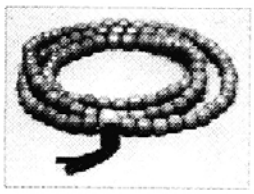
가격 : ₩ 9,000(1세트)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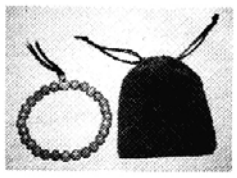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가격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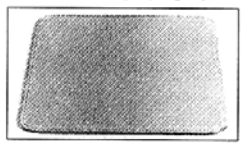
석풍 건강옥 카페트



가격 ₩ 138,000

크기 170㎝×240㎝
웟면 국내산 연옥 분말 1kg
코선 펠트지
바닥재 미끄럼방지 (우레탄+바이오 세라믹 처리)

석풍 건강옥 방석



크기 44㎝×44㎝
웟면 국내산 연옥 분말
코선 펠트지
바닥재 미끄럼방지(우레탄+바이오 세라믹 처리)
가격 ₩ 9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내부그림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가로) 140㎝(세로)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거산 죽염



흰산지 국산 가격 ₩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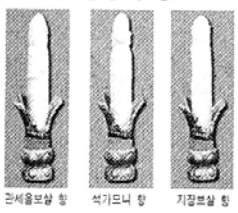
기도 청자 세트



₩ 25,000

청자항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바람막이2개

현상공덕 향



관세음보살 향 석기드니 향 지장보살 향

가격 ₩ 8,000 (1개당)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등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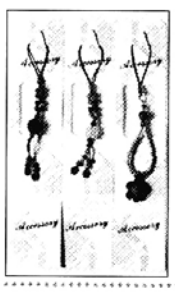
츰부다라니 불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헨드폰 걸이



종류
거북이 ₩ 2,000
민 자 ₩ 4,000
우 상 ₩ 4,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청화대선사 법회 비디오



가격 : ₩ 15,000

부처님 일대기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사자발쑥환



· 1달분 1통(1,500정) ₩ 55,000
· 2달분 2통(3,000정) ₩ 80,000

작설차 (우전·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전통식품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우농약,무방부제,무조미료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판매가
· 고추장 1kg기준	12,000원	· 무 장아찌1kg	12,000원
· 된장 1kg기준	7,000원	· 마늘쫑 장아찌1kg	12,000원
· 쌈장 1kg기준	7,000원	· 된장 콩잎 1kg	12,000원
· 간장 1.8L	8,000원	· 된장 뽕잎 1kg	12,000원
· 더덕 장아찌1kg	30,000원	· 된장 고추 1kg	12,000원
· 오이 장아찌1kg	12,000원	· 산초 장아찌 1kg	30,000원
· 갑 장아찌1kg	12,000원	· 울외 장아찌(나나스키)1kg	12,000원

참선 명상 방석



· 실용신안 1998-025009
· 의장등록 143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 보호 휴대기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43㎝

경 상

가격 : ₩ 85,000 / 재질 ASH(느릅원목)
규격 72㎝(가로)×34㎝(세로)×32㎝(높이)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 600,000

한국불교 총람 CD롬

가격 ₩ 60,000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불교 전통창살문양 손수건

신흥사 극락보전

은해사 대웅전

신흥사 극락보전

쌍계사 대웅전

불국사 대웅전

대승사 대웅전

봉은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중심사 대웅전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 넣어 드립니다.
가격 : 1장 5,000원 (원색 칼라)

강석주 큰스님 친필 관음 분청 도자기

분청 도자기는 일반 백도자기와는 달리 화로에서 구울 때 성공률이 25%내외 밖에 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장시간 굽는 등 제조 과정에 작가의 혼을 담은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특히 석주 큰스님(91세)의 친필 관음찬이 관세음 보살님 그림과 같이 새겨져 있으므로 소장 하신 분의 가내 액화를 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규 격 : 30×30×44(단위 센티미터)
•희망소매가격 : ~~1,000,000원~~
•특 판 가 : 495,000원

강석주 대선사님은
1909년 경북 인동출생
1923년 신학원에 출기
1928년 무산 법어사서 득도
1933년 법어사 강원 대교과 졸
1936-39년 오대산 상원사 · 금강산 미하연 · 덕승산 정혜사 · 묘향산 보현사 선방서 안거
1953-84년 은해사 · 불국사 · 봉은사 · 은해사 · 관음사 주지
1959년 법어사서 대덕법계 품수
1961년 신학원 이사장
1965년 월보사 조실
1971-84년 불교 조계종 제 7 · 11대 총무원장
1980년 초대 승가대학장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

※작품보증서 첨부※
송정도예에서 만들어진 지다이분청자기는 조선시대 상류하던 분청자기의 형태와 기법을 더욱 승화 발전시킴으로서 보다 높은 도예 예술에 도전하고 있고 국내와 일본, 대만의 작송도예전에서 입상 및 16회에 걸쳐 초청 전시회를 하였고 지다이분청자기를 어법하게 재현시킨 이시대의 진정한 조선도공의 후예입니다.
한점의 소장하시어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작품의 값어치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법회안내

봉은사서 일요초청법회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20일 오전 10시 봉은사 일요초청법회. (02)516-5652

20일 길상사 대중설법



법정스님(맑고향기 롭게 회주) 20일 오후 2시 길상사 대중법회. (02)3672-5945

의정부 군법당서 법회



원혜스님(봉은사 주지)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의정부 군법당법회. (02)516-5652

매주 토요일 어린이법회



도성스님(정토선원 주지) 매월 첫째,세째주 일요일 오후 7시 가족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청소년법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청년회법회. (062)528-0108

토요일 철야참선법회

진기스님(좋은절 선재정사 주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9시~일요일 오전 5시 철야참선정진법회. (0344)962-6690

20일 충정사 정토법회



김재영법사(청보리회) 20일 오전 11시 충정사 정토법회.

18·25일 서불청 정기법회



송위지교수(외국어대) 18일, 25일 오후 7시30분 서울불교청년회 정기법회. (02)730-9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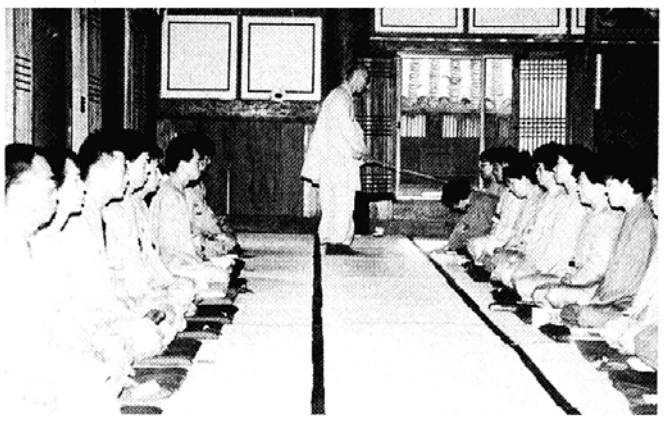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가자! 여름산사로"

전국사찰 단기출가·참선수련회

무더운 여름이 성큼 우리곁으로 다가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수련회의 열기는 한여름 무더위 못지않게 높아만 간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사찰과 단체에서 불자와 일반인을 위한 수련회가 마련되고 있다. 역사깊은 송광사 4박 5일 출가수련회를 비롯, 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반영한 직지사 선수련회, 부처님 당시 수행법으로 밤낮을 야외에서 지내는 태종사 수련회, 참선유경험자들을 위한 대둔사 집중 참선지도 수련회, 금강경 기도법을 통한 바른법연구원의 심성수련회 등 다양한 형태의 수련회들이 구도에 목마른 불자들을 기다린다.

여름방학과 휴가기간은 신심을 증장시키고, 불교를 좀더 심도깊게 이해하기에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 올여름에도 숨한번 크게 쉬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보자. 우리 속에 숨어있는 깨달음의 빛을 향하여.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올 여름에도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자신을 성찰하는 수련회에 참가해 보자.

◇사찰 여름수련회

사찰	대상자	기간	전화번호	사찰	대상자	기간	전화번호
송광사	일반	7월4일~8월12일까지 총 6차	(0661)755-9092	불국사	일반, 어린이, 청소년	7월말	(0561)746-9912
해인사	일반, 어린이, 청소년	26일~8월10일까지 총 7차	(0559)931-1020	법주사	일반, 어린이, 청소년	7월26일~8월9일까지 총 3차	(0433)543-3615
통도사	일반, 어린이, 청소년	7월19일~8월12일까지 총 6차	(0523)384-8380	봉선사	일반	7월28일~31일	(0346)527-1956
직지사	일반인, 선수련	7월29일~31일	(0547)436-6174	용주사	어린이, 청소년	7월19일~21일	(0331)234-0040
대둔사	참선유경험자	7월12일~8월4일까지 총 4차	(0655)534-5503	태종사	일반	7월20일~27일까지 7일간	(051)405-2626
쌍계사	일반, 어린이	7월29일~8월7일까지 총 3차	(0595)883-1901	원명선원	일반	8월2일~16일까지 총 3차	(064)755-3322
신흥사	일반	7월30일~8월3일까지 총 3차	(0392)636-7044	길상사	일반, 중고생	7월17일~8월10일까지 총 4차	(02)3672-5945
백양사	일반	7월16일~8월23일까지 총 4차	(0585)392-7502	정토수련원	일반, 어린이, 청소년	7월3일~8월13일까지	(0581)571-6031
수덕사	일반	7월22일~23일까지	(0458)37-6565				(02)587-8993
금산사	일반, 어린이, 청소년	7월말 예정	(0558)548-4441	바른법연구원	청소년	7월16일~18일	(0344)966-5877
월정사	일반	7월중순 예정	(0374)332-6664	선무도협회	일반, 청소년	7월1일~8월30일	(0561)744-1689

신행 캘린더

6월17일 (목)

■ 금화사 적멸보궁 참배=금화사는 20일까지 통도사, 법흥사, 정암사, 상원사, 월정사 등지로 적멸보궁 참배를 떠난다. (051)582-3042

6월19일 (토)

■ 독거어르신 실상사 효도관광=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오전 9시 무의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리산 실상사와 노고단 등지로 효도관광을 떠난다. (0546)458-0230

■ 선정회 철야좌선정진=선학원 선정회는 서울 안국동 선학원 선방에서 저녁 8시부터 20일 새벽 4시까지 철야좌선정진법회를 연다. 선학원 원장 성해스님이 참선법문과 좌선지도를 한다. (02)732-3327

■ 금강메아리 법계사 산행법회=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지리산 법계사로 무박 2일 산행법회를 떠난다. 밤9시 동대문 이스턴호텔앞에서 출발한다. (02)722-9517 윤부윤

■ 상원사·월정사·법흥사 답사=답사여행의길잡이 터사랑은 20일까지 오대산 상원사, 월정사, 사자산 법흥사 등지로 답사기행을 떠난다. (02)725-1284

■ 직장직능 지도자 대회=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20일까지 서초교육문화회관에서 직장직능 신행단체 지도자대회가 열린다. (02)720-7060

■ 서불청 워크숍=서울불교청년회는 정체성회복을 위한 임원 워크숍을 20일까지 연다. (02)730-9208

6월20일 (일)

■ 맑고향기롭게 알뜰시장=길상사 앞뜰에서 맑고향기롭게 알뜰시장이 열린다. 의류, 도서류, 생활용품 등이 판매되며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진다. (02)741-4697

게시판

알림

▲불교춘추사·불교영상(대표 최석환) 사무실 이전=최근 사무실을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호 원당빌딩 403호로 옮겼다. (02)733-8078

▲불교어린이 글짓기 작품 공모=한국불교아동문학회는 제17회 전국불교어린이 글짓기 작품을 현상공모한다. 동요, 동시, 시조, 관찰문, 설명문, 논설문, 체험문, 감상문, 편지글 등을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02)425-3002

▲무료한방진료=공창복지관은 매월 2,4주 토요일 오후 2시 동의대 한의대의 도움으로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한다. (051)363-2063

강좌

▲위빠사나=강남포교원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와 오후 7시~9시 수선당에서 위빠사나강좌를 연다. 교재는 〈대념처경〉 〈청정도론〉. (02)539-2631

▲직장인위한 야간교양강좌=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직장인을 위한 야간 교양강좌를 마련했다. 꽈부메이컵, 종이공예, 퀼트, 가정요리반, 한식조리사반 등. (0546)458-0230

▲장애인부모교육=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8일 오전 10시 장애아동 부모 및 장애아동 교육에 관심있는 이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0443)652-0500

▲꿈나무학습교실=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5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꿈나무학습교실을 운영한다. 학습지도, 특기활동, 심성교육등을 지도하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수업료 면제. (02)421-6077

모집

▲실직장애인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실직한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의 가정에서 가사보조활동을 할 장애인을 모집한다. (02)989-4215

▲수학지도 자원봉사자=덕유사회복지관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7시30분까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도해 줄 수학지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2)325-2161

▲무의탁요구르트배달 후원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노인 요구르트 배달서비스 후원자를 모집한다. 4만원으로 1년간 1가정에 요구르트를 배달할 수 있다. (02)2282-1100

▲간병·가사 자원봉사자=능인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가사봉사, 간병봉사, 차량봉사, 행정봉사 등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571-2988

종단소식

조계종

직지사 종무원 연수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 제1회 8교구관내 종무직원연수회를 개최한다.

6곳의 어린이집·유치원과 4곳의 복지관 종사자 60여명이 참가할 이번 연수교육에는 '불교의 오늘과 내일' '아동교육의 중요성' '복지포교의 중요성' 등의 강연이 실시된다.

수덕사 경허스님 다례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7일 대웅전에서 경허스님 다례식을 봉행했다. 방장 원담스님 주지 법장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다례식에서는 경허스님의 뜻을 받들어 선풍진작에 더욱 힘 쓸 것을 다짐했다.

태고종

대륜스님 탄신 117주 다례

대륜대종사 탄신 117주년 기념 다례식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사간동 법륜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인곡 총무원장, 혜초 법륜사주지 등 종단 원로 및 중진스님과 대륜문도 등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될 이날 다례식에서 참석자들은 대륜대종사 생전의 유업을 받들어 종단발전과 불교중흥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천태종

울릉도 성인사 낙성식

울릉도 성인사(주지 비룡)는 사찰 낙성식 및 관음불상 봉안식을 20일 오전 11시 울릉군 남양 1동 현지에서 봉행한다. 이번 낙성법회에는 도용 종정스님, 운덕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566)791-5011

진각종

종단간부 울릉도 순례

성초 통리원장 일정 교육원장 등 종단 간부들은 종회의원들과 함께 15~17일 3일간 금강원, 총지심인당, 여래심인당 등을 참배하는 등 울릉도를 순례한다.

대한법화종

창종 55주 기념법회

창종 55주년 기념 및 운경 신임 총무원장, 법찬 신임 포교원장 취임 법회를 23일 오후 1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봉행한다.

조동종

소림사서 국제 보살계



지명 승정원장 학봉 총무원장 심월 포교원장을 비롯 종단스님 45명과 신도 29명은 2~6일 4박5일간 중국 조동정종 본찰 소림사(방장 청심소회 선사)를 방문, 소림사 장경각에 한중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소희선사로부터 스님들은 국제보살계, 신도들은 국제대승보살계첩을 받았다(사진). 또 역대 고조선사 다례재를 봉행하고 달마조사수행지, 노자·공자의 중앙묘, 옥불사 등을 참배했다.

원융종

운경 종무원장 취임법회

인천종무원 개원 및 종무원장 운경스님(인천 보경사 주지) 취임법회가 5월 30일 인천 로얄호텔 2층 영빈각에서 개최됐다. 이번 법회에는 종정 일공스님, 총무원장 법륜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인천지역 각 사암 스님 등 총 3백여명이 동참했다.

열반종

부처님 고행상 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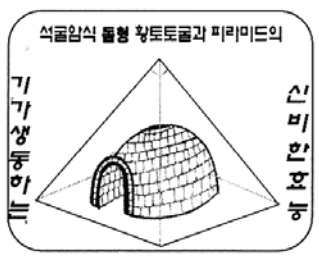
총본산 와우정사(원장 김해근)에서는 백옥으로 조성한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의 점안식을 20일 오전 11시 봉행한다. 이날 고행상이 봉안되는 대각전의 준공식도 함께 갖는다. (0335)332-2472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황토 집(토굴)

나무 장작과 구들방, 그리고 황토 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과 일체가 되는 살아 숨쉬는 황토 집을 짓겠습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집(토굴)
- 자연식품+한약재 배합
- 황토 미장 특허
- 돌형 토굴체험 황토 벽돌 공장 견학
- 황토 사랑 모임회 월 1회 개최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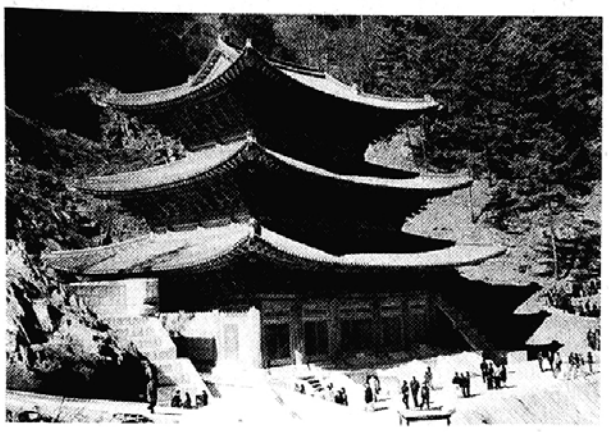
생활역학 및 사주 명리학 강좌
수강생 모집
● 교재 - 사주첩해 1권, 2권
저자 최 학 림
본 보현정사에서 드디어 저자 최학림 스님께서 강좌를 개설하여 기초부터 완성까지 직접 책임지도함.
선착순 10분 모집합니다.
※ 본교재 사주정해 1권·2권은 원광대학교 역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 스님들은 특별지도합니다.
◆ 개 강 일 시 ◆
1999년 6월 17일 오후 2시
◆ 기 간 ◆
주2회 매주 화, 목 오후 2시~4시
(3개월 과정)
◆ 장 소 ◆
보 현 정 사
보 현 정 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61번지 24/3
(상계4동 동사무소에서 200m거리)
문의전화 (02)952-7229

幹部 特別 招聘
근면·성실한 불자님중 事業이나 職場을 찾고 계신분
第2人生을 젊게 보람있게 건강하게
平生勤務할 수 있는 일터에 招聘합니다.
⊙ 會社에 대한 全般的인 브리핑을 드리고져 하오니 뜻이 있는 분은 직접 방문하시어 平生勤務할 수 있는 職場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거주자 가능(지방 거주자 불가)
▶위치: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17-7 동성빌딩 10층 (시청역 ⑦번출구)
☎ 상담전화 : 02) 778-0142
人事담당 常務 金慶培

「달마도」는
한 인간의 정형을 여러 각도로 조명한 것이요, 인간이 깨달음에 들 수 있는 길(방편)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은 곧 자신이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요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예시(豫示)입니다.
좋은 인연으로 자타 모두 기쁨의 성취를 기원합니다…合



▲소장용 달마도
■ 달마도 병풍(묵화) 4폭~10폭
■ 달마도 병풍(채색) 4폭~10폭
■ 달마도 미니병풍(채색) 6폭~12폭
액자용, 족자용, 선물용은 크기에 따라 (주/문/제/작)
禪林山房 토굴
無住 釋 圓 輝 합장
달마도 문의 : 011)563-4454



◇오는 10월 낙성법회를 앞두고 있는 구인사 조사전. 마무리불사중인 조사전안에는 천태종 중창주 상월원각 대조사 좌상이 봉안된다.

상월스님 조사전 10월 낙성

3층 다포집 양식…구인사 1차 성역화 회향

천태종 중창주 상월원각 대조사(1911~1974) 열반 25주기를 맞아 천태종도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될 조사전이 10월 낙성법회를 앞두고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오는 10월 대대적인 낙성법회를 갖게될 조사전은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적멸보궁 옆에 건립됐다. 조사전은 높이 25.8m 연건평 170㎡평의 3층 다포집으로 무형문화재 74호 도편수 신응수씨가 총지휘를 맡아 현재 내부 단청 등 마무리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5년 8월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 92년 5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착공한지 7년만에 완성되는 조사전의 특징은 200~300년생 태백산 적송 44만 6천여 재를 사용, 못을 전혀 쓰지 않고 전통양식으로 짜맞춰 건립되어 한국전통건축의 우아하면서도 기품있는 전통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지붕기와는 백자재작용 흙으로 만든 도자기 황금기와 3만여장을 사용했다. 1층부터 3층까지 통층으로 된 조사전안에는 높이 약 3.7m에 이르는 상월원각 대조사의 좌상이 봉안될 예정이다.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스님은 "조사전 낙성을 계기로 지난 45년 창건된 구인사 성역화 사업이 1차적으로 끝나게 된다"면서 "조사전 낙성을 계기로 상월 원각대조사님이 평소 주창한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활짝 꽃피워 천태일승의 종지를 더욱 선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KCRP, 새 천년 과제 진단

24·25일 세미나…불교·개신교등 2백명 참석

. 21세기 종교의 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회장 고산스님)는 24, 25일 '새 천년을 위한 한국종교계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불교 개신교 등 7개 종교 지도자와 학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과 남한강수련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새천년준비위원회 이어령 위원장의 기조강연과 성공회대 이재정 총장의 '민족공동체의 미래와 종교', 김용정 한국불교발전연구원장의 '종교와 생명문화' △윤석산 한양대교수의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종교의 역할' 주제발표에 이어 분임토론으로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도 참가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밝은길 아봐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종립청담고

정보통신고로 바뀐다

내년 3월부터…컴퓨터등 3개과 신설
벤처기업인·정보화 인력 육성발굴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종립 청담종합고등학교(교장 이근우)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주도해 갈 전문인재양성불사에 나선다.

청담고는 내년 3월부터 국내 최초이자 교계 최초의 정보통신전문고등학교로 새롭게 태어난다. 정보통신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전문 교육을 시킴으로써 취업기회 향상과 함께 벤처기업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변모를 시도하게 된 것.이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1차 인가를 받았으며, 최종 승인이 나는 이달 중으로 기존의 보통과 3개반 대신 컴퓨터 그래픽 멀티미디어 콘텐츠설계 등 정보통신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네트워크 디자인 3개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신학기부터 학과당 40명씩 1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학교명도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로 변경해 컴퓨터에 소질있는 전국의 인재들을 발굴하게 된다. 교과과정 또한 1학년은 입문과정 중심으로, 2학년은 실무과정을, 3학년은 개발설계과정으로 지도해 3년의 교육을 마치면 바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집중지도육성하게 된다.

청담고는 재단으로부터 10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올해 안에 기숙사 1개동 및 컴퓨터 교실 10개를 각각 신증축하고, 686급 최신형 컴퓨터 150대 확보해 1학생 1PC 교육체제를 갖춰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준비를 통해 종전의 교과서적 교육에서 탈피, 정보화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실용적인 인재교육 불사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담고는 이와함께 정규지도교사외에 인터넷 골드뱅크 김진호 사장, 경북대 김국교수(웹디자이너) 등 국내 유명 컴퓨터전문가들을 객원교사로 초빙,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기로 했다.

이근우교장은 "제2의 개교를 한다는 생각으로 종전의 교육틀을 과감히 깨뜨려 정보통신에 관한한 국내 최고의 학교로 육성하겠다"면서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종립학교 운영의 모델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부산 미룡사

자매사찰 결연

목포 보현정사

"부처님 가르침 따라 지역화합 앞장"

영남 자비참회도량 부산 미룡사와 호남 호국참회도량 목포 보현정사가 6일 현충일을 맞아 부처님 품안에서 지역화합을 발원하는 자매사찰 결연을 맺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두 사찰 주지스님의 법명이 '정각(正覺)'으로 같은데다 총신도회장이 각각 목포시장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어서 눈길을 끄는 가운데 상호 사찰순례 지역문화체험 지역문화유산알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목포 보현정사에서 열린 자매결연 법회는 새벽부터 5시간여를 달려온 부산 미룡사 신도 1백여명을 비롯 1천여 불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서 서명교환, 부산시 나무인 동백나무 식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현정사 주지 정각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목포항이 무안항으로 개항할 당시 부산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기여가 컸고, 지금도 유달산 바위에 '경상도우회'라고 음각된 바위가 남아있다"며 "부처님 화합정신으로 불자들이 지역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룡사 주지 정각스님은 "인간 본연의 평등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두 사찰이 역할한다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를 푸는 물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 미룡사와 목포 보현정사 자매사찰 결연법회. 사진 오른쪽부터 보현정사주지 정각스님, 이윤식 부산시의회의원, 권이담 목포시장, 미룡사주지 정각스님.

이날 1부 법회에 이어 2부 목포문화유적 답사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보현정사 신도들의 안내로 미룡사 신도들은 유향토문화관 목포문화원 유달산 등을 돌아보고 아쉬운 발걸음으로 부산으로 돌아갔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보훈의 달' 추모법회 잇달아

호국영령 천도재 유족위문 음악회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호국 영령을 기리고 통일을 기원하는 추모법회와 보훈가족 위문법회 등 다양한 행사가 전국에서 거행되고 있다.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전몰장병 호국영령 천도 49재'를 29일 회향한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이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을 비롯 전몰장병 유가족과 지역 인사 등 2천여명이 참석해 천도재를 봉행한다.

57사단 호국용마사는 22일 향승위원장 법장스님을 비롯 군장병 3백여명과 위령법회를 봉행한다. 육군 5사단 호국금강사도 25일 추모법회를 봉행하는 등 전국의 각 군법당에서 추모법회가 열린다.

한편 부산 보현장학회(회장 전해룡)는 14일 부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부산필교향악단의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보훈가족과 참전용사 및 그 유가족을 위한 위안공연을 개최해 희생영령들을 위로했다.

법연사(주지 조연)는 9일 부산 KBS홀에서 국태민안과 국민화합 및 호국영령을 위한 무보시 49 천도대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의 육법공양과 염불공양회의 염불공양 등의 1부 권공행사에 이어 천도식이 이어졌다. 이번 천도재는 5월 22일 법연사 법당에서 입재후 기도기간동안 무료 점심공양과 양로원 노인 위문공양 등을 펼쳐왔다.

천미희 기자

우리절 불사

영동 반야사



◇천년고찰인 영동 반야사는 60여평의 2층 종합수련센터인 백화루불사를 하고 있다. 원내는 주지 성제스님.

종합수련장 백화루 조성

전시회등 문화공간 활용
대중선방 건립도 추진

태고 보우스님의 법증손인 벽계 정심선사가 보림했던 충북 영동 반야사(주지 성제)가 가람불사를 통해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조계종 제5교구 법주사 말사인 반야사는 92년부터 작년까지 7억여원을 들여 33평규모의 대웅전과 45평규모의 요사채를 중창했으며 종합수련센터인 백화루를 기공할 예정으로 있다.

60여평 규모의 2층 목조건물로 세워질 백화루는 동하계 수련회를 비롯 각종 세미나와 전시회를 유치해 수행과 학술,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생활불교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찰측의 의도다.

경부고속도로 황간 인터체인지에서 불과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반야사는 사찰아래로 큰 개울이 태극형태로 흘러 아담한 저수지를 이루고 사찰을 에워싼 봉우리는 연꽃무늬를 이뤄 명당으로서의 품격을 갖췄다.

반야사는 신라 성덕왕19년(720) 의상대사의 수제자인 상원대덕이 창건한 천년고찰로 5백년된 배롱나무와 지방문화재 186호 삼층석탑이 한가로이 객을 맞고 있다. 조선 세조임금이 속리산에 왔다가 반야사에 들렀는데 사자등에 올라탄 문수등자 인도로 망경대에서 목욕한 후 마음의 번뇌가 씻은 듯이 사라져 환희심에 가득차 어필을 남겼는데 목사자와 함께 반야사에 전해 내려왔다는 설화가 전한다.

주지 성제스님은 "연꽃 봉우리가 올라온 자리에 대중선방을 세우고 저수지를 활용해 방생기도처로 만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찾아오는 불자들이 많지 않아 아까운 수행장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0414)742-7722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차한잔에 담긴 깨달음의 향기

서광불원 선방 비전 '禪茶' 보급 나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분야인 선차(禪茶)교실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광불원(원장 강순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선차(禪茶) 교실을 열어 선방에서 스님들 사이에서만 전해져 오던 선차를 보급하고 있다.

선차는 선방 수좌들이 참선하기 전후에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에서 유래했다. 고려, 신라시대에 성행하던 차문화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쇠퇴하면서 선방의 스님들사이에서 명맥을 이어온 것. 선차의 특징은 한 고금의 차를 통해 맑은 마음의 향기를 일깨우는 것. 차 향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따라 이어지며 일체의 생각을 쉬어버린 무아의 경지에서 깨침에 이르게 된다. 문의 051)518-4747

천미희 기자

작명

韓國人의 作名寶鑑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겠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름이 사람에 미치는 5대 원칙의 진수 수록
★작명비법의 원리를 배우고 싶은 분, 철학관 운영하시는 분, 스님,일반인, 누구나 필요한 책
★초보자도 각 성씨별로 작명의 5대 원칙에 맞추어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금능 선생이 35년 연구한 비법(수리 배열 등식)을 수록 공개!
★저자에게 작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작명우대권 증정
★불자 신도 작명 우대

· 저자 : 金農 김 관 희 · 책값 10,000원(송달료 포함)

※운세 감평 ※동양철학 개인지도

等身 金串禧(김환희) 이야기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인생을 보다 멋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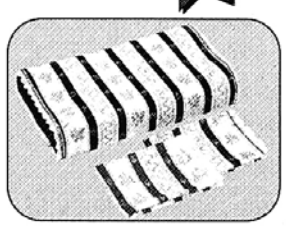
◐ 심신건강 비법! ◐ 공부 승진 입학 비법!
◐ 기 흡수 비법! ◐ 사업 성공 비법!
◐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
◐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스트레스 해소 비법!
◐ 한을 푸는 비법 ◐ 후회 없이 사는 비법!
◐ 현세와 내세를 다 잘살수 있는 비법 수록

· 저자 : 金農 김 관 희 · 책값 10,000원(송달료 포함)

판매처
(주)금농기획 0502)755-7700, 753-8482
053)753-8482 팩스 053)815-6729

국민은행 618-24-0095-319
농 협 720-02-217381 예금주 : 김 관 희

디몬 한방 옥베개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잣나무 함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의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이런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짧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쾌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 만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명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결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사가 필요하신 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 분
· 코걸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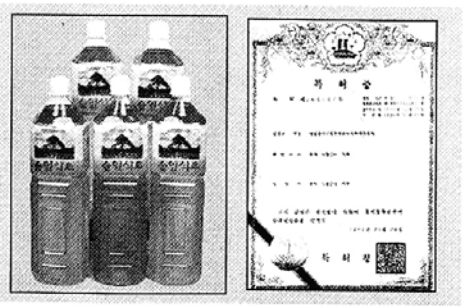
제조원: 세광산업(주) 02)766-8273~4
판매원: 몰. 부다피아 02)732-1522

솔잎식초

★ 발명특허 획득 제 065147호 ★

식초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초의 영양가는 원료나 제조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솔잎식초는,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진 소나무(赤松)에서 채취한 토종솔잎만을 전통옹기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순수 자연발효공법으로 숙성시켰으며, 깊고 은은한 맛과 향은 식초를 처음 대하시는 분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독특한 제품입니다.



◎제품명:솔잎양조식초 ◎영업허가:여주제20호
◎원료명:솔잎 100% ◎종산도:4° ◎용량:1.5ℓ

▶온라인 : 국민은행 023-05-0035-409 김상경

♣ 제조원 : 삼 숭 식 품
♣ 문 의 : 솔잎건강연구소
휴대폰 011-389-9595, 전화 (02)2296-5151

백산종합해사
BACK SAN TOTAL MARINE CO.,
대표이사 白 文 鉉

취급품목 : 1)선박기관(내연) 및 냉동기 수리 및 부품
2)각종 유압PUMP 및 WINCH제작 및 수리
3)각종 선박 부품 제작 및 납품
4)무역 및 잡화

본 사 : 부산시 태평동 1가 5번지
TEL : 051)413-9600(대)
FAX : 051)413-9602

일본사무소 : 神戶市 中央區 若菜通 5丁目 1-9-168號
TEL : 81-78-230-1323
FAX : 81-78-230-1234

공 장 : 釜山市 影島區 南港洞 2街 24番地
TEL :051)413-1193
FAX : 051)413-2339

일호면직상사

옥양옥, 광목, 삼베, 모시,
각종면직도매, 영가옷, 수의도매

대 표 백철우

■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4가 국제시장 5공구 B동 下층 1호 2호
TEL : 051)246-4263

"김태복소장 유죄 어불성설"

예비역군법사회·새불교승가회 항의성명

조계종 이달중 공동변호인단 구성키로
육참총장 선고형량 '징역 1년'으로 감형

전 17사단장 김태복 소장의 .01여단 군법당건립관련 1심 유죄선고와 관련 군내부의 종교갈등과 사기저하를 우려해 침묵을 지키던 '육해공군 예비역군법사회'(회장 성광)와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의장 진관·석담)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등 군의 종교편향적 재판에 대한 불교계의 항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예비역군법사회는 11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군법당에 대한 3천3백만원의 시주금을 뇌물로 간주해 기소한 점과 김 소장에 대한 부당한 재판진행에 대해 국방부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대한 사과와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비역군법사회는 이날 '김태복 소장 선고공판 관련 성명서'를 채택하고 "군 당국은 군정신전력 함양을 위해 건립한 군법당을 뇌물수수의 수단으로 오인케 하여 불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짜맞추기식 억지 주장과 증인의 허위증언 등을 일삼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김 소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원직에 복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의장 진욱·석담)도 8일 김 소장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종교활동에 쓰이는 보시금은 뇌물이나 촌지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이기에 이번 판결은 종교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무지에서 비롯된 오판"이라며 "국방부와 군 재판부 관계자들이 좀더 신중하고 공평한 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동신 육군참모총장은 2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5월 26일 1심선고공판에서 김 소장에게 실형 2년6월에 추징금 5천3백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재판 관할관의 재량권에 따라 실형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김태복 소장은 5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조계종은 조만간 판결문을 열람한 후 공동변호인단을 2심공판이 재개되는 6월말 전에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태복 소장 사건은 조계종을 포함한 불교계 전체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관련 종교편향대책위 손상훈국장은 "불교계의 지속적인 항의와 탄원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취해 온 군 당국이 대한 교계의 정서는 한마디로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참을만큼 참았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일이 계속될 경우 국민정부에 대한 불교계의 민심이반이 가속화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두레 살림터' 시범운영

조계종, 사찰-지역 묶는 공동체 구축
중소도시·농촌대상 복지사업 전개

우리 고유의 두레와 같이 지역사찰과 지역민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고산)은 지난 10일 전국의 사찰이나 포교원에 '우리동네 두레살림터'를 운영할 사찰을 모집해 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레살림터' 프로그램 운영은 조계종 복지재단이 지난달 행정자치부로터 99년 민간단체 보조사업 시행의 지원단체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두레살림터는 지역복지관이 존재하지 않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 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 가족 및 공중보건, 주거환경, 주민대동이벤트, 문화행사 등 6개 분야의 두레지기가 조직된다. 두레지기는 쓰레기 수거,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등 생활과 관련한 1백8개의 두레살림지표를 만들어 세부활동을 전개한다.

두레살림터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재단 박찬정 과장은 "사찰과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신행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의 성과가 좋을 경우 대폭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제2회 관광가이드 연수회가 10·11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렸다. 해인사 스님으로부터 벽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있는 가이드들.

불교문화체험 관광가이드 연수

해인사서…60명 참여

관광가이드들이 직접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2회 관광가이드 연수회가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 주최 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10~11일 1박2일간 해인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각 여행사에서 나온 총 60명의 관광가이드가 참석한 이번 연수회는 '화엄의 세계와 사찰문화'(박찬수 목아박물관장) '해인사의 불교문화'(유근자 동국대 강사) 등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강의와 대장경판전, 백련암, 지족암 등의 유적답사, 슬라이드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5월 불국사 연수회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이번 연수회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포교사를 양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관광가이드들의 호응이 높다. 또한 관광가이드들에게 정확한 불교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타종교인들도 참가한다는 점에서 '포교의 장'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가이드들의 의욕을 채워줄 보다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과 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연계활동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요청된다.

합천=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영생교 PC통신 선교활동 '극성'

유니텔불교동호회 겨냥
불교왜곡등 궤변 일삼아

PC통신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 시샵 정경자, 이하 유불동)를 겨냥한 영생교의 선교활동이 극성스러워 이에 대한 방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신흥종교인 영생교의 무차별 침투로 이미 지난해 5월 한차례 홍역을 앓았던 유불동은 최근 더욱 거세진 인신공격과 교리공방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생교는 조계종 분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유불동 '증교한마당'과 일반 토론광장인 '프라자(Plaza)'까지 진출해 교묘한 궤변으로 선교를 벌이고 있다. '몽고의 별' '웬두리번' '금화종지' 등의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금강경〉에 나오는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을 '모든 석존의 불법은 마치 꿈과 허깨비,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라고 왜곡하는 등 불경을 작위적으로 해석하거나 교묘히 짜맞춰 불교를 왜곡하고 있다. 이들은 또 '귀의 진삼보하옵고' '나무미륵여래불' 등 불보살의 명호까지 들먹이며 유불동 불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한 술 더 떠 유불동 회원 개인에게 직접 이-메일(E-Mail)을 보내 인신공격을 하거나 교리논쟁을 벌이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투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공금 13억 횡령 잠적 불국사 진현스님 수배

경주 불국사 재무국장 진현스님이 사찰공금 13억여원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7일 진현스님을 수배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불국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최근 검찰에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현스님이 인출한 공금은 불국사 문화회관 건립기금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 & 뉴스

조계종 스님 전산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종무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스님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7월 5일부터 9일까지 동국대 전자계산원에서 '조계종 스님 전산교육'을 실시한다.

본사 추천 스님이나 각 교육기관 교역자, 종무 전산화 시범사찰 교역자,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스님 등은 물론 전산교육을 희망하는 스님(기초·중급반 각 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02)732-4923 김재경 기자

대만서 WFBY 이사회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회장 솜마이, 이하 WFBY) 상임이사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된다. 대만불교청년회가 주최하는 이번 이사회에는 '정기 뉴스레터 발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리는 제12차 총회' 등 5가지 안건이 논의된다.

이번 상임이사회에는 WFBY 이상대 부회장, 한국본부 이치란 회장, 백원기 교수(동국대) 등 6명이 한국대표로 참석한다. 오종욱 기자

20일 '불광' 2代 법주 추대

불광사와 불광법회는 제2대 법주 지정스님 추대식법회를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봉행한다. 지정스님은 65년 광덕스님을 은사로 출가, 67년 해인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하고 장춘사 불광사 마하사 등의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한안 봉불사 주지로 있다. 스님은 5월 16일 광덕스님 49재때 만장일치로 불광사 제2대 법주에 추대됐다. 이경숙 기자

영암스님 12주기 추모재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는 14일부터 20일까지 영암스님 열반 12주기를 맞이하여 추모 7일 정진대법회를 개최하고 개혁도량의 모범사찰과 사부대중 재결집을 발원한다. 정진대법회 기간동안 사시기도에 맞춰 금강경독송과 영암스님 육성법문을 청취하고 참배단도 설치한다. 회향일인 20일 오전 11시 봉은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추모재에는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을 초청하여 추모법문도 듣는다. 김원우 기자

5·18 영령 위로법회

대한불교 불승종(총무원장 문광)과 광주 춘설다회,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6일 광주 5·18묘지와 문화예술회관에서 '차와 국악이 함께 하는 국민화합 큰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5·18 영령 위로와 동서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호남 불자 2천5백여명과 한화갑 국민회의 총재특보단장, 조성준 추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중 5·18청년동지회 간부 유모씨가 한화갑 총재특보단장에게 오물이 든 비닐봉투를 투척해 한때 소동을 빚기도 했다. 정성운 기자

고려대장경연구소 새 심볼 제작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가 최근 새 심볼을 제작해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심볼은 중앙대 예술대학 산업디자인연구소(소장 유제국)와 김준교 교수(중앙대)가 함께 디자인한 것으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시각디자인 통일계획인 V.I.P(Visual Identity Program)작업의 일환이다.

팔만대장경과 팔정도를 상징하는 8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새 심볼의 전체 원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번뇌와 망상을 제거하주는 법륜이 되어 마침내는 중생의 본래 마음자리인 일원상(一圓相)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강지연 기자
(jvgang@buddhapia.com)

천안 불광사 옆 교회 신축공사로 소음피해등 심각

11년째 포교를 해오고 있는 사찰 바로옆에 담도 설치하지 않은 채 교회가 들어서 소음피해로 인한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천안 불광사(주지 대일) 바로 옆에 사랑의교회가 사람통행도 안될 정도의 공간을 둔채 건물을 신축하고 창문을 불광사와 마주보도록 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불광사 주지 대일스님은 "창문을 다른 곳으로 내 줄것과 어린이집 원생들의 수업시간을 비롯 사찰의 종교행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교회측에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면서 천안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광사는 진정서에서 △교회 출입문 변경 △출입문 위치변경 △사찰수행환경훼손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불광사측은 "공사소음과 공해로 인해 법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원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고 위험성 때문에 놀이터 이용조차 못해왔다"며 "분쟁의 소지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재)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

법당 개원 및 점안 대법회

법륜종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교육불사를 통한 종단기강 확립과 종풍쇄신을 통해 한국불교의 좌표를 제시하고자, 그 첫 발원으로 총무원 청사내 법당을 마련하고 개원 및 점안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종도 여러분을 비롯 제방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동참하셔서 원력을 모아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불교법륜종 종정 일화

총무원장	효성	유지재단 이사장	정각
종회의장	혜봉	이사	탄공
부의장	법일		금암
	승도		일화
사정원장	무주		혜안
포교원장	혜안		창법
예경실장	법선		혜우
총무부장	법안		봉안
교육부장	회광		선종
사회부장	청호		진각화
문화사업부장	만수		도명
재무부장	성련	감사	도광
			일정

· 법당개원 점안대법회 ·

♣ 일 시 : 불기 2543년 6월 25일(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장 소 : 총무원 3층 큰법당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 전화 (02)733-4445

어젠, 여름 한철이 아닌 사계절 사용하십시오! 다미론이 있습니다.

저희 C.M.M실업은 지난 50여년 간 전통적 소재이고 자연재인 등심초 자리 바닥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온 광산기업에 뿌리를 두고 다미론 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보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미론 - 발명특허 제0200029호, 상표등록 제418243호/ 일반형 , 수맥파방지형
다미론은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천연 등심초 자리 소재를 피질로하여 국내 소비자의 생활 패턴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하절기의 고온다습함과 동절기의 한랭건조함을 피질인 등심초자리의 특성과 고발포 심재의 조화로 동시에 격감시켜 줍니다. 다미론은 위생적이고 경량인 고발포 비흡수성 심재를 사용함으로써 냄새, 먼지, 곰팡이, 세균 등의 발생을 100%예방합니다. 다미론은 집회공간(사찰,수련원,포교당,선원 등)시공시 하절기 냉방비는 물론 동절기와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의 난방비를 혁신적으로 절감시켜 드립니다. 이는 피질인 천연 등심초 자리와 특수소재인 심재의 탁월한 보냉, 보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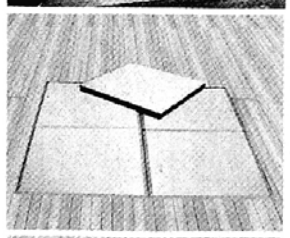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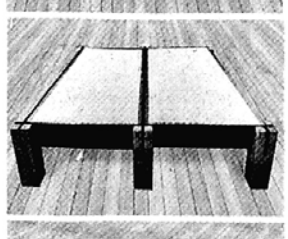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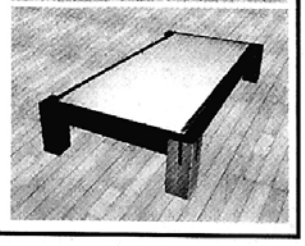
다미론베드 - 발명특허 제10-1999-0014792호 출원
주문제작용 비접착 원목 성형 조립식 특수 구조로제품의 사이즈를 무제한 확장시킬 수 있어 일반 침상으로는 물론 기타 집회공간에서 별도의 목공사를 취하지 않고 고품격 좌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또한 분해, 조립이 용이하므로 공간의 용도 변경시 다른 공간으로 이동후 재조립이 가능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찰 및 일반가정의 모든 공간에 품위와 경제성을 더해 주는 "다미론" 입니다.

단위:mm

구 분		내 용
다미론	사이즈	910X1,820X20~50(조절가능-축소가능) 약2평/1평
	색 상	마론톤색 (미색)
	중 량	A형 :5Kg / 1매
	재 질	등심초 두자리
	상 재	A형 (기 본) 비중계 소재(THK6 무취) +나왕합판(THK9) B형 (수맥방지) 삼목+소중(99.9%)조밀망 +나왕합판(THK9)
	이 장	겉 면 나일론직물(해리)-일본산 비닥면 고급 부직포 기 공 공업용 스테플접합+글루건접합
다미론베드	재 질	나왕 미송 원목
	접합방식	비접착 원목자체성형
	사 이 즈	1,000X2,100X400(기본모델) - 주문자요구에 따라 조절가능(무제한 확장가능)
발주가능량		3,000 ~ 5,000 / 30일
제품 특성		전철가능, 보관 및 이동편리 용이 제품자체 보온 보냉효과 우수(사계절 사용가능) -냉,난방비 대폭절감. 비흡수성 심재사용으로 위생적 다미론 베드-비접착 원목사용 완전조립식 수맥파 방지(B형) - 각종 수맥장애 건강감에 개선효과 수요처별 사용매수에 따라 가격조정 가능 시공시(부착모 미시됨)에는 시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맥파 방지!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

C.M.M INDUSTRY division of KWANG SAN.

전국대리점 및 개인딜러 모집 (문의전화) 02-332-2799

본사)서울 마포구 창전동 3-68 덕성 B/D 203호
TEL 02-332-2799 FAX 02-332-2799
공장)광주 광역시 북구 누문동 206-2 광산 B/D
TEL 062-526-1633 FAX 062-524-4123
Internet Homepage) http ://cmm bz co kr
E-mail) cmmhome@chollian net



◇대원사 극락전 달마도. 동쪽벽에 그려진 이 벽화는 달마스님에게 2조 혜가스님이 팔을 잘라 바치는 〈전등록〉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벽속의 '그림설법' 사진으로

관조스님 '사찰벽화' 사진집 펴내

예술성 뛰어난 불화 61점 컬러로



◇관조스님

틈만나면 사진기를 들고 사찰을 찾아 전각, 꽃문 등 불교문화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앵글에 담아온 관조스님. 전국의 사찰을 다니며 찍은 독특한 사찰 벽화 사진들을 모아 사진집을 펴냈다.

도서출판 미술문화의 '우리문화보기' 시리즈 3권으로 출간된 〈사찰벽화〉는 후불벽화 2점, 외벽화 13점, 측벽화 14점 등 총 61점의 벽화가 컬러로 실려 있다. 이 사진집에는 유려하고 창제된 필선과 온화하고 세련된 색감이 뛰어나 조선 초기 불화 양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후불벽화인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삼존도'를 비롯 용도사 용화전 단청까지 각양각색의 사찰벽화를 앵글에 담았다. 사찰 곳곳에 그려진 벽화가 관조스님 특유의 감각으로 생명력있게 되살아난 것이다.

특히 이 사진집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발굴 정리하는 목적으로 기획 출간된 만큼 벽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해설도 덧붙여 이 책의 진가를 한층 높였다. 박도화 문화재 전문위원의 '우리나라 사찰 전각의 벽화' 논문이 수록됐으며, 각 도판의 의미와 예술적 가치 등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이밖에도 수록 사찰목록과 색인이 별도로 실려 있고, 영문으로도 번역돼 외국인까지 한국벽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꾸며졌다.

벽화는 사찰 전각을 장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써 내외 벽면에 불교를 주제로 그려진 그림. 불·보살 등의 존상화(尊像畵),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불전도(佛傳圖),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전생설화도(前生說話圖), 경전의 내용을 압축하여 그린 경전변상도(經典變相圖) 등으로 후불벽화, 측벽화, 포벽화 등으로 구분된다.

부산 범어사에서 수행중인 관조스님은 사진을 통하여 불법을 전하는 사진작가. 스님은 우리문화보기 시리즈인 〈대웅전〉〈꽃문〉을 비롯 〈수미단〉〈승가〉 등을 주제로 10여권의 사진집을 출간하는 등 사진을 통하여 한국 불교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하고 있다. 값 3만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주부신행담

참회하는 마음으로

6년 전 보슬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평소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로 멍들어 아파할 때였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현진이가 그런 내 모습을 보기가 안스러웠던지 "엄마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아프지 않게 해 달라고 하자"며 울었다.

현진이의 말대로 나는 현진이의 손을 잡고 집에서 택시로 5분거리에 있는 용화사에 가게 되었다. 평소 "조상님들 잘 모시고 조카들까지 성심껏 잘 보살피는데 뭣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라며 누군가에게 모를 원망을 했는데 그래도 나에게 인욕을 강조하시던 시어머니가 일러주신대로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렸다.

어느날 갑자기 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 천도재와 구병시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후 나는 원인을 알수 없는 병을 앓아 몸져눕게 되었다

기도를 하고 있자니 그런 내 모습을 보셨는지 용화사 스님께서 "시간있으시면 잠깐 상담 좀 하고 가세요"라며 말을 건네셨다. 내가 고통안 머리 속으로 그려오던 줄가자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계신 맑은 스님이셨다.

아들과 함께 스님을 뵈었더니 스님은 내게 매일 108배 기도를 하라고 권유하셨다. 스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매일 절에 가서 108배를 했다. 108배를 하는 동안 원일인지 앞을 분별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 두었던 서러움과 참회의 눈물이었는지 모른다. 그 때의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어느날 형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날은 형님이 사망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날이었다. 스님께서 천도재와 구병시식을 해야될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채 하게 되었는데 며칠 뒤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발병으로 앓아 눕고 말았다. 시어른은 물론 우리집 아이와 조카 둘 모두가 나 하나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인데 내가 몸져 누워버리니 하루 아침에 집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애가 단 친정어머니와 언니가 하루는 어디가서 물어봤다면서 '신이 온 것 같다고 하더라'며 같이 가 보자고 했다. 신이 어디에 왔다는 것인지 쓴 웃음만 나왔지만 친정어머니의 강요에 못이겨 결국 그곳에 가게 되었다.



그림 · 문병성

매일 108배와 불교공부 보살행 정진

남편도 동참…몸 마음 가정 밝아져

그곳의 할머니는 "이미 보통은 지났어. 상을 버려 보살행을 해봐.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인 것만 명심하면서 살면 훗날 자식덕 보겠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친정어머니께 "딱내딸 조금도 안쓰러워 하지 마라. 애착 끊어야 딸애가 백년해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으름장을 놓으셨다.

그땐 그 할머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인가 싶어 언짢은 마음뿐이었다. 부처님법에 귀의한 사람이 그런 곳에 찾아가 길을 찾으려 한 것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말씀이 모두 틀린 것만은 아니었던 듯 가슴에 새겨졌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는 우연찮게 참회도량 혜은사와 인연이 돼 열심히 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사찰 입구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어느 노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시다가 주지스님께 노란 봉투 두장을 주시면서 나에게 전해주라고 하셨다. 봉투 안에는 '옴아모카살바다라사다야사베훔' 원성취진언이 적혀 있었는데 주지스님이 나에게 봉투를 전하는 순간 어느 젊은 여인이 한 장을 빼앗아가 버렸다. 세상을 빼앗긴 듯 난 너무나 실망을 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 깨고보니 꿈이었던 것이다.

그 꿈은 내가 업장 닦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 기초교리서에서부터 큰스님들이 저술한 책까지 구입해 시간 나는대로 읽으며 공부에 매달렸다. 조계사에서 구입한 경전 테이프를 아침 일찍부터 크게 틀어놓고 매일 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날 남편이 퇴근해 오더니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것 같다"며 "나도 불교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왔다. 남편은 그 후 집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염불과 기도를 했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도 자상하게 대해 주었다.

남편이 불교에 귀의한 뒤 얼마되지 않아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양귀비처럼 예쁜 여인이 흰소복 차림으로 합장하고 삼배를 하면서 '이젠 당신 곁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가야겠다'며 현관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너무나 이상해 곤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꿈얘길 했더니 남편도 똑같은 꿈을 꿨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남편과 나는 앞으로 더욱 공부에 매진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자고 다짐하면서 기도를 올렸다.

"거룩하신 부처님,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업 중생들의 고통을 법비로 씻어 안락환희의 바다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끝〉

법인행〈충북 괴산군 증평읍 대동〉

서울에서 50分거리

저렴한 가격

전원주택, 주말농장, 교육관, 수련장, 복지회관 건립부지

확실한 투자

삼보에 귀의하옵고

삼가 우리 불자님들께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뜻하지 않은 I.M.F한파를 잘 이겨 내셨는지요?
저는 10년전 부터 수도권 일원의 전원주택 부지 안내와 개발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青山컨설팅 대표 안 태진 입니다.
금번 저희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기 좋고 물맑은 양평 지역에 투자성이 매우 높은 전원 주택지를 소개 해 올리고저 합니다.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평수 : 500평, 1,000평 분할매매
특징 : 동남향, 서울에서 50분 거리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토목정비작업 해드림
주위 피쉬랜드 낙씨터 근접. 평당 15만원 분할매매가능

부지1

부동산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산98번지
총 평 수 : 4980평 (준농림+생산임지) 500평,1000평 분할매매가능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평수 : 3,040평 (주택1채 허가필) 지목 : 준농림+생산임지
특징 : 서울에서 50분 거리 정남향. 앞에 맑은 저수지, 주위경관 수려함 평당 8만원

부지2

부동산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21번지
총 평 수 : 3,040평(준농림+생산임지) 정남향, 출퇴근 가능, 저수지 접한 땅
급매 평당 8만원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평수 : 1,500평(전원주택 2가구 허가필)
지목 : 준농림(임야+답)
특징 : 저수지 근접. 서울에서 50분거리(잠실)
금액 평당 12만원 투자성이 매우 양호함

부지3

부동산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49번지
총 평 수 : 3750평 2필지(준농림+생산임지)
용 도 : 과수원, 평, 사슴목장 농업용도 개방가능
4m진입로 확보 급매 평당 5만원

CHUNG SAN현설계
02)420-5474~5 / 011)213-4594

● 기타 더 자세한 관계서류 및 궁금사항은 ☎02)420-5474~5, 011)213-4594번으로 연락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불자님 가정에 행복된 나날을 기원 합니다.